

# 북한 세시풍속의 변화

: 문헌을 중심으로

사업기관: 사회과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사업명: 북한 세시풍속의 변화-문헌을 중심으로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강정원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주요참여인력

성명	소속	직급
안주영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권혁희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조교수
권혜윤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과정

## <목차>

### I. 서론 (강정원)

1. 문제 제기 및 연구 방법
2. 연구 시각
3. 북한 민속명절의 변화

### II. 북한의 '국가명절(사회주의 명절)'과 '민속명절'의 휴무일 변화 (안주영)

### III. 북한의 민속명절 정책과 근대 국가명절로서 부상한 양력설 (안주영)

1. 해방후 김일성의 민족문화유산계승정책과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의 민속명절로서 부상한 양력설
2. 1980년대 이후 국가의 사회주의 명절로서 지속되는 양력설

### IV. 북한의 민속명절 정책과 전통 민속명절로 부활한 음력설과 정월대보름 (안주영)

1. 1980년대 이후 전통 민속명절로 부활한 음력설
2. 2000년대 이후 북한 주민의 민속명절로서의 음력설과 정월대보름
  - 1) 북한의 민족적 전통을 계승하는 민속명절로서의 음력설 세시 문화
  - 2) 새로운 전통 민속명절로서 재창조된 정월대보름

### V. 북한의 조선민족제일주의와 단오, 청명, 추석의 명절문화 (권혁희)

1. 단오, 한식, 청명 중 조선 고유의 명절은 무엇인가?
2. 단오의 창출과 조선민족제일주의
3. 청명과 추석을 통해 본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진화
4.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정책화로서 비물질문화유산 제도

### VI. 북한의 국가명절에 드러난 정치권력과 집단기억 (권혜윤)

1. 북한의 주요 국가명절
2. 태양절과 광명성절
  - 1) 『로동신문』에 드러난 영웅화, 신화화
  - 2) 『로동신문』에 나타난 태양절, 광명성절의 기념행사들 분석
  - 3) 조선인민군 창건일의 변화

### VII. 결론

<부록>-문헌자료 목록

<참고문헌>

<서울대학교 2020년 통일기반구축사업 결과보고서>

# 북한 세시풍속의 변화 : 문헌을 중심으로<sup>1)</sup>

강정원, 안주영, 권혁희, 권혜윤

---

1) 본 결과보고서는 2020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 I. 서론

강정원(서울대)

## 1. 문제 제기 및 연구 방법

우리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중요한 의례이자 포괄적인 풍습인 세시풍속은 축제나 의례, 놀이 등이 결합된 형태로 수행되며, 세시풍속에는 시간관과 공간관, 자연관, 다양한 가치와 의미가 개입되고, 사회적 관계망도 작용하며, 경제나 정치까지 세시풍속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세시풍속에 대한 연구는 종합적인 연구가 불가피하다. 세시풍속에 대한 연구가 사회적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지만, 국가의 시간 정책이나 여가 놀이 정책의 정립에도 중요하고 사회나 문화를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학문 중에서 세시풍속에 대해 꾸준히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은 민속학이 된다.

본 보고서는 북한의 세시, 그 중에서도 민속명절에 관한 연구결과물이다. 북한 민속명절에 대한 연구는 북한과 남한이 대립하고 있는 요즈음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가져오는 데에 초석이 된다. 북한 민속명절연구를 통한 북한 민속세계에 대한 이해는 남북 상호간에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서로를 전인격으로 용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감정과 직관에 기반한 이해를 가져온다. 하지만 북한 연구에서 민속연구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고, 민속학계에서도 북한민속에 대해 중시하지 않았다. 1990년대에 주강현에 의한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졌고,<sup>2)</sup> 2020년도에 강정원이 북한민속에 관한 연구서를 출판하였지만,<sup>3)</sup> 북한민속세계 일반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아직 요원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타개하는 차원에서 본보고서가 입안되었다.

본 보고서는 <서울대학교 2020년 통일기반구축사업 결과보고서>로서 강정원 책임연구원, 안주영 연구원, 권혁희 연구원, 권혜윤 보조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북한의 민속명절과 국가명절(사회주의 명절)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수집 및 정리, 목록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북한 세시풍속의 변화에 대해 작성한 것이다. 연구팀은 주로 북한의 『김일성전집』, 『김정일선집』, 『김정일전집』, 『김정은 문헌집』 및 단행

2) 주강현, 『북한민속학사』, 이론과실천, 1991; 주강현,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민속원, 1999. 이 외에도 주강현은 북한 민속에 대한 다양한 업적을 남기도 있다.

3) 강정원(편), 『북한의 민속』, 민속원, 2020.

본, 『로동신문』, 『조선향토대백과사전』, 『주간북한동향』, 『천리마』 등의 문헌자료에서 민속 명절과 국가명절에 관련된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수집하였고, 수집된 방대한 양의 문헌자료들을 재분류하고 체계적으로 목록화함으로써 각 시기별 북한 명절의 변천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연구팀은 2020년 11월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연합학술대회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21년 1월에는 비교문화연구소 주최 학술 세미나의 발표 및 토론, 전문가 자문, 전체 연구진의 회의를 통해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이로써 본 결과보고서에서는 20세기 후반 북한의 국가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민속명절 및 국가명절의 변천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문헌자료의 내용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여 기술하고자 하였다. 본 결과보고서의 서론은 강정원 책임연구원이 작성하였고, 본론의 2장, 3장, 4장은 안주영 연구원이 북한의 양력설, 음력설, 정월대보름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본론의 5장은 권혁희 연구원이 북한의 단오, 한식, 청명, 추석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며, 6장은 권혜윤 보조연구원이 북한의 국가명절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서구 민속학계에서 세시는 일년의례 혹은 일년축제 등으로 해서 연구되지만, 일년을 단위로 해서 전개되는 의례를 체계화시켜 세시풍속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축제나 의식 연구의 일환으로 일년의례를 연구하지만, 일생의례나 인생의례 등으로 개념화되는 통과의례를 훨씬 중요시한다. 문화 연구의 일환으로 세시를 연구한 민속학은 사회와의 연관성을 중시하지 않았고, 특정 문화 요소의 복합으로서 세시를 이해했다. 문화복합현상으로서 세시풍속이 여타 문화복합현상과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보다는 세시풍속 내에서 요소들이 맺는 관계나 원칙 등을 구명하는 데에 연구중심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방향은 사회학의 출현으로 인해서 좀 더 심화되다가 사회학의 영향을 수용하는 일부 학파에서 세시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일년의례 혹은 세시풍속은 뒤르케임이나 모스 등의 프랑스 사회학 계열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졌는데, 시간관과 연관된 프랑스 사회학의 관심과 연결된다. 통일된 시간 체계는 사회의 질서 유지에 핵심이라는 점을 프랑스 사회학계에서는 포착하였고, 사회적 시간과 종교적 시간, 자연적 시간, 경제적 시간 등의 차이가 사회 통합과 맺는 상호관계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시간은 세시를 통해서 리듬화되고 이는 객관화되면서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시 그 자체에 대한 연구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문화사회학에서는 연구하지 않았지만 하나의 시간 상징으로서 세시를 이해했고, 문화적 연계가 사회적 연계를 가져온다는 점, 즉 상징적 체계화가 사회통합에 가지는 중요성을 연구하였다. 아울러 세시의례 혹은 세시풍속이 사회적 통합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사람들의 심리적 일체가 세시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도 효과적으로 연구한 바가 있다.

세시풍속은 한국 민속학계의 중요한 연구대상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축적하였고, 다면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북한민속학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북한민속학이 성립된 이후에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민속명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러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역사연구에만 치중하였을 뿐,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대한 사회과학적이고 문화적 연구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로 등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학계의 연구시각으로 인해서, 북한 정권 성립 이후의 세시풍속의 변화는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꾸고, 남한 민속학계가 북한 민속에 대해 연구하지 못해 온 점 등을 극복하는 것이, 북한 민속세계 일반에 대한 연구 진작이라는 목표와 함께 본보고서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본보고서는 현장연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헌 중심으로 자료정리를 우선하고 이를 정리하는 데에 일차적 목표를 두었다. 노동신문 등을 비롯한 공식 신문매체나 천리마 등의 잡지에 나온 세시풍속과 관련된 기사나 논문 등을 정리하였고, 이를 세시풍속 별로 정리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중점을 둔 세시풍속은 설이나 정월대보름, 청명, 한식, 단오, 추석 등의 ‘민속명절’이다.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 북한정권수립일, 북한노동당창건일 등의 ‘사회주의명절’은 본보고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추후에 사회주의 명절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여 일본 등의 해외 조사도 수행하지 못한 점이 본보고서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 2. 연구 시각

세시 연구는 일상적 생활방식의 시간적 리듬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는데, 일본과 중국의 연구경향과 비교해 볼 때, 유독 한국에서 중시되고 있는 연구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세시 연구는 여러 민속학적 연구대상의 하나 정도로 간주되지만 한국에서는 민속학의 대표 영역의 하나로 중시되었다. 『한국민속학개설』의 경우에 총 8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의 한 장이 세시풍속이 된다.<sup>4)</sup> 『일본민속학개설』의 경우에 25개 장에서 1장을 차지할 뿐이고, <sup>5)</sup>야나기타 쿠니오의 『일본민속학입문』에서는 전체 28개 장의 하나일 뿐이다.<sup>6)</sup>

4) 이두현·장주근·이광규, 『한국민속학개설』, 일조각, 2004.

5) 福田アジヲ·宮田登, 『일본민속학새론』, 길천흥문관, 2005.

6) 柳田國男·關敬吾, 『일본민속학입문』, 명저출판, 1998.

따라서 한국민속학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일본민속학의 영향으로 한국 민속학에서 세시를 중요시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민속학에서 세시를 중시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찾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면 실학자들이 세시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예를 들어 유득공의 『경도잡지』와 김매순의 『열양세시기』, 홍석모의 『동국세시기』가 18세기와 19세기에 출간되었는데, 이 세 권의 세시기는 1911년 광문회에서 최남선이 펴낸 바가 있고, 홍석모의 『동국세시기』는 1969년 을유문화사에서 이석호에 의해서 번역된 바 있다.<sup>7)</sup>

일제강점기에 총독부는 1931년에 『조선의 연중행사』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가 있고,<sup>8)</sup> 최남선에 의해서도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송석하와 손진태도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일제 강점기에 세시풍속에 관해서 작성된 논문 수가 80여 편에 달하며, 해방 후에도 최상수 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논문이 작성된 것을 볼 수 있다.<sup>9)</sup>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펴낸 보고서의 내용이 빈약하고 기존 논의의 정리에서 많이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총독부 보고서가 세시연구에 미친 영향보다는 실학자 연구를 잇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민속학자들의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김택규는 1985년에 『한국농경세시의 연구』라는 저서를 출간하여 세시에 대한 관심을 현재에까지 연장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sup>10)</sup> 정승모는 2009년에 『동국세시기』를 새롭게 번역하여 출판하였고, 2012년에 『한국의 농업세시』라는 책을 간행하여 세시에 대한 현재적 관심을 체계화하였다.<sup>11)</sup> 강정원은 세시의 쇠퇴나 일제 강점기의 단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세시에 대한 관심을 현재까지 연장하였고, 세시를 경제나 정치, 사회조직, 시간관 등과 연결시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sup>12)</sup>

북한의 경우에 세시에 대해서는 한국만큼 큰 비중을 부여하지 않는다. 김일성대학 교재로 사용되는 조선민속학에서 세시가 12개장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의 민속이나 여타 연구에서도 이 정도 비중으로 다루어진다. 북한 민속학계에서 세시는 한국만큼 중시되지는 않지만, 일본이나 서구 민속학계보다는 더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다.

세시풍속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역사적 연구였고, 사회나 문화, 경제, 정치와 연관시킨 연구나 현재 시점을 중시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역사적 연구의 경우에는 전파론과 기원론에 기반한 연구가 대다수를 형성하는데, 대표적인 연구로 김택규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한반도 내에서의 문화의 층과 영역을 설정하고 역사적 흐름

7) 홍석모 저, 이석호 역, 『동국세시기(외)』, 을유문화사, 1969.

8) 조선총독부, 『朝鮮の年中行事』, 1931.

9) 인권한, 『한국민속학사』, 열화당, 1997, 268-273쪽.

10)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11) 홍석모 저, 정승모 역, 『동국세시기』, 풀빛, 2009; 정승모, 『한국의 농업세시』, 일조각, 2012.

12) 강정원, 「일제강점기 단오의 변화: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7, 한국민속학회, 2008; 강정원, 「마을공동체 세시의 쇠퇴: 서울 인근의 한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2(2), 한국문화인류학회, 2009.

에 따라 변화를 검토하였으며, 문화를 요소화한 점 등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예를 들어서 세시라는 문화복합은 놀이와 종교적 의례, 음식, 복식, 공간, 시간에 대한 관념 등으로 구성되는데, 놀이의 변화와 분포 등을 여타 요소와 분리시키고 이 요소만을 시간 축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북한 민속학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민속명절에서 노는 민속놀이의 기원이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문화사학파적 연구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문화와 경제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 단계와 문화를 연계시키는 방식을 세시연구에 적용하는 것이다. 경제 단계에 따라 문화도 단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연구 관점에 따라 세시풍속을 유형화하고 맥락화하였다. 한국 농업기술의 발달과 세시의 성쇠를 연결시켰고, 문화권을 구분하였다. 아울러 내가 중시하는 것은 기층문화라는 개념인데, 전승력을 가지고 있는 문화이지만 의도적 선택과는 거리가 있는 문화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사회집단들의 갈등을 세시연구에 끌어들이지 않고, 좀더 거시적인 조망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세시연구는 막시즘에 기반한 정치경제학적 연구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막시즘에 대한 언급만 이루어지는 편이다. 계급에 따른 문화적 차이는 인정하지만 계급 갈등과 세시의 변동을 구체적으로 연계시켜서 연구한 실증 연구는 드물다. 막시즘적 연구는 여러 학문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세시 연구에 전격적으로 도입되어서 실증하는 단계까지 가지는 못하였다.

정치경제학적이면서도 구조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서 세시와 사회, 문화 등과 연결시키는 연구는 남한에서 2000년대 이후에나 이루어졌다. 강정원과 권혁희,<sup>13)</sup> 안주영<sup>14)</sup>이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강정원은 세시에 존재하는 체계와 구조에 관심을 두고 이를 이론화하고자 하였다. 구조주의적 관점과 기능주의적 관점, 행위자 관점의 절충 혹은 통합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권혁희에 의해서 문화정치학적 관점에서 세시의 변화를 고찰하는 시도가 행해지기도 했다. 안주영은 세시를 국가정책과 사회변동과 연관시켜서 연구하였는데, 국가를 중요한 주체로 설정하면서 세시연구를 진일보시켰다.

### 3. 북한 민속명절의 변화

이 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주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본보고서의 시각을 반영하여 분석을 시도해 보겠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명절이라는 범주에 사회주의 의식과 전통 세시를 함께 포함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했고 이는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이라는 문화

13) 권혁희, 「20세기 북한지역 단오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고찰: 식민지 시기 단오의 양상과 6.25 이후 사회주의적 변용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62, 한국민속학회, 2015, 147~177쪽.

14) 안주영, 「20세기 역법의 변화와 전통세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 이들을 각각 사회주의 명절과 민속 명절이라고 유형화시켰다.

북한 전통세시에서 특별히 단오의 변화는 매우 극적이며, 이를 통해서 북한의 민속문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북한은 김택규에 의해서 단오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단오 행사가 활발했고, 서울에서 평양으로 단오 관광을 갈 정도였기 때문에 단오는 북한 세시 연구에 중요한 사례가 된다. 단오는 극심한 전쟁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전승되다가 1967년 김일성의 봉건잔재일소 지시에 따라 금지되었다. 하지만 1989년에 다시 전통명절로 지정되었다가 2005년에 재금지되었는데,<sup>15)</sup> 이러한 단오의 운명은 북한에서 단오가 가지는 비중을 보여 준다.

북한 민속학자들의 경우에 1960년대 초중반까지는 현지조사를 통한 연구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가 되면 거의 역사적인 연구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민속학자 황철산의 경우 단오에서 주로 행해지는 그네뛰기나 씨름을 통해서 단오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sup>16)</sup> 『조선의 민속전통』에서도 단오를 북한의 대표적인 세시로 제시하면서 1990년대에 들어서서 새롭게 북한 전역에서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고만 언급하고 있다.<sup>17)</sup> 특히 모내기 전에 행해진 단오가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모내기 이후에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은 단오의 변화를 잘 보여 주는 조사연구 결과이다.

1948년도에 북한 정권이 성립된 이후, 시간과 연관된 세시민속 정책을 체계화한 것은 1967년이라고 할 수 있다. 봉건 국가나 현대 국가 모두 기본적으로 시간과 세시에 관한 이상 체계를 제시하는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북한은 민속 정책에서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이 시기가 되면 봉건성을 담보한다고 간주되는 음력 기반 세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민속차원에서 지속된다.

1980년대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사회주의 붕괴에 대응하여 제시되는데, 80년대 후반이 되면 음력설과 단오, 한식, 대보름, 추석 등의 기본 체계가 공식 휴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사회주의 명절과 민속 명절이 결합되어서 이상형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있다. 1990년대 이후에 단오와 한식이 폐지되고, 대보름이 지정되는 등의 혼선이 빚어지는데, 이는 체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대기근이라는 참사와도 연결된다고 생각된다.

북한은 농업 위주의 세시가 봉건성을 강하게 지니는 탓에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에 결부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초창기부터 사회주의 명절 위주로 체계화하고자 했다. 황철산은 단오에 주로 행해지던 그네뛰기를 설명하면서 오늘날(1960년대)에는 해방기념일과 노동절, 정권수립일 등 명절에 시행되고 있다고 쓰고 있는데,<sup>18)</sup> 이는 1950년대에 이미 단오가 도시에서 행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단오놀이를 사회주의 명절에 결합시키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을

15) 권혁희, 앞의 논문.

16) 황철산, 앞의 글, 563-567쪽. 원 출처는 『문화유산』 1962년 5호.

17) 조선의 민속전통 편찬위원회 편, 『조선의 민속전통』 5,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18) 황철산, 「그네뛰기」, 주장현 편, 앞의 책. 원 출처는 『조선의 민속놀이』다.

말해 준다.

북한 국가가 제시한 사회주의 7대 명절은 광명성절(2월 16일)과 태양절(4월 15일), 정권 수립일(9월 9일), 당창건일(10월 10일), 국제노동자절(5월 1일), 해방기념일(8월 15일), 헌법절(12월 24일)이다. 사회주의 명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서민들에게 다가갔고, 민속세계의 사람(주로 서민)들도 강요에 의해서 이에 준해서 생활의 시간 리듬을 정하고자 노력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앞서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세시 정책에 변화가 생긴다. 1967년에 금지시켰던 민속명절을 다시금 공휴일로 지정한 것인데, 추석은 1988년에, 음력설과 한식, 단오는 1989년에 지정되었다. 하지만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단오는 2005년에 다시 폐지되었고, 한식은 청명으로 대체되었으며, 2000년대에 정월대보름이 단오 대신에 지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혼란스러운 세시 정책은 사회주의 북한이 민속에 대해서 가지는 양면적인 가치 부여방식과 연계가 되어 있다. 민속이 민족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적이어야 한다는 정책적 이상으로 인해서 민속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가지지 못한 점에서도 정책 혼란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북한 국가는 국가(사회주의) 명절과 민속 명절이 하나로 체계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서도 아직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지만, 북한 민속명절의 지역성은 상당부분 사라졌다고 생각된다. 세밀한 차원에서는 지역성이 관찰되고 있지만, 세시의 연계구조에서는 북한 전역에서 일관된 표준질서체계가 정립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 II. 북한의 ‘국가명절(사회주의 명절)’과 ‘민속명절’의 휴무일 변화

안주영(서울대)

북한에서 명절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날을 설정하여 경축하는 기념일인 ‘사회주의 명절(국가명절)’, 음력으로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며 민속적으로 즐기는 날인 ‘민속명절’로 구분할 수 있다.<sup>19)</sup>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생일을 비롯하여 정권 창건일, 당창건일 등 주요 국경일, 기념일을 포함한 사회주의 명절과 민속명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의 달력에 표기된 법정 공휴일은 양력설(양 1.1)·설명절(음 1.1)·정월대보름(음 1.15)·광명성절(2.16)·국제부녀절(3.8)·태양절(4.15)·노동절(5.1)·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7.27)·조국해방의 날(8.15)·추석(음 8.1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9.9)·조선로동당 창건일(10.10)·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12.27) 등이다. 또한 김일성·김정일 생일을 제외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기념일과 민속명절에는 휴무하되 휴무일 전후 일요일에 정상 근무토록 하는 ‘대휴(代休)’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정공휴일 이외에도 농업근로자절(3. 5)·어부절(3. 22)·철도절(5. 11)·탄부절(7. 7) 등 기념일에는 해당부문 노동자들이 1일 휴무하고 있다.<sup>20)</sup>

북한의 사회주의명절 중 김일성, 김정일 생일은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겨진다. 김일성 생일은 50회 생일인 1962년 4월 15일부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고, 56회 생일인 1968년부터는 정식 명절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1974년 4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북한 민족 최대의 명절로 공식 지정되었다.<sup>21)</sup> 1997년 이전까지 김일성 생일은 ‘4.15절’로 지정되었는데, 1997년 7월, 김일성 3년상을 마친 후 주체연호를 채택하며 ‘태양절’로 격상되어 명칭이 변경되었다.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휴무일이다.

김정일 생일은 33회 생일인 1975년 2월 16일부터 임시공휴일로, 1976년에 정식 명절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김정일의 생전에는 ‘2월절’(二月節)로 제정되었다. 1986

19) 주강현, 「北韓 名節風習의 變遷」, 『한국민속학』 3권 3호, 1994, 161쪽.

20) 「북한의 공휴일제도」,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사전연구소. (검색일: 2020.11.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7448&cid=42140&categoryId=42140>

21) 「태양절」,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검색일: 2020.12.1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8930&cid=43667&categoryId=43667>

「명절」, 『북한 지식 사전』,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246-249쪽.

년부터는 생일 다음날까지 공휴일로 연장되었고, 1995년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로 격상되었다.<sup>22)</sup> 이 명절은 김정일의 사후(2011), 2012년에 ‘광명성절’(光明星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명절인 김일성, 김정일 생일을 중심으로 국가명절을 내세웠던 반면, 음력설을 쇠는 풍습을 ‘봉건잔재’로 규정하여 1946년에 양력설(신정)을 공식적인 설로 선포했고, 한국전쟁 후인 1953년부터 음력설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후 북한에서는 1972년에 추석 성묘를 허용하기 시작하였고, 1988년부터 추석을, 1989년부터 음력설, 단오, 한식을, 2003년부터 정월대보름을 휴무일로 지정하였고, 이로써 북한에서 음력의 민속명절은 부활되었다. 또한 1991년에 한식이, 2005년에 단오가 공식적인 휴일에서 제외된 반면, 2012년부터 4월 4일을 청명으로 지정하여 새로운 공휴일이 지정되는 변화가 있었다.

2020년(주체 109) 북한 달력 <백두산>에 표기된 민속 명절과 국가 명절(사회주의 명절)은 다음과 같다.

<표 1> 2020년(주체 109) 북한 달력 <백두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국문출판사<sup>23)</sup>

월	민속 명절(공휴일)	기타 명절 및 기념일	
		공휴일·일요일	평일
1월	양력설(1일) 설명절(25일)		
2월	정월대보름(8일)	건군절(8일) 광명성절(16일, 일요일)	
3월		국제부녀절(8일, 일요일)	식수절(2일)
4월	청명(4일)	태양절(1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25일)
5월		노동절(1일)	
6월		조선소년단창립절(6일)	국제아동절(1일)
7월		해양의 날(12일, 일요일)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27일)	전략군절(3일)
8월		조국해방의 날(15일) 선군절(25일)	해군절·청년절(28일)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일(9일)	
10월	추석(한가위·민속명 절)(1일)	조선로동당 창건일(10일) 체육절(11일, 일요일)	
11월		어머니날(16일) 항공절(29일, 일요일)	
1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 주의헌법절(27일, 일요일)	

22) 「명절」, 『북한 지식 사전』,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246-249쪽.

23) 달력의 각 월에 기재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표기하였다.

북한의 달력에서 나타나는 국가명절(사회주의 명절)과 민속명절은 1950년대 이후 변동되어 왔다. 위의 <표 1>을 보면, 현재 북한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민속명절은 설(양력설·음력설), 정월대보름, 청명(한식), 추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달력에서 음력설은 ‘설명절’로, 음력 추석은 ‘한가위·민속명절’로 표기되어 있어 북한의 2대 민속명절로서의 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또한 2005년 이후 단오가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에는 달력에 단오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한식 대신 ‘청명’이 민속명절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방후 북한의 민속명절 중 끊임없이 변용을 거치면서도 지속되어 온 주요한 명절은 설(양력설, 음력설), 정월대보름, 청명, 추석이다. 설, 한식, 단오, 추석의 4대 명절 중 단오는 2005년 이후 제외된 반면, 한식은 청명으로 대체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으며, 양력설과 음력설을 포함한 설명절과 추석명절은 북한의 가장 주요한 2대 명절로서 지속·전승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1세기에 들어 음력의 정월대보름까지 민속명절의 휴무일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에서 음력 정월 세시의 위상과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Ⅲ. 북한의 민속명절 정책과 근대 국가명절로서 부상한 양력설

안주영(서울대)

#### 1. 해방후 김일성의 민족문화유산계승정책과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의 민속 명절로서 부상한 양력설

북한에서 세시풍속은 ‘민속명절’로 통용된다. 북한에서는 민속명절의 역사적 연원을 고대의 고조선과 부여, 진국의 주민들이 10월, 12월, 5월에 하늘을 숭배하는 의식을 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대에 진행한 5월과 10월의 행사들은 삼국시대 이후 기록들에 보이는 5월 단오와 10월 상달맞이 명절의 전신이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의 『동국세시기』, 『경도잡지』, 『열양세시기』를 비롯한 기록들을 통해 설, 정월대보름, 2월 초하루, 3월 삼짇날, 4월 파일(8일),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백종(백중 15일), 8월 추석, 9월 중구, 11월 동지 등을 기본적인 민속명절로 쇠었다고 설명한다. 북한에서는 이것이 중세 시대부터 있었던 명절 풍속이 그대로 계승되었다고 본다. 1896년, 조선에 그레고리력이 도입된 이후, 대한제국기에 국가적으로 양력이 채용되었으나 음력의 명절들은 기본적인 민속명절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인하여 음력이 금지되며 민속명절이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근대 말기부터는 “일부 명절만을 잊지 않고 쇠는 정도가 되고 말았다”고 보고 있다.<sup>24)</sup>

1945년 해방후 북한 사회에서는 계몽주의, 미신 타파, 봉건 잔재 타파 등의 정책에 따라 음력설을 포함한 전통 민속명절은 부정되거나 비판받아왔다. 일제강점기 역서(달력)에서 표기되지 못한 음력설은 해방후 북한사회에서도 역서에서 제외되어 금지된 명절이 되어버렸다.

…미신행위를 없애기 위한 계몽사업을 대상의 수준과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수준은 각이하며 미신에 대한 관념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속에 들어가 미신행위를 없애기 위한 해설사업을 하고 강연을 하여도 그들의 수준과 연령, 직업 같은 것을 고려하여 내용있게 하면서도 대중이 알아들을수 있는 쉬운 말로 하여야 합니다.

미신행위를 없애기 위한 계몽사업은 군중문화사업의 형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24)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편, 『조선의 민속전통: 민속놀이와 명절 (하)』, 조선의 민속전통 편찬위원회, 대산출판사, 2000, 197-204쪽.

…미신행위를 없애기 위한 계몽사업을 우리 인민들의 실생활과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지난날 농민들은 가물이 들어 곡식이 말라죽게 되면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소를 잡아놓고 기우제를 지냈지만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망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관개공사를 한 농촌들에서는 기우제를 지내지 않아도 농사를 잘 짓고있습니다. 인민들의 생활과 결부된 생생한 자료를 가지고 미신행위의 허황성을 폭로하면 사람들을 계몽하고 각성시키는데서 효과가 클 것입니다.

미신을 타파하기 위한 계몽사업에 선전원들과 문화인들을 광범히 동원하여 그들이 도시와 농촌, 가두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계몽선전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미신을 타파한다고 하면서 미신행위를 강압적방법으로 없애려하거나 미신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는것과 같은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sup>25)</sup>

김일성은 음력설을 쇠는 세시풍속을 ‘봉건 잔재’로 규정한 반면, 1946년에 양력설(신정)을 공식적인 설로 선포하였다. 1953년 6·25전쟁 후, 북한에서 음력설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고,<sup>26)</sup> 1967년 5월 김일성이 “봉건 잔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교시를 내림에 따라<sup>27)</sup> 음력설을 비롯한 전통 민속명절은 북한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명절이 되었다. 조선의 전통 세시풍속 문화에 포함되어 있는 속신적인 문화, 조상 차례 등을 미신이나 봉건적 유산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음력설은 1967년에 폐지되었다.

반면, 북한에서 양력설은 오히려 새로운 민속명절로서 더욱 부각되었는데, 이는 전통 민속 명절의 문화 중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문화를 가려내어 새로운 풍습으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의 민속 명절로서 창출해내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우리 나라 풍속 유산의 하나인 과거 명절 그 자체는 계승할 가치가 없다. 그렇다고 하여 과거 명절 행사를 모조리 내버리는 경향으로 나간다면 민족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것은 매개 명절 행사 안에 인민적이며 진보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간 명절 행사에서 뒤떨어지고 반동적인 것과 함께 얽혀 있는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것을 가려내어 이를 오늘의 근로자들의 구미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조건하에서 종래의 낡은 사회 경제 제도에서 생긴 명절들은 그 존재의 의의를 잃게 되는데, 수천년 동안 풍습으로 지켜온 과거의 명절들은 단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새로운 풍습으로 바뀌게 된다.…<sup>28)</sup>

25) 김일성, 「미신행위를 없애기 위한 계몽사업을 강화하자」,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및 내각 문화선전성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49년 1월 8일, 《김일성전집》 제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27-28쪽.

26) 「민속명절」, 『북한 지식 사전』,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246쪽.

27) 김응길, 「북한의 관혼상제와 세시풍속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 48쪽.

28) 엄영찬, 「18-19세기 우리나라의 민간 명절행사」, 『고고민속론문집』, 1973년 5집. (김응길, 위의 논문, 48쪽 재인용)

이후 1989년에 김정일이 우리민족제일주의에 따라 음력설을 민속 명절로 재규정하기 전까지 북한에서는 새해의 첫 민속명절로서 양력설을 부각시켜 왔으며, 대중들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양력설을 쇠는 문화를 지속해 왔다.

우리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것과 함께 지난날의 것을 다 좋게만 보고 덮어놓고 되살리려는 복고주의도 경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문화유산을 언제나 계급적립장에서 대하여야 하며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평가하여야 합니다. 지난날의 문화유산 가운데는 진보적인 것도 있고 반동적인 것도 있으며 지어는 역사를 외곡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혁명에 리로운 것은 살리고 해로운 것은 버려야 합니다.<sup>29)</sup>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김일성의 민족문화유산계승정책의 과업은 사회주의혁명의 이익에 부합한 것은 유지시키고 그 외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배격하는 것이었다. 북한에서 민속 명절 중 국가의 사회주의 정책에 부합되는 명절은 근대의 양력에 근거한 양력설이었으며, 일 년의 시작을 의미하는 양력설날은 김일성의 <신년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친애하는 동포형제자매들!

195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조국의 통일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전국 동포들에게 새해의 영광과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매국역도때문에 비록 조국을 완전히 통일하는 위업을 완수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모든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민주력량을 총결기시킴으로써 리승만매국역도를 전체 조선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시켰으며 우리 조국 북반부에 강력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기지를 축성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력사적 과업을 성과있게 수행하였습니다.…(중략)…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해동안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결기하여 우리 조국 북반부를 강력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기지로, 민주력량의 승리를 보장하는 새 힘의 원천지로 만들기 위하여 분투한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로동자, 농민, 사무원, 인테리, 기업가, 상인, 수공업자 등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바입니다.…<sup>30)</sup>

29) 김정일, 「민족문화유산을 옳은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바로 평가 처리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0년 3월 4일, 《김정일선집》(증보판) 제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295쪽.

30) 김일성, 「1950년을 맞이하여 공화국 전체 인민들에게 보낸 신년사: 1950년 1월 1일」, 《김일성전집》제1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1-2쪽.

매년 주석이 발표하는 신년사의 연설 내용은 양력설에 대한 기사 내용과도 부합된다. 새해 첫날의 북한 풍경은 설날 명절 풍속에 대한 일상적인 내용보다는 생산 과제 달성, 연간계획 달성 등 사회주의 국가 정책에 부합되는 교시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근대 역서인 양력의 첫 날 발표하는 신년사는 북한에서 그 해의 국가정책을 인민대중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며, 근대 양력의 시간에 근거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명절이자 사회주의 국가명절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양력설에 부여된 ‘진보적인 민속문화’라는 이미지는 다른 한편 음력설에 대해 부정하며 전통 민속명절 문화에 대해 언론에서 철저히 배격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새해 첫아침을 맞는 자동연탄공장 모범대탄부 려호필 동무의 가정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이 식탁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행복과 희망에 벅찼다. 려호필 동무는 지난해에 있어 자기의 개인년간계획을 xx 7월28일에 완수하였으며 연말까지에 177%로 연간계획을 초과실행하였다. 행복 속에서 맞는 새해의 첫 아침을 가족들과 같이 단란하는 그는 지난해에 쟁취한 투쟁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새해의 새롭고 높은 승리를 위하여 헌신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인민정권의 고마운 시책! 고상한 로력! 이것만이 오직 그의 행복과 영애를 증진시켜준다. …<sup>31)</sup>

새해에 승리와 영광이 있기를! 새 년도 생산 과제를 초과 완수합시다! 굳게 손길을 맞잡고 새 결의를 다지는 서로의 눈길에는 굳은 힘이 빛난다. …직장에서 연간 계획을 초과 완수케 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전 숙자 동무네 집에서든 즐거운 설맛이가 벌어졌다. -영광을 당과 수령께! -조국과 인민의 무궁한 행복을 위하여! 승리자들은 새해의 축배를 높이 들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더욱 헌신 노력할 굳은 결의를 다진다. 한결 찬란한 새해의 아침 햇살이 비치는 길목마다에서는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기꺼운 웃음 소리가 함뿍 피여 난다.<sup>32)</sup>

아침 8시 국가에서 내여 준 외투를 입고 붉은 넥타이에 새 옷차림을 한 채 8 고급 중학교 초급반 학생들이 앞을 다투며 교사로 모여 들었다. 그들은 교원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드린 후 며칠 전부터 준비하였고 기다려 오던 명절맞이 행사에 착수하였다. 350여 명의 초급반 학생들이 소년단 반별로 서구역 관내 17개 동을 방문하여 인민군 후방 가족과 애국렬사 가족들에게 세배를 드린 다음 석탄에 섞을 흙을 파 주는 등 가정상 방조를 드리고 돌아 왔다. 교사 내 여러 곳에서는 어제 율까 모임에서 밤새껏 춘 춤이건만 그래도 성이 차지 않은 듯 인민반 학생들의 군중 무도가 벌어졌다. 지난해 그들의 부모들과 형들이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켰듯이 당과 정부의 따사로운 품안에서 무한히 행복하고 자유롭게 자라나는 이곳 학생들도 학습에서 보다 높은 성적을 쟁취하였으며 토끼와 피마잠 사육, 폐품 회수와 아까시아씨 따기 등 꼬마 5개년 계획의 한 해 과제를 훌륭히 해냈다. 다채로운 행사들 중 신년 경축 교내 씨클 경연대회는 어린이들을 매우 즐겁게 하였다. 고급반 3학년

31) 「새해를 맞는 모범로동자 려호필동무의 단란한 가정」, 『로동신문』, 1950.1.2.

32) 「즐거운 설날」, 『로동신문』, 1956.1.1.

5반과 2학년 6반에서 준비한 소품 <보천보 전투>와 <수령님의 령도 따라>는 김일성 원수와 그의 령도를 받들고 불굴의 혁명 투쟁을 전개하여 온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애국적 혁명 전통을 본받으며 씩씩하고 보람찬 사회주의 역군이 되기를 원하는 어린이들의 지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밤 늦도록 진행된 경연대회는 새해에 모두가 우등, 최우등을 쟁취하여 3만 마리 이상의 토끼들을 기르는 등 꼬마 5개년 계획을 꼭 해내려는 결의에 찬 어린이들을 끝없이 기쁘게만 하였다.<sup>33)</sup>

위의 『로동신문』 기사를 보면, 1950-1960년대에 북한 사회에서 새해 첫날인 양력 설을 맞이하는 기쁨은 가정 내에서 투쟁의 성과, 연간계획의 달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는 공산주의 애국적 혁명 전통, 사회주의 역군, 5개년 계획의 과제 달성 등과 어린이들의 명절 놀이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었으며, 직장에서는 연간계획 초과 완수, 조국의 번영을 위한 헌신과 결부되어 있었다. 당시 신문이나 잡지 기사에서는 양력설에 가족이나 이웃에게 세배를 하고, 어린이들이 명절 놀이를 하는 등의 세시풍속 문화가 사회주의 국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새해의 각오와 다짐, 계획과 연계되어 있었고, 그 외 조상에게 명절 차례를 지내는 등의 설날 민속명절 문화에 대해서는 보도되지 않았다.

이 나라 방방곡곡 도시와 농촌, 공장과 광산 마을 이르는 곳마다 설맞이 기쁨이 넘쳐 흐른다. 완충의 해에 또 하나의 빛나는 업적을 쌓아 올린 우리의 자랑스런 천리마 기수들은 승리자의 도도한 긍지 높이 새 결의를 다지며 7개년 계획의 첫해를 맞는다. 금년도 5.1절까지 제 1계단 공사를 끝낼 결의에 충만되어 있는 비날론 공장 건설자들도, 새해에 승용차 5백 대를 포함하여 5천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것을 다짐한 덕천 자동차 공장 로동자들도 그리고 100만 톤의 알곡 증산을 위하여 저마다 께기한 우리나라 농민들도… 모두가 다 승리의 신심 드높이 춤과 노래로 이 뜻깊은 명절을 마음껏 즐긴다. 민주 수도 평양의 근로자들도 다함 없는 긍지와 환희에 휩싸여 있다. 설맞이 일색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거리거리에 새해를 장식하는 꽃초롱이 바람 곁에 춤을 추고 상점 매대마다 설맞이 상품을 사는 사람들로 흥성거린다. 시내 모든 공장 학교, 직장들마다 신년 축하 모임이 벌어졌다. 평양 전기 공장 로동자들도 공장 구락부에서 축하 모임을 가졌다. 다채로운 프로를 준비해 온 씨클원들이 무대 위에 나타났다. 합창과 중창, 재담과 춤… 관중들의 요란한 박수 갈채에 씨클원들은 더욱 흥이 났다. 전면적 기술 혁신을 내용으로 한 재담 <<기술이 좋다>>, 조국 통일을 노래한 합창시 <<우리는 자랑한다>> 이렇게 프로는 련이어 바뀐다. … 극장, 영화관들도 명절 옷차림을 한 시민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 중앙 각 예술 단체들에서는 다채로운 프로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 중앙 각 예술 단체들에서는 다채로운 프로로 신춘 대공연을 하고 있다.…<sup>34)</sup>

새해의 첫아침 해빛이 락원땅에 찬연한 빛을 뿌린다. 혁명 가요의 전투적 선율이 온 공장 구내를 울리는데 해'빛은 명절놀이에 나선 이 곳 천리마 기수들의 얼굴에 밝은 빛을 담

33) 「어린이들의 명절놀이」, 『로동신문』, 1959.1.2.

34) 「다채로운 설맞이」, 『로동신문』, 1961.1.1.

뿃 안겨 준다. 이 아침, 공장 내외의 민주선전실들이며 구락부와 운동장, 도처에서는 즐거운 명절놀이가 벌어졌다. 나이 많은 노동자들은 구락부 안에서 장기에 흥이 올랐고 구기 애호가들은 탁구장에 모여 직장 대항전을 벌였다. 혈기에 찬 젊은 축들은 운동장파빙장상에 몰렸다. 공구 직장의 날렵한 녀성 기대공들은 널뛰기에 신바람이 났다. 온 락원땅이 하나의 단란한 가정을 방불케 한다. 그중에서도 빙상 경기장이 더욱 흥성거렸다. 관중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빙상장에 함성이 오르고 대형 조기 직장 선수와 주x 직장 선수가 400미터 속도 경기에서 승부를 다투었다.…<sup>35)</sup>

줄다리기: 정초놀이를 총결짓는 것으로 <줄다리기>가 있다. <줄다리기>는 집체적이며 군중적이 놀이로서 참가 범위는 부락 대항으로부터 군 대항에까지 이른다. 줄터에서는 농기가 나뭇기며 농악이 호화로이 연주되는 가운데 바다를 이룬 사람들은 <에! 에!> 우렁찬 쇠와 함께 그 위세로 산야를 떨친다. <줄다리기>는 원썩와의 싸움에서 용감하여 필승의 기백과 민족이 가지는 고상한 애국주의와 대중적 영웅성을 키워준 의의 깊은 놀이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놀이에서 로력의 업적을 자랑하고 앞날의 포부와 그 실천을 다짐하였다. 우리는 이 놀이를 통하여 조상들의 고상하고도 슬기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다.<sup>36)</sup>

위의 기사를 보면, 1960년대 북한 사회에서 양력설은 근대의 달력체계인 양력에 근거한 새해의 첫 날로서 도시와 농촌, 공장과 광산 마을 등 전국에서 생산 증대, 풍요를 기원하는 근대의 가장 중요한 민속명절로 부각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의 공장과 학교, 직장, 백화점, 극장, 영화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양력으로 새해의 첫 날을 기념하며 널뛰기, 줄다리기 등의 명절 놀이를 하거나 소비를 하고, 여가를 즐기며 양력설을 쇠는 세시풍속 문화가 점차 보편화되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들의 결속과 단결을 위해 새로운 민속명절로서의 '양력설'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즉, 기존의 음력 달력에 의한 전통 민속명절인 '음력설'을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내세우는 양력 달력에 의한 민속명절로서의 '양력설'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기존의 전통과 관습을 부정하고 새로운 전통과 관습으로서의 국가 명절을 창출하고자 한 것이었다. 국가의 양력 시간체제에서 새해의 첫 날인 양력설날, 국가 최고 지도자가 연설하는 신년사는 북한 주민들을 북한의 사회체제로서 통합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작용하였고, 이로써 양력설날은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위한 사회주의 명절이자 민속명절이라는 이중적인 특성을 갖는 독특한 명절이 되어갔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되고 김일성이 주석으로 추대되어 1974년 당의 최고 강령으로서 주체사상화가 제창된 이후, 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한 전당의 주체사상화, 당 생활총화의 전략적 과제는 북한의 양력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1975년 11월에는 1960년대의 천리마운동을 심화, 발전시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35)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붉은 기계공들의 단란한 설맞이: 천리마 락원 기계 공장 지구에서」, 『로동신문』, 1966.1.2.

36) 「설놀이」, 『조선신보』, 1962.1.1.

동이 발기되었는데, 이는 대중적인 사상·기술·문화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으로 지속되었다. 새해 첫 날에 발표되는 김일성의 신년사를 통해 이같은 혁명 과제의 수행이 최우선적인 과제로 제시됨으로써 양력설은 북한의 태양절, 광명성절, 공화국창건일, 당창건일과 더불어 국가의 정책적 기초를 담는 사회주의 명절의 의미도 함께 내포된 근대 민속명절로서 유지되고 있었다.

…우리는 며칠전에 진행된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였으며 혁명발전의 현실에 맞게 국가기관체계를 개편하고 공화국의 새 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노동자, 농민의 혁명주권을 일층 강화하였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전체 선거자들의 한결 같은 지지를 받고 인민의 대표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동지들을 비롯하여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 참가하였던 전체 동지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우리는 1972년에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해에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긴장된 투쟁을 벌였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습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이미 6개년계획 말 생산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으며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6개년계획의 3년분과제를 넘쳐 수행하였습니다.…<sup>37)</sup>

매해 양력 1월 1일에 하는 김일성의 신년사는 지난 한 해동안 이룩한 업적에 대해 축하하고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올해의 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양력설 관련 기사들은 이러한 신년사의 내용과 부합되는 내용을 서두에서 강조하며 수도 평양의 백화점, 방직공장 등의 설명절 분위기를 전하고 있었다.

거리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라고 쓴 글발들과 공공기관들, 공장들, 상점들의 정문에는 <<새해를 축하합니다>>, <<경축 1973년>>이라고 쓴 축등들이 걸려있다. 상점에 들려 명절맛이를 준비하는 사람들, 동무들끼리 혹은 가족들끼리 영화관, 극장으로 가는 사람들, 친척을 방문하는 사람들, 사람들마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하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시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수령이신 김일성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한 크나큰 감격과 영광이 끊어번지고 있는 명절전야의 혁명의 수도 평양은 참으로 명랑하며 혁명적 랑만이 넘쳐흐르고 있다. …평양견방직공장에 들리니 거기서도 명절분위기로 흥성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거기서 정방직장 정방공 최춘옥동무를 만났는데 그는 설명절을 즐겁게 맞기 위해 자기 공장에서는 혁명적인 영화도 보고 다채로운 예술소조공연도 준비했다고 자랑스러이 말하였다. 그들은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오늘의 기쁨을 안고 그이의 은덕

37) 「신년사: 1973년 1월 1일」, 《김일성전집》 제5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3, 249-250쪽.

에 보답하기 위하여 새해에 더 큰 혁신을 일으킬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이 말을 주고 받고 웃으며 드나드는 평양제1백화점문으로 들어섰다. 우리가 어린이놀이감대앞에 이르렀을 때 외손자에게 주려고 놀이감들을 사든 강원도 농촌마을에서 아들네 집에 왔다는 한 할머니는 줄곧 밝은 웃음을 담고 <<참 좋은 세상이지, 옛날에는 설명절이 와도 아이들에게 죽 한술 배불리 먹이지 못해 가슴쥐여뜯던 우리들이 아니었수, 그런데 오늘은 아이들에게 이처럼 훌륭한 놀이감선물까지 사다주게 되었으니 이게 다 우리 수령님 덕분이지요.>> 명절준비로 흥성거리는 수도의 거리, 기쁨도 크고 결의도 새로운 근로자들의 물결, 수령님의 품속에 안겨사는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은 얼마나 보람차고 행복하며 래일의 그들의 생활은 또 얼마나 더 활짝 꽃피여날 것인가!<sup>38)</sup>

## 2. 1980년대 이후 국가의 사회주의 명절로서 지속되는 양력설

1980년대에 들어선 이후, 북한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새해 새아침이 밝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양력설을 맞아 새로운 다짐과 계획, 포부를 내세우며 사회주의 명절로서의 양력설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었다.

흰눈도 꽃송이 되어  
 춤추며 내리는 강산에  
 1980년대의 첫아침이 밝아오니  
 생각은 깊어져라.  
 ...  
 새해!  
 그것은 시간의 흐름속에 오는 해바꿈이 아니다.  
 이 땅우에 오는 새해,  
 이는 시각시각이 인민의 행복으로 새겨지도록  
 어버이수령님이 베푸시는 은덕속에  
 우리 인민이 달려오른 승리의 봉우리이며  
 더 높이 날아오를 새 리정표!

어버이 수령님의 의지대로  
 창조의 시간이 이 땅우에 흐르고  
 수령님의 위대한 그 뜻으로  
 혁신의 하루하루가 흘러  
 새 력사가 이룩된 빛나는 년륜!

그래서 더욱  
 생각도 깊어지고

38) 「새로운 결의를 안고 설명절을 맞는 혁명의 수도 평양시근로자들」, 『로동신문』, 1973.1.1.

마음도 뜨거워지는  
조선의 설,

아 위대한 전환의 해 1980년!  
당 제6차대회가 열리는  
영광의 새해!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창조하며 건설할 휘황한 앞날을  
우리앞에 펼치는 뜻깊은 새해!

승리자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위대한 전변을 가져올  
충성의 맹세 가슴마다 끊이며  
우리 인민이 맞는 이 설은  
보람찬 총진군의 영광의 첫걸음,

간절한 흙모의 마음 안고  
어버이수령님 만수무강 축원하는  
뜻깊고 경사론 명절이어라. (리일복)<sup>39)</sup>

『천리마』에서 새해의 축원의 의미를 담은 시는 대체로 매년 1월에 위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 “조선의 설”이라는 “뜻깊고 경사론 명절”은 “충성의 맹세를 하는 인민의 설”로 규정되었고, 『천리마』에 게재된 김일성의 「신년사」에서도 양력설은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건설,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위한 명절”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동지들!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원대한 포부를 안고 1980년대에 들어서서 첫해의 새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 전체 인민들은 높은 혁명적열정과 전투적 기백을 가지고 신심도 드높이 1980년대의 첫 진군을 시작하고있습니다. 1980년대는 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번영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역사적인 전변이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시기로 될것입니다.

… 동지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하며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긴장한 투쟁을 벌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전으로 앞당겨수행함으로써 승리자의 영예를 안고 당

39) 「새년대의 첫해 첫아침에 (시)」, 리일복, 『천리마』 248, 문예출판사 천리마, 1980년 1월, 18-19쪽.

제6차대회를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며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sup>40)</sup>

북한 사회에서 음력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언론의 시각은 1970년대 이후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음력에 기반한 민속명절이나 전통 민속놀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소개하거나 적극 권장하는 내용의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9년에 이르러 음력설을 민족의 전통 민속명절로 부활시키며 보다 적극적으로 음력 민속명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분위기는 전환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양력설은 사회주의 명절로서의 의미, 인민의 명절로서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며 국가 명절로서 지속·전승되고 있었다.

벌써부터 부자집애들은 설명절기분에 들떠있어요.

어서 빨리 설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손뼉을 치며 좋아하고 아버지가 고운 옷을 사왔다고 자랑까지 해요. 또한 맛있는 설음식을 장만한다며 제집 설준비를 자랑한답니다.

그런데 우리집은 왜 이렇게 쓸쓸하기만 할가요. 오늘아침에도 어머니는 아버지보고 래일 끼니걱정을 하며 한숨을 지었어요.

난 설날이 싫어요. 설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것이 겁이 나요.

... 날로 더해가는 《부익부, 빈익빈》의 판이한 현실, 그것은 요즘과 같은 설명절을 앞둔 년 말이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땅의 이런 현실이 바로 어린 내 딸에게도 슬픔을 주고 눈물을 준 것이었다.

나는 설음을 안고 잠든 딸애를 바라보며 이렇게 입속으로 외웠다.

(야야, 설명절이 있는것이 잘못이 아니란다. 설명절을 저주할 것이 아니란다. 미국강도놈들과 그 앞잡이놈들이 권세를 쓰는 이 남조선사회제도를 저주해야 한다.

바로 미제날강도놈들과 그 앞잡이 부자놈들이 너에게서 즐거운 설명절을 빼앗아갔단다.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놈, 로동자, 농민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을 쳐엎어야 우리도 잘살수 있단다.

그러자면 놈들과 싸워야 한단다. 그래 아버지도 싸우고있다. 이 남조선의 썩은 사회제도는 오래가지 못한다. 인민들의 투쟁에 의해 이 사회는 망한다. 미국놈과 그 앞잡이놈들이 망하고 너에게 기쁜 설날이 찾아올날은 멀지 않았다.)<sup>41)</sup>

양력설은 198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국가 지도자의 신년사 발표, 설맞이 각종 공연과 행사, 동상 헌화 등 국가의 중요한 정치행사가 공식적으로 열리는 국가 명절로서의 위상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북한 사회에서 양력설이 민속명절과 더불어 사회주의 명절의 특성을 모두 가진 이중적인 명절의 의미를 지니며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

40) 「김일성 신년사 (1980년 1월 1일)」, 『천리마』 249, 문예출판사 천리마, 1980년 2월, 17-22쪽.

41) <설명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남조선 흥동식>, 『천리마』 259, 문예출판사 천리마, 1980년 12월, 100쪽.

다. 위의 1980년 『천리마』 기사에서 양력설은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명절, “부자의 명절”과 대조되는 “인민의 명절”로서 지속·전승되어야 하며,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명절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의 사망 후, 북한의 경제난(고난의 행군, 1996-1999) 속에서 1997년 10월에 김정일이 당총비서로 추대된 사회적 혼란기의 상황에서 양력설은 북한 주민들에게 신년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날로서 더욱 중시되고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적으로 문화정서적인 생활을 많이 하도록 장려하려면 물질적인 수단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1996년을 맞으며 출판총국의 여러 출판사들과 인쇄공장에서 각종 형태의 력서들과 여러 가지 신년축하장, 기념엽서들을 만들어 내놓았다. 여러 출판사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더욱더 철통같이 뭉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찬 진군길을 다그쳐가고 있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익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새해력서들을 시대적 미감에 맞게 잘 만들었다.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만경대의 아름다운 모습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의 장엄한 기상을 담은 해돋이장면 등 여러 가지 특색있는 사진들을 매 월력에 편집하였다. 그리고 뜻깊은 명절들과 기념일, 24절기 표식을 월력의 매 장들에 두드러지게 해놓아 월력을 보는 근로자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게 될 것이다. 인민보건사에서 출판한 력서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빛내여가시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당의 보건정책 과월에 일떠선 보건일군들의 모습들을 담고 평양시 안의 병원들과 구급의료전화번호들을 밑단에 편집하였다. 특히 예술교육출판사에서는 중앙동물원에 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선물동물들을 월력에 편집함으로써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 년력들도 많이 출판되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의 노래를 편집하여 만든 년력을 비롯하여 간편하고 쓸모있게 만든 년력들은 환하고 단번에 월, 일, 요일들을 제껴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졌다. 탁상일력, 탁상월력들도 출판되었다. 출판된 모든 월력, 년력, 탁상일력, 탁상월력들에는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와 맹세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편집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인민을 힘있게 고무해주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신년축하장들과 기념엽서, 기념품들도 많이 나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 출판총국 출판물보급국 부국장 박기순, 책임지도원 안종진, 지도원 김광호, 량기모 동무들은 전국의 시, 군들에 출판된 력서들을 제때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다.<sup>42)</sup>

북한에서 역서(달력)는 최고의 새해 선물이다.<sup>43)</sup> 북한의 국가 시간을 담은 역서의

42) 「새해의 력서들과 축하장, 기념엽서들」, 『로동신문』, 1995.12.31.

43) “북한에서는 물자가 귀해 지금도 ‘달력’을 쓰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력이 최고의 새해 선물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인민반을 통해 세대별로 연력을 한 장씩 공급합니다. 연력은 가로 50cm, 세로 70cm로 연을 만들기에 제격입니다. 조 씨는 세밀이 열흘쯤 남으면 부모님께 연력을

출판과 보급은 사회주의 제도 속에서 대중의 일상적 시간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작용하였다. 북한에서 양력설은 이처럼 국가에서 제작한 역서를 인민 대중들에게 널리 배포함으로써 국가의 시간 질서와 시간체제를 인민들에게 널리 전파시키는 중요한 국가 명절로서 자리매김해왔으며, 이는 사회주의 명절로서 양력설의 의미를 더욱 공고화시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속에서 사는것만큼 생활에서 력서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력서가 있음으로 하여 사람들은 지난날에 있었던 사변적인 나날들을 돌이켜 보기도 하고 앞으로 사회와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설계하기도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은 전문 지식과 기술 수준도 높아야 하지만 일반상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력서는 작성원리에 따라 크게 태양력(양력), 태음력(음력), 태음양력(음양력) 등으로 나누며 작성형식에 따라 일력, 월력(달력), 년력 등으로, 놓는 위치에 따라 벽력, 탁상력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그리고 력서의 작성 방법에 따라 양력, 음력, 음양력 등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이처럼 력서의 종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모든 력서작성에서 가장 기초적인 시간단위로 삼은 것은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면서 자기축을 중심으로 한번 제돌기하는데 걸린 시간인 1일(하루, 1주야)이다.

…오늘까지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양력인 그레고리력은 1년의 날자수를 4년을 주기로 하여 평년인 3개년은 365일로, 윤년인 1개년은 366일로 하고 매개년을 12개월로 나눈것과 함께 1월, 3월, 5월, 7월, 8월, 10월, 12월은 31일, 4월, 6월, 9월, 11월은 30일, 2월은 28일(윤년일때는 29일)로 월의 날자수를 배렬한 것이다.

우리 나라와 중국, 일본, 월남 등 동아시아의 일부 나라들에서 현재 양력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음양력(우리가 현재 음력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력서에 작은 글씨로 《음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등으로 써넣은것은 실지 음양력의 날자임)은 월의 날자수는 음력과 같이 하고 1년의 날자수는 양력과 같이 하기 위해서 년의 월수를 평년일 때는 12개월로 하고 윤년인 경우에는 13개월로 한 력서이다. … (력사연구소 실장 박사 리영환)<sup>44)</sup>

위의 『천리마』 기사를 보면, 북한의 역서는 그레고리력인 근대 양력과 더불어 태음태양력(음양력, 음력)을 병기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국가 역서에서 표기되는 국가의 시간은 근대 양력이며, 이와 더불어 민속명절의 시간인 태음태양력(음력)의 시간도 북한 주민들이 ‘일반상식’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시간이라는

씨도 되느냐고 묻기를 거듭했다면서 이렇게 추억합니다.” (송홍근 기자, 「달력이 北서 새해 최고 선물로 꼽히는 이유」, 시리즈-언박싱평양, 『신동아』, 2020.1.21.)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29461&memberNo=39094895&vType=VERTICAL> (검색일: 2020.11.5.)

44) 「사람들의 생활과 력서(1)」, 『천리마』 493, 주체89(2000)년 제6호, 문예출판사 천리마, 2000년 6월, 78-79쪽.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평양시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투쟁은 비록 어려운 투쟁이지만 그만큼 더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입니다.》

희망찬 새해 2000년의 첫 아침이 밝았다. 제야의 종소리와 더불어 온밤 잠못 들던 수도는 새벽부터 들끓기 시작한다. 가로수들과 큰길들마다에서 이채로운 밤풍경을 장식하던 수천 수만의 무리등들이 주는 여운도 큰 것이었지만 새해의 첫 새벽이 주는 환희와 행복감은 더욱 크다. 설명절을 맞으며 수도 평양의 곳곳에서 나뭇기는 당기, 공화국기, 붉은기들, 승리자의 긍지를 안고 새해를 맞는 인민의 행복감이 그대로 반영된 특간호들과 장식물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평양의 거리마다에서는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우렁찬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신심에 넘친 분위기가 대기를 가열시킨다. 새해를 맞으며 사람들은 정다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군인들도 과학자들도 대학생들도 당의 령도를 받들고 전진해온 지난해를 감회깊이 추억하며 새해에 이룩할 자신들의 목표를 이야기한다. 설날을 맞는 수도 평양은 설레인다. 거리의 곳곳에 갖추어진 봉사매대들과 옥류관, 청류관을 비롯한 봉사단위들에서는 설명절을 맞는 사람들의 활기에 넘친 웃음소리가 울린다.…<sup>45)</sup>

희망찬 새 세기의 첫 설명절을 맞은 조국땅 그 어디나 그러하지만 우리가 찾았던 중구역 동안동의 태금이 할머니 가정의 이채로운 설명절모습은 참으로 인상깊었다. 한생에 세 세기를 거쳐 살고 있는 장수자! 실로 희한한 현실을 체험하는 장수자가정의 기쁨을 과연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자기들에게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설명절날 태금이 할머니의 집은 어느때없이 흥성이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웠다. 일가친척들은 물론 인민반원들, 학생들과 유치원꼬마들까지 세배를 하러 찾아와 축복의 따뜻한 공기가 방안 가득 차넘쳤다. 흰눈같이 하얀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설인사를 받느라 여념이 없는 태금이 할머니의 기쁨 넘친 얼굴. 103살이라고는 쉬이 믿어지지 않는 할머니의 건강한 모습은 찾아오는 사람들의 가슴에도 기쁨의 파도를 일으킨다. 그날 제일 바쁜 사람들은 아마도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외손자인 평양컴퓨터기술대학 교원 김현식동무와 그의 안해인 중구역인민병원 의사 김진순동무인 듯 싶었다. 세배하러 온 사람들을 맞고 보내느라 여념이 없는 부부의 모습은 볼수록 정겹다. 예로부터 전해 오는 우리 인민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오늘에 와서 얼마나 훌륭하게 발전풍부화되고 있는가를 한가정에서도 엿보게 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었다. 서로 오가는 정다운 말소리, 아름다운 노래소리... 복 받은 장수자가정의 이채로운 설명경은 실로 우리의 가슴에 많은 의미를 불러 일으켰다.<sup>46)</sup>

북한의 신문과 잡지 기사에서 전하는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새해맞이 풍속은 가족과 친척, 이웃들에게 세배를 하거나 축하장을 보내어 인사를 나누는 일, 만수대 언덕

45) 「설맞이경사로 온 나라가 흥성인다」, 『로동신문』, 2000.1.1.

46) 「세번에 걸치는 세기를 맞은 장수자의 기쁨: 중구역 동안동에 사는 태금이 할머니의 가정에서」, 『로동신문』, 2001.1.2.

에 올라 국가 지도자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일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2003년에 북한 당국에서 ‘신정을 구정으로 대체할 데 대한 지시’를 내리고 양력설의 국가 행사를 음력설로 재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양력설에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하는 등 양력설 과세의 풍속을 지속해오고 있다.<sup>47)</sup>

새해를 맞으며 진심어린 축하장들과 기념품을 주고받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결의를 다지는 것은 선군시대 우리 인민의 고상한 새해맞이풍습이다. 얼마전 우리가 평양역 앞에 자리잡고 있는 평양축하장기념품 상점을 찾았을 때였다. 수많은 사람들로 상점이 흥성거리고 있었다. 그들 속에는 스승과 동창생들, 친척, 친구들에게 보낼 축하장을 한아름 안고 문을 나서는 어느 한 기관의 박국성동무도 있었고 며칠 사이에 세 번씩이나 상점을 찾아온다는 김책공업총학대학 학생 권옥별동무도 있었다. 유치원에서 배운 우리 말로 교양원선생님에게 축하의 글을 써보내고싶다고 하면서 찾아온 창광유치원의 어린이도 있었다. 보급원들인 계영애, 리연희 동무들은 친절하게 봉사에 열중하고 있었다.…<sup>48)</sup>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도덕적 품모에 달려있다.>> 새해를 맞으면 사람들은 축하와 축복의 감정에 젖어들게 되고 지난해의 총화를 짓는 것과 함께 새해의 결의를 다지게 된다. 우리 인민들은 새해가 오면 만수대 언덕에 올라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며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일은 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결의를 다진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도덕기풍으로 된다. 새해에 가족, 친척들과 스승, 동네 사람들에게 새해인사를 하는 것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풍습의 하나이다. 새해를 맞으며 집안과 동네의 어른들에게 새해인사를 드려야 한다. …새해인사는 년하장이나 전화, 전보 등을 리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친척이나 동지, 친구들을 혁명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무해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번지는 격동하는 선군시대에 사는 인민답게 고상하고 혁명적인 도덕품모와 생활기풍을 지녀야 한다.…<sup>49)</sup>

설은 우리 인민이 크게 쇠는 민속명절들중의 하나로서 명절풍습이 아주 독특하다.

…세배는 레의도덕이 밝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이며 독특한 설명절풍습의 하나이다. 설명절날 첫 새벽에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아름다운 꽃뭉음을 정중히 드리고 설인사를 올리는

47) “조 씨의 기억 속 설날은 ‘신정’(양력 1월 1일)입니다.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달력에서 사라진 설날은 ‘봉건 잔재 타파’를 외친 북한에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음력설과 추석을 비롯한 민속명절이 1980년대 재등장했으나 양력설에 익숙하던 주민들은 생소한 규정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2003년 북한 당국은 ‘신정을 구정으로 대체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으며 양력설에 진행하던 국가적 행사를 음력설에 맞춰 재편성했으나 주민들은 지금도 양력 1월 1일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랫동안 양력설을 설날로 쇠 왔기 때문입니다.” (송홍근 기자, 「달력이 북서 새해 최고 선물로 꼽히는 이유」, 시리즈-언박싱평양, 『신동아』, 2020.1.21.)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29461&memberNo=39094895&vType=VERTICAL> (검색일: 2020.11.5.)

48) 「흥성이는 기념품매대」, 『로동신문』, 2007.1.2.

49) 「새해인사례절」, 『천리마』 632, 문예출판사 천리마, 2012년 1월.

것은 로동당시대에 활짝 꽃피난 우리 인민의 설명절풍습이다. 또한 우리 인민은 설날아침 집집마다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설인사를 삼가 올리며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성으로 받들어갈 굳은 결의들을 다진다.

다음 집안의 웃어른들과 이웃의 웃어른들에게 설인사를 하고 스승들이나 동무들, 친척들을 찾아가 설인사를 한다. 나이가 많은 웃어른들에게 큰절로 설인사를 하는것은 전통적인 세배방법이다. 설날에는 옷놀이, 장기, 널뛰기, 연띄우기, 팽이치기, 바람개비돌리기, 썰매타기 등으로 가정마다, 마을마다 흥성거린다.

민속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활짝 꽃피워주는 우리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우리 인민의 설명절풍습은 민족의 자랑으로 끝없이 계승발전될것이다.<sup>50)</sup>

위의 기사를 보면, 북한의 양력설 풍습은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설인사를 올리는 것”, “설날 아침 집집마다 모셔진 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에 설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설 인사를 마친 후, 설의 다양한 세시풍속이 행해질 수 있다. 즉, 민속명절로서의 양력설 풍속을 둘러싼 헤게모니는 국가의 수령님과 장군님께 설인사를 행하는 사회주의 명절로서의 세시이다.



<사진 1> 「로동계급의 설맞이공연 진행」,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2003.1.1.



<사진 2> 「학생소년들의 주체108(2019)년 설맞이공연 <<축복의 설눈아 내려라>> 진행」, 『로동신문』, 2019.1.1.

북한사회에서 국가적 의미의 새해, 즉 한 해의 시작은 근대 양력인 그레고리력의 1월 1일에 두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전통 민속명절의 풍속은 음력설로 이전한 반면, 공식적인 국가명절로서의 새해 첫 명절은 여전히 양력설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설맞이 관련 행사(<사진 1>, <사진 2>)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50) 「우리 민족의 설명절풍습」, 본사기자, 『로동신문』, 2003.12.28.

## IV. 북한의 민속명절 정책과 전통 민속명절로 부활한 음력설과 정월대보름

안주영(서울대)

### 1. 1980년대 이후 전통 민속명절로 부활한 음력설

『천리마』에서는 1978년부터 민속놀이에 대해 소개하는 잡지 기사가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1978년 『천리마』 통권 234호에 실린 <널뛰기: 풍속>을 시작으로 하여 1979년 <강강수월래 : 풍속>(통권 238), <그네뛰기 : 풍속>(통권 239), <씨름 : 풍속>(통권 243), <고누놀이 : 풍속>(통권 245), <연놀이 : 풍속>(통권 247), 1980년 <제기차기 : 풍속>(통권 249), <격구 : 민속놀이>(통권 256), <웃놀이 : 민속놀이>(통권 257), <화불싸움 : 민속놀이>(통권 259), 1989년 <람승도놀이 : 민속놀이>(통권 356) 등 다양한 세시놀이에 대해 소개하는 기사들이 게재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로서 조선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지리, 인민들의 아름다운 도덕과 풍습을 잘 모르고서야 어떻게 조선혁명을 잘할수 있겠습니까.》.

웃놀이는 우리 나라 민간오락중에서도 대표적인 대중오락의 하나로서 세나라시기부터 우리 인민들이 즐겨놀았다.

이웃과 벗들 사이에 화목을 두터이하고 명절이나 휴식을 즐겁게 하는 웃놀이는 매우 흥미있는 민속놀이이다.

웃놀이에서 쓰이는 말인 《도》, 《개》, 《걸》, 《웃》, 《모》 등은 옛날 《부여》시기의 벼슬이름에서 온것이다. …(중략)…<sup>51)</sup>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로서 조선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지리, 인민들의 아름다운 도덕과 풍습을 잘 모르고서야 어떻게 조선혁명을 잘할수 있겠습니까.》.

화불싸움은 우리 선조들이 먼 옛날부터 널리 진행하여오던 군사놀이의 하나였다.

우리 인민들은 일찍부터 등불놀이와 불꽃놀이 특히는 화불싸움을 즐겨놀았다.

근세에까지 등불놀이로 이름난곳은 평양, 개성, 서울과 같은 옛도읍들이었다.

정월대보름날밤이면 평양에서는 종로거리가 《불바다》를 이루었고 《방석불》로 장식한 모란봉과 배를 띄운 대동강이 한데 어울려 그림과도 같이 아름다웠다.

오랜 생활과정에서 불을 다루는데 익숙해진 우리 인민들은 외적을 물리치는 실지전투에

51) 「웃놀이: 민속놀이」, 『천리마』 257, 문예출판사 천리마, 1980년 10월, 102쪽.

서 그대로 활용할수 있었던 화불싸움에 더욱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었다.

화불싸움은 일반적으로 음력 정월보름날밤에 진행하였다.

화는 가장 불꽃이 크고 오래 탈수 있는 겨름대, 싸리대 혹은 참대 등으로 만들었는데 화 속에 솜을 넣고 밀을 녹여바르기도 하고 광솔꾸레미를 넣기도 하며 기름을 적시기도 하였다. 석유를 사용한 이후시기에 와서는 솜방망이를 만들어서 석유에 찍어내기도 하였다. 모두 있는 지혜와 방법을 다하여 아무리 두들겨도 불이 꺼지지 않고 떨어져나가지 않도록 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단의 준비를 갖춘 다음 해가 지기전에 오곡밥(풍년이 들라고 정월보름날에 집집마다 잡곡밥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으로 이른저녁을 든든히 먹고는 산마루에 올라가서 보름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다. …(중략)…<sup>52)</sup>

위의 두 기사에서는 조선의 민속놀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 “조선의 역사와 문화, 도덕과 풍습을 잘 아는 것”이 “조선혁명을 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서두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김일성의 교시는 여타의 민속놀이에 대한 잡지 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민속놀이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이를 전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속놀이에 대해 소개하며 놀이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로동신문』이나 『천리마』 잡지에서 북한의 풍속이나 명절 민속놀이에 대해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기사들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대부분 음력 민속명절에 행하는 전통놀이들이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6년에 김정일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전통 생활문화와 민속명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부터는 추석을, 1989년부터는 음력설과 단오 등 전통 민속 명절을 새롭게 휴식일로 지정하여 부활시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옛날부터 우리 조선사람들은 친척이나 이웃들사이에 서로 도우면서 매우 화목하게 살아 왔습니다.》

친척이나 이웃들사이에 서로 도우면서 화목하게 살아온것은 우리 인민이 창조하고 전통적으로 계승해온 미풍량속의 하나이다.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지만 우리 민족처럼 수천년동안 한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타고 같은 말을 하면서 화목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은 그리 많지 않다.

민족의 이러한 단일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은 남달리 단결력이 강하고 서로 돕는 협조의 정신이 높았다. 우리 인민의 이 아름다운 풍속은 무엇보다도 자연을 정복하고 물질적 부를 창조하기 위한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형성되고 발현된 것이다.

… 우리 인민들속에서 창조되고 계승되어온 이러한 아름다운 풍속들은 단일민족인 우리 인민의 고유한 생활풍습이며 미풍량속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 우리 인민의 이러한 미풍량속은 당시 사회적 조건에서는 충분히 발양될

52) 「화불싸움: 민속놀이」, 『천리마』 259, 문예출판사 천리마, 1980년 12월, 94쪽.

수 없었다.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활짝 꽃피날수 있었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지난날 우리 인민들이 창조하고 계승하여온 미풍량속들이 새로운 시대적 및 역사적 조건에 맞게 개화발전함으로써 온 사회가 동지적 관계로 맺어지고 하나의 사상의 지적으로 굳게 결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었다.

…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은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미풍량속과 풍속들을 더 잘 알고 그것을 옹기 계승발전시켜나아가감으로써 조선민족을 더 잘 알고 사랑해나가는 애국주의정신을 키워야 할 것이다.<sup>53)</sup>

위의 1989년 『천리마』 기사를 보면, “지난 시기 사회적 조건에서는 충분히 발양될 수 없었던 미풍량속”이 새로운 시기가 도래하여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계승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되었다. 김정일 체제에서 조선의 전통과 미풍량속은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맞게 새롭게 창조되고 계승될 수 있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의미가 부여되었다. 또한 김정일 체제에서 ‘민족적 전통’은 ‘낡은 것을 버리고 진보적인 것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내려오면서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이룩하였습니다. 민족적전통을 옹기 계승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성을 살려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반대하고 민족문화유산과 미풍량속을 비롯한 민족적전통을 잘 살려나가야 합니다. 민족적전통을 계승한다고 하여 낡은것을 그대로 되살리는 복고주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민족적전통을 살려나가는데서 낡은것, 사회주의 요구에 맞지 않는것은 버리고 진보적인 것, 인민적인 것을 현대적미감과 사회주의근로자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창조한 민족문화유산과 전통을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민족문화를 더 잘 건설하며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성을 잘 살려나가야 하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족제일주의정신을 발양시키는 사업도 형식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sup>54)</sup>

김정일이 주창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조선의 민족이 역사적으로 어느 민족보다 우월하며 우수한 민족적 전통을 이룩하였다는 전제에서 기반한다. 김정일은 이러한 조선 민족의 우수한 사상과 전통을 이어받아 조선의 전통문화를 수용하는 민족주의를 북한의 전체 인민들에게 널리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조선 민족의 전통적 생활양식을 사회주의에 결합시켜 수령-당-인민이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국가 전체주

53) 「예로부터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 준박사 리기흥, 『천리마』 362, 1989년 제7호, 문예출판사 천리마, 1989년 7월, 67-68쪽.

54)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89년 12월 28일, 《김정일선집》(증보판) 제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144-145쪽.

의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음력의 전통 민속명절은 북한 주민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 부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력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

추석은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전해온 가을철의 민간명절들 가운데서 가장 큰 명절로서 날로는 음력 8월 15일인데 옛날에는 가위 또는 한가위라고도 하였다.

…추석날이 되면 우선 사람들은 그해에 난 햇곡식으로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먼저 간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무덤을 돌아보았다. 이는 가을걷이전에 햇곡식을 조상에게 먼저 맛보인다는 뜻에서 진행되었는데 미신적인것도 있으나 웃사람을 존경하고 먼저간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는 《동방례의지국》인으로서의 우리 인민들의 높은 도덕적 풍모의 일단을 엿보게 한다.

이날에는 또한 추수를 앞두고 한해동안의 로력적 성과를 축하하고 서로서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여러가지 경기를 비롯한 민속놀이들을 진행하였다. 물론 지방에 따라 그 민속놀이가 여러가지로 진행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녀자들은 그네를 뛰고 편을 갈라 길쌈을 잘하는 녀자들을 뽑아 길쌈경기도 하였다. 남자들은 씨름판을 벌렸다. 지방에 따라 널뛰기, 줄당기기, 강강수월래, 거북놀이, 소놀이와 같은 다채로운 오락도 진행되었다.

이날 음식으로는 인절미, 울단자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민족음식들을 만들어먹었는데 흔히 송편이 기본이었다. 그해 농사지은 햇곡식으로 만든 송편은 그 맛이 참으로 감미로웠다.

이렇게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음력 8월 15일이면 해마다 추석이라고 하여 민속적인 명절로 쇠곤하였다.<sup>55)</sup>

당시 북한사회에서는 “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력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며 음력의 설과 추석, 전통 민속 놀이 등 조선 인민의 민속, 풍속을 적극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에 김정일이 주창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조선 민족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진보적인 것, 인민적인 것을 현대에 맞게 변용하여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력사와 문화에 대하여서도 깊이 학습하여야 합니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 나라 방방곡곡에서는 설날이 가까와옴에 따라 윷놀이가 시작되고 새해정초에는 어딜 가나 이 오락이 벌어졌다.

《홀발산이 산말에 가고

석문동이 막 돌아간다

윷이나 살이나 오금의 떡이나

55) 「(민속) 8월 추석」, 『천리마』 364, 1989년 제9호, 문예출판사 천리마, 1989년 9월, 86쪽.

동-

자가사리 박실박실한다》

이것은 흥겨운 윷판의 한 장면을 표현한것으로서 윷놀이를 하면서 이기고있는 편이 흥취에 넘쳐 절로 엮어대는 말이었는데 그 뜻은 다음과 같다.

《너희는 겨우 첫말이 한쪽구석을 가는데 우리는 세개를 합친 말이 잘두 돌아간다.

너희는 윷이나 모나 오금에 붙은 떡처럼 움질일줄 모르누나.

자 우린 녀동이 다 났다.

너희네 말은 아직도 많이 남아서 물고기가 끓는것 같구나.》

… 윷놀이는 남녀노소 할것없이 편을 갈라 집단적으로 즐기는 매우 재미있는 우리 나라 민간오락의 하나이다. (리근오)<sup>56)</sup>

위의 1990년 2월 『천리마』의 「윷놀이」 기사를 보면, 음력 설날의 주요한 놀이로서 윷놀이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설명절의 윷놀이를 인민의 중요한 민속놀이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리마』 통권 257호에서도 「윷놀이: 민속놀이」(1980년 10월)라는 기사에서 “윷놀이는 우리 나라 민간오락 중에서도 대표적인 대중오락의 하나로서 세나라시기부터 우리 인민들이 즐겨놀았다. 이웃과 벗들 사이에 화목을 두터이하고 명절이나 휴식을 즐겁게 하는 윷놀이는 매우 흥미있는 민속놀이이다.”<sup>57)</sup>라고 하며 구체적인 놀이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음력설과 직접적으로 연관짓지 않았다. 반면, 1990년 2월 『천리마』의 「윷놀이」 기사에서는 2월의 음력설 명절의 놀이로서 윷놀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북한의 남녀노소 모든 인민들이 즐겨 하는 민간오락으로서 윷놀이를 소개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1990년대 이후 음력설은 북한 주민들의 세시에서 중요한 명절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200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의 민속명절로서 음력설과 더불어 정월대보름이 새롭게 전통명절로서 부활하며 재창조되는 변화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 2. 2000년대 이후 북한 주민의 민속명절로서의 음력설과 정월대보름

### 1) 북한의 민족적 전통을 계승하는 민속명절로서의 음력설 세시 문화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후 199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가 출범되었고, 2000년 이후 음력설은 ‘조선민족제일주의’에 따라 ‘민족적 전통을 계승하는 민속명절’

56) 「윷놀이」, 『천리마』 369, 1990년 제2호, 문예출판사 천리마, 1990년 2월, 72-73쪽.

57) 「윷놀이: 민속놀이」, 『천리마』 257, 1980년 10호, 문예출판사 천리마, 1980년 10월, 102쪽.

이라는 정체성이 부여되며 더욱 급부상하게 되었다.

[민속명절-음력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민족 제일주의정신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빛나는 전통에 대하여 똑똑히 알게 될 때 깊이 심어질수 있습니다.》 음력설은 우리 인민이 전통적으로 쇠여오는 민속명절이다. 설의 원래 의미는 음력설이었다. 설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 첫 아침을 맞는 명절로서 사람마다 음력설이 오면 새로운 기분과 기대를 안고 명절을 즐기었다.

…(중략)… 우리 인민은 설날을 앞두고 명절맞이준비를 착실히 하였다. 식구들의 설옷을 준비하고 설을 깨끗한 환경에서 쇠기 위하여 집안팎을 청소하고 손질도 하였다. 선달 그믐달은 여러 가지 설맞이준비를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일하였다. 옛날부터 선달 그믐날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희여진다고 한 것은 설맞이 준비가 바쁘니 이 한밤은 잠자지 말고 일해야 한다는데서 생긴 말이였다.

우리 선조들은 새해에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념원에서 일부 도구들을 새로 장만해놓았다. 설날아침에는 나이 어린 사람들이 세배를 한다고 하면서 나이 많은 어른들을 찾아가 절을 하곤 하였다. 지금에 와서 우리 인민은 음력설을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요구에 맞게 쇠고 있다. 음력설에 이웃들과 친척, 친구들, 자기를 배워준 교원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 축하엽서를 보내며 각 기관, 기업소들, 극장, 영화관, 상점, 식당들의 입구에 여러 가지 모양의 축등을 비롯한 장식을 만들어 단다.

설날에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나라의 곳곳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영생축원의 꽃다발과 꽃바구니를 드리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더 잘 받들어나갈 결의를 다지는 것은 우리 인민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모습이다. (글쓴이 로혜숙)<sup>58)</sup>

우리 인민이 전통적으로 즐겨오는 음력설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에 언제나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 수도의 곳곳에서는 음력설맞이준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음력설을 앞두고 수도의 많은 집들에서는 명절을 맞으며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기관과 가정들에 모셔진 백두산 3대 장군의 초상화들에 드러질 꽃송이들이 향기를 풍기며 망울을 터치고 있다. 흥성이는 수도의 거리거리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는 것은 명절 분위기를 한껏 돋구어주는 이채로운 장식품들이다. 도로와 네거리들에 크고 작은 특간호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였으며 각 기관, 기업소들과 극장, 영화관, 상점, 식당들의 입구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축등들이 만들어져 달리고 있다. 창광봉사관리국의 봉사망들에서는 수도시민들을 위한 음력설음식 봉사조직을 간지게 하는 것과 함께 봉사망들의 현관에 축하의 인사를 하는 눈사람과 꽃테프장식을 특색있게 하고 있다. 희망과 활기에 넘칠 음력설날 그 장식물들은 얼굴마다에 웃음꽃을 더욱 활짝 피워줄 것이다. 또한 창광거리아 승리거리, 천리마동상으로부터 개선문에 이르는 도로구간 등 수도의 곳곳에 수천수만개의 무리불꽃등들이 설치되게 된다. 여러곳에 갖추어진 기념품매대들과 음식매대들에서는 음력설봉사준비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갖추어져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고 있다. 음력설기념장식물들은 명절을 즐기는 우리 인민들에게 투쟁의 활력과 유쾌한 생활정서를 더해주게 될 것이다.<sup>59)</sup>

58) 「고유한 민족풍습을 살려나가자 - 올해의 음력설은 2월 5일」, 『로동신문』, 2000.2.2.

59) 「이채로운 거리의 장식물들: 평양시에서」, 『로동신문』, 2000.2.3.

위의 두 기사를 보면, 2000년에 들어서 음력설은 “민족의 전통을 상징하는 민속명절”로서 장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의 기사에서 “설의 원래 의미는 음력설이었다”라고 보도하며 양력설보다 음력설을 쇠는 것이 본래의 설을 쇠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음력설을 금지하고 양력설을 장려한 것과 대조되는 현상이었다. 물론 2000년 이후에도 양력설은 여전히 양력의 첫 날로서 국가의 여러 새해맞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양력설로 명절을 쇠던 문화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으나 음력설에 부여된 전통의 의미는 민속명절로서의 음력설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2003년부터는 음력설을 공식적으로 3일 연휴로 지정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음력설' 대신 '설 명절'로 바꿔 부르게 되었고, 달력에서도 음력설은 '설 명절'로 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북한의 음력설에는 다양한 민속명절 행사가 거행되었고, 율놀이, 씨름 등 민속놀이도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음력설에 대한 장려는 음력 명절인 정월대보름, 추석(한가위)의 '전통'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켰으며, 특히 정월대보름은 새로운 민속명절로서 북한사회에서 부활하게 되었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전통과 미풍양속을 고수하고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살려나가는데 계속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민족적으로 전해오는 좋은 관습들에는 민족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적풍모와 정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음력설을 비롯한 민속명절을 잘 쇠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새해를 맞이하는 명절로 음력설을 쇠어왔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도 예로부터 음력설을 쇠었습니다. 우리 나라에 양력이 들어오면서부터 음력설을 크게 쇠던 풍습이 점차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양력설을 기본으로 쇠는것은 서양식입니다. 앞으로 음력설을 크게 쇠는것을 전통화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는 음력설뿐만아니라 정월대보름, 한가위와 같은 민속명절들도 더 뜻깊게 씬으로써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전통과 생활전통을 잘 살려나가야 합니다.

민속놀이를 장려하여야 합니다. 민속놀이는 그 가지수가 많고 다양할뿐만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특색이 있어 우리 인민이 즐겨하는 오락입니다. 민속놀이를 장려하는것은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온 사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우는데도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민속놀이를 많이 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전에는 어린이들이 즐겨노는 유희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놀이를 하는것이 별로 없고 어린이들의 유희에 대한 책도 별로 나오는데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연뽕우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썰매타기, 줄넘기, 숨박꼭질, 메뚜기치기 같은 민속놀이를 많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60)

60) 김정일,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적극 살려나갈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91(2002)년 9월 8일, 주체 92(2003)년 1월 2일, 《김정일선집》(증보판) 제2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293-294쪽.

김정일이 2002-2003년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 전통을 적극 살려나갈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위의 내용을 보면, 민속명절에 관한 주요한 국가 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은 음력의 명절에 민족의 전통명절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음력설, 정월대보름, 추석(한가위)를 중심으로 한 민속명절의 세시풍속을 실천함으로써 ‘민족의 고유한 문화전통과 생활전통’을 재창조시키고자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성에는 민족자주정신과 민족문화전통이 체현되어 있으며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재부로,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양력설보다 음력설을 즐겁고 의의 있게 쇠는 것을 전통화하여 왔다.

우리 인민의 이러한 민속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에 의하여 더 활짝 꽃 피나게 되었다.

…음력설이 오면 우리 인민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삼가 인사를 드리고 선배들과 이웃들, 스승들을 찾아가 설인사를 나누고 있으며 사회급양봉사망들에서는 민족의 향취가 넘치는 설음식들로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공원과 유원지들에서는 즐거운 민속놀이로 명절의 한때를 보내는 근로자들과 학생소년들의 기쁨 넘친 모습들을 볼수 있다.…61)

2000년대 이후 설명절의 전통은 “예로부터 음력설에 있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밑천이 될 민족문화전통의 체현을 위해 음력설 세시를 행하는 것을 국가에서 적극 권장하였다. 민속 전통에 대한 북한 사회의 정책적 기조는 2012년에 들어선 김정은 체제에서도 계승되어 민족문화와 예술, 민족풍습, 민속명절 등이 적극 장려되었으며, 민속공원과 민속거리의 건설도 지속되도록 하였다.

…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민족전통에는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 고상한 정신세계와 고유한 생활세태가 반영되어있습니다.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고 대를 이어 전해오는 가치있는 창조물들과 미풍양속을 귀중히 여기고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위하여 민족문화와 예술, 민족풍습을 적극 장려하고 인민들이 민속명절들을 즐겁게 쇠도록 하였으며 민속공원과 민속거리도 건설하도록 하였습니다.

… 중앙과 지방의 력사박물관들과 민속공원, 민속거리들을 민족적색채가 살아나게 잘 꾸려야 합니다. 평양민속공원을 애국주의교양의 거점답게 더 훌륭하게 꾸리기 위한 2단계공사를 빨리 완공하며 아직 민속거리를 꾸리지 못한 도들에서는 자기의 특성에 맞게 잘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력사박물관의 표본이 되고 력사교양거점의 본보기가 되게 세계적 수준에서 훌륭히 꾸려야 합니다. 지방의 력사박물관들도 자기 지

61) 「유구한 민속명절 음력설」, 『로동신문』, 2003.1.19.

방의 얼굴이 살아나게 잘 꾸려야 합니다.

… 민족유산보호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하여야 합니다. 모든 부문을 과학화하는것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입니다. 민족유산보호부문 사업도 과학화하지 않으면 높은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에서는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민족사적업적을 빛내이는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이 부문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은 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며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더욱 빛내어나가야 하겠습니까.<sup>62)</sup>

김정은이 주창한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이전의 김정일체제에서 주창해온 민족적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국가 정책 기조를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중시하시고 여기에 힘을 넣으시여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온 세상에 빛내여주시였습니다.”<sup>63)</sup>라고 말하며 이전 체제에서의 민족문화정책을 지속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민족유산보호사업을 과학화하며 미래를 위한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더불어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을 더 많이 발굴·수집하고, 이를 국가의 중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체제에서도 음력설은 전통 민속 명절로서의 위상이 지속될 수 있었다. “학생소년들의 2012년 설맞이공연 <영원한 해님의 나라> 진행”(『로동신문』, 2012.01.24.), “민속명절을 보다 기쁘고 즐겁게”(『로동신문』, 2013.02.10.), “인민반의 웃놀이 경기”(『로동신문』, 2014.01.31.), “우리의 멋, 우리의 향기가 제일”(『로동신문』, 2016.02.09.), “설명절 아침에 있는 씨름경기”(『로동신문』, 2016.02.10.), “거리와 마을에 차넘치는 설명절의 환희: 함흥시의 여러곳을 돌아보고”(『로동신문』, 2017.01.29.), “농악무로 흥겨운 협동별”(『로동신문』, 2017.01.29.) “랑만과 희열넘친 우리의 생활: 동림군편의봉사관리소에서”(『로동신문』, 2017.01.30.) 등 음력설과 관련된 신문기사에서 다양한 공연과 행사, 놀이로 풍성한 세시풍속에 대해 전하고 있었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음력설은 북한의 민속전통에 대한 국가 정책에 기반하여 사회주의적 민족 전통, 민속 명절이라는 정체성이 부여된 ‘설명절’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그 안에 내재된 ‘민속’의 의미에는 다양한 전통 세시놀이와 세시음식, 세시의례를 포함한 세시풍속에 대한 인민대중의 실천이 담지되어 있었다.

62) 김정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103(2014)년 10월 24일, 단행본,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5-15쪽.

63) 김정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103(2014)년 10월 24일, 단행본,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1-2쪽.

북한의 민속전통 정책의 변화는 북한 주민의 세시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북한 주민의 음력설 세시 문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주민들은 음력설에도 양력설과 마찬가지로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인사를 드리는 것”을 실천하는 것과 더불어 가까운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 설 세배를 드리는 것으로 설의 명절 세시를 시작하였다.

설명절 아침이면 웃사람들을 찾아가 건강을 축복하며 세배를 드리는 것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민족적 풍습의 하나이다. 공화국 영웅이며 조국통일상 수상자인 청진시 신암구역 천마동 강응정로인의 집에도 해마다 설명절 아침이면 19명이나 되는 아들, 딸,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색동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손자, 손녀들이 줄지어 찾아온다. 설명절을 축하하여 자식들이 세배를 드릴 때면 강응정, 김량숙 내외는 말하곤 한다. 건강하여 맡은 일들을 잘하라고. 강응정로인의 당부를 새겨 들으며 자식들은 80고령에 이른 오늘까지도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높이 우러러 모시기 위한 사업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아버지처럼 한생을 성실하게 살며 일해나갈 결의를 가다듬는다.<sup>64)</sup>



<사진 3> 「즐거운 윷놀이」,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최창일, 『로동신문』, 2003.1.23.

위의 『로동신문』 기사를 보면, 음력설에도 양력설과 같이 가족과 친척, 가까운 이웃이나 친지에게 세배를 드리는 것이 ‘고상한 민족적 풍습’으로 장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력설 명절의 아침에 세배를 드리는 명절 의례를 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연띠우기, 팽이치기, 썰매타기, 윷놀이 등의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 각종 떡과 지짐류, 수정과, 식혜 등의 민속음식, 세배를 포함한 다양한 음력설 세시를 행하였다.

음력설을 맞으며 평양시 녀성근로자들의 윷놀이경기가 진행되었다. 민족적흥취를 한가득 안겨준 윷놀이경기는 근로자들의 가슴 속에 우리의 정서, 우리의 풍습, 우리의 민속놀이가 제일이라는 사랑의 감정을 더더욱 뜨겁게 안겨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속놀이를 잘여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온 사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우는 데도 좋습니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시작된 평양시 녀성근로자들의 윷놀이 경기는 한달이 넘도록 유쾌하게 진행되었다. 평양시안의 각 구역들에서 선발된 수많은 녀성근로자들은 평양시에 즐기던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속놀이인 윷놀이에 대한 사랑과 자랑을 안고 경기장마다에 활기있고 명랑한 광경들을 펼쳐

64) 「세배의 기쁨」, 『로동신문』, 2015.2.19.

왔다. 량만적이고 정서적인 윗놀이는 음력설을 앞두고 부풀어오르는 관람자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이번 윗놀이경기에서 1등을 한 동대원구역안의 한 녀성근로자는 말하였다. <<우리 민속놀이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와 취미에 맞는 민속놀이들은 언제나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줍니다.>><sup>65)</sup>

전국학생소년들의 민속놀이경기가 음력설을 맞으며 26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시, 군과 도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정취한 학생소년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일성광장에서는 연피우기와 팽이치기, 제기차기경기가,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는 윗놀이경기가 학생소년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진행되었다. 학생소년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는 자기들의 명랑하고 씩씩한 모습을 경기마다에서 잘 보여주었다. <<선군>>, 《주체성》, <<민족성>, <최우등>>, <<지덕체>> 등의 글자들이 씌여진 비행기연, 로켓연, 봉화연, 네모연들에 푸른꿈  
○르 없고 연피우기 경기를 하는 학생 소년들의 모습은 오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군조선의 밝은 미래를 아름답게 그려보게 하였다. 제기오래차기, 제기재주경기도 팽이싸움, 팽이치면서 이어달리기경기도 윗놀이경기도 민속명절을 맞이하는 수도의 분위기를 한층 돋구어 주었다.…(중략)…<sup>66)</sup>

이 외에도 「설명절 아침에 있는 씨름경기」(『로동신문』, 2016.2.10.) 등의 기사를 보면, 음력설을 맞이하여 다양한 민속놀이·경기가 수도인 평양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인민문화궁전의 무대 공연”, “음력설을 맞으며 진행된 평양상표인쇄공장의 설맞이 공연”, “사리원시의 여러가지 설장식”, “개성시 자남동 주민들의 윗놀이, 장기경기”<sup>67)</sup> 등 북한 전역에서 다양한 행사와 공연, 민속놀이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음력설을 맞아 다양한 설날 음식(세찬)을 준비하였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기사들이 종종 등장하였다.

[설음식 몇가지]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설명절이 오면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친척들과 모여앉아 나누거나 찾아오는 이웃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전통으로 여겨왔다. 설날음식을 세찬이라고 하였다. 이날에는 특색있는 음식인 찰떡, 설기떡, 절편과 같은 떡과 여러 가지 지짐류, 당과류, 식혜 등을 마련하였다. 설명절에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이다. 특히 떡국과 만둣국은 설날음식으로서 빠져서는 안되는 것으로 여겨왔다. 떡국은 흰쌀가루를 찌서 긴 가래떡을 만들어 그것을 보기 좋게 썰어서 고기국에 넣어 끓인 것이다. 떡국은 꿩고기를 넣고 끓이는 것이 제격이었으나 없는 경우에는 닭고기를 넣고 끓이거나 일반국에 넣고도 끓이였다. 예로부터 전하여오는 《뽕대신닭》이라는 말은 이것을 녀두에 두고 이르는 말이었다. 설을 칠 때 반드시 떡국을 먹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떡국에 《나이를 더 먹는 떡》이

65) 「성황리에 진행된 윗놀이 경기」, 『로동신문』, 2004.1.22.

66) 「전국학생소년들의 민속놀이경기 진행」, 『로동신문』, 2006.1.30.

67) 「량만에 넘친 명절」, 허윤미, 『로동신문』, 2003.2.2.

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하였다.

만둣국은 서북조선일대에서 흔히 설음식으로 만들어 먹었다. 고기와 두부 또는 남새를 볶아서 만든 소를 넣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만두를 고기국에 넣고 끓이거나 노릇노릇하게 구워놓으면 보기도 좋고 먹기에도 좋았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아래 민족의 우수한 풍습은 오늘 우리 가정들과 봉사망들에 훌륭히 구현되어 설명절 분위기를 한껏 더 돋구어주고 있다. (본사기자)<sup>68)</sup>

설명절 아침 제일 바쁜 것은 가정의 주부들일 것이다. 떡국, 설기떡, 룡두지짐, 약과... 가정주부들은 다양한 민족음식들을 차리기 위해 여러날 전부터 품들여 음식감들을 마련하기도 한다. 동림군 읍 168 인민반 김성덕 로인의 집에도 쉼여절이면 며느리 김복순동무의 민족 음식솜씨로 꾸민 음식상이 차려지곤 한다. 흐뭇한 마음으로 음식상을 마주하여 김성덕 로인은 자식들에게 이야기한다. <<예로부터 설을 쇠어서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을 <떡국을 먹다.>라고 일러왔다. 모두 떡국이랑 설음식들을 맛있게 들고 나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길 바란다...>> 언제나 사회와 집단을 위해 몸뚱이는 김병호, 김복순 부부의 애국의 일과도 그렇게 설명절 아침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어찌 그들뿐이랴. 어느 가정에 가 보아도 우리 당이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민족의 향취속에 애국의 넋을 가다듬는 것이 내 나라의 아름다운 현실이 아니라.<sup>69)</sup>

위의 기사를 보면, 북한에서 음력설의 세시음식(세찬)으로 주로 꿩고기나 닭고기를 넣고 끓인 떡국, 서북조선일대에서 끓인 만둣국, 찰떡, 설기떡, 절편과 같은 떡, 여러 가지 지짐류, 당과류, 식혜 등을 주부들이 준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겨운 민속놀이로 설명절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  
-만경대구역 당상1동 42인민반에서- 본사기자 최홍성 촬영

<사진 4> 「웃음꽃을 피우는 민속놀이: 평성시 구월동 녀맹원들」, 『로동신문』, 2019.2.6.

2019년에 들어서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민족의 우수성을 살리고 민족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실현해나가는 참다운 인민의 조국, 민족자주의 조국이다.”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교시는 “환희와 행복속에 맞는 설명절”의 교시로 이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이 조상대대로 쇠어온 설명절을 크게 쇠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절을 잘 쇠는 것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귀중히 여

기고 윤희게 계승하여 오늘의 사회주의문화생활에 잘 구현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설명절에는 우리 인민의 민족전통과 고유한 풍습대로 명절분위기를 세우고 즐겁게 휴식하도

68) 「고유한 민족풍습을 살려나가자 - 올해의 음력설은 2월 5일」, 『로동신문』, 2000.2.2.

69) 「며느리의 음식솜씨」, 『로동신문』, 2015.2.19.

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sup>70)</sup>라고 하며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은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기 위해 “설명절을 의의깊게 쇠도록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는 이전의 김정일체제에서 강조한 ‘조선민족제일주의’에 따라 ‘민족적 전통을 계승하는 민속명절’로서의 음력설 전통을 계승하고자 한 것이고, 북한사회에서 음력설은 한 해의 가장 중요한 민속명절로서 급부상하게 되었다.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랑만에 넘쳐 맞은 우리 설명절: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누리는 행복 끝없어라」(글 본사기자 정영철, 사진 본사기자 리충성), 「천지호반에서의 설맞이: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에서」(특파기자 전철주)(『로동신문』, 2019.2.6.) 등의 최근 기사에서도 음력설을 맞은 북한사회의 활기찬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 2) 새로운 전통 민속명절로서 재창조된 정월대보름

북한에서 음력설의 부활은 자연스럽게 음력 정월 15일인 정월대보름의 부활로 이어지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북한 사회에서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집단주의·전체주의를 위한 정책적 기조는 북한의 대중들을 통합할 문화정책으로서 음력의 민속명절인 음력설과 정월대보름의 부활과 재창조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사회에서 양력과세보다 음력과세를 적극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2003년부터는 음력 정월대보름이 휴무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정월대보름은 음력의 정월 세시로서 새롭게 부활된 음력설과 더불어 새로운 전통 민속명절로 재창조되고 있었으며, 정월대보름의 세시에서는 ‘민속’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음력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에 관한 기사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의 『로동신문』 기사에서 “정월대보름명절을 맞으며 개천시 광복동마을들에도 이채로운 민속놀이풍경이 펼쳐졌다. 어느 인민반, 어느 가정에 가보아도 윷놀이, 장기 등 민속놀이로 밤 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의 밝은 얼굴들이다.”<sup>71)</sup>라고 보도한 내용을 볼 때, 북한에서 정월대보름이 민속 명절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로동신문』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민족의 경사스러운 2월 명절’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가족과 이웃들이 모여서 오곡밥과 9가지 마른나물 등 민족음식을 먹으며, 장기, 윷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한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70) 「환희와 행복속에 맞는 설명절」, 본사기자 허명숙, 『로동신문』, 2019.2.5.

71) 「이채로운 민속놀이」, 『로동신문』, 2004.2.5.

2000년대 이후 음력설에 관한 신문·잡지 기사의 수가 증대된 것에 비해 정월대보름 관련 기사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정월대보름에 ‘명절’이라는 용어를 붙이며 다양한 세시풍속을 행하는 모습을 자세히 전하고 있었다. 특히 오곡밥과 9가지 나물 먹기와 더불어 장기, 윷놀이, 단심줄놀이, 줄넘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연띄우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기는 명절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양 2월 15일밤 조선중앙통신】 각지 근로자들이 전통적인 민속명절 정월대보름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적 전통을 옹계 계승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성을 살려 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민족전통을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온정속에 커다란 희망과 포부를 안고 정월대보름을 맞이한 온 나라 각지 근로자들은 달맛이와 흥겨운 민속놀이를 펼치면서 명절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었다.

<민족적정서가 넘쳐나는 행복의 달맛이>

…2월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낸 해주항과 하성다이야공장에서는 민속명절을 즐기는 근로자들의 량만의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었다.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천지개벽을 이룩한 황해남도과 강원도, 평안북도, 평안남도의 협동농장들에서도 농장원들의 행복에 겨운 민속놀이가 있었다.

조국의 미래로 믿음직하게 자라나는 궁지속에 펼친 행복동이들의 연띄우기와 바람개비 돌리기, 썰매타기, 제기차기는 더욱 이채로왔다.

우리의 장단과 흥겨운 민요에 맞추어 춤물결을 펼치며 민속명절의 하루를 보내는 각계층 군중들과 학생소년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선군의 기치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 주시고 행복의 보금자리, 인민의 락원을 마련해 주신 백두의 령장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 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이 뜨겁게 어리어 있었다.

<민족료리로 이채를 띤 급양봉사망들>…<sup>72)</sup>

위의 2003년의 『로동신문』 기사에서 정월대보름은 ‘달맛이’와 ‘흥겨운 민속놀이’, 그리고 ‘전통적인 민족료리들’로 명절의 하루를 보냈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전통명절로서 정월대보름의 하루는 다음의 기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온 나라 인민이 민족대의 경상스러운 2월명절을 깊게 경축한 기쁨속에 17일 **민속명절 정월대보름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었다.** 수도 평양으로부터 조국의 북단 삼지연과 대흥단, 공업도시 함흥과 신의주, 해주와 개성에 이르기까지 방방곡곡은 근로자들의 청소년학생들, 어린이들의 명절맛이로 흥성이었다. 가족들과 이웃들이 모여앉아 오곡밥과 9가지 마른나물 등 민족음식도 들고 장기, 윷놀이를 비롯한 민속유희오락으로 흥을 돋구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당의 온정속에 해마다 대보름날을 의의깊게 보내는 행복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72) 「정월대보름명절을 맞이한 인민의 기쁨」, 『로동신문』, 2003.2.16.

각지의 급양봉사망들에도 사람들의 흐름이 그칠새 없었다. 수도의 근로자들은 옥류관, 청류관, 청광음식점거리식당들 등 봉사망들에서 꿩고기국수와 평양랭면, 오곡밥, 약밥, 녹두지짐과 같은 음식들을 들며 명절을 즐기었다. 사리원시 민속거리식당들을 비롯하여 특산물식봉사로 이채를 띤 각지의 봉사망들에서도 민족의 향취가 한껏 넘치었다. 이날 쟁반같은 보름달이 흰히 떠오르자 달맞이풍경이 곳곳에 펼쳐졌다. 수도의 모란봉과 대동강반에서 그리고 강계의 인풍루, 녕변의 약산동대, 사리원시 미곡, 강서구역 청산, 평원군 원화, 재령군 삼지강, 함주군 동봉리 등지에서 대보름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슴은 뜨거웠다. 명절을 보내며 그들은 우리 인민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려 올해에도 정초부터 현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민족적 전통을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면서 부강조국건설에 모든 것을 바쳐갈 결의를 가다듬었다.<sup>73)</sup>

위의 기사에서는 ‘민속명절 정월대보름’의 하루가 오곡밥과 9가지 마른나물 등의 민족음식을 가족과 이웃들이 서로 나누어 먹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민속유희오락’으로 가득차다고 하며, 사리원시 민속거리식당들의 정월대보름 풍경도 보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은 2008년에 황해북도 사리원시 조성된 민속거리에 대해 연설하며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정일은 음력설과 정월대보름의 민속명절의 부활과 재창조를 주장하고 나섰다고 볼 수 있다.

평양시에도 대성산지구에 사리원시 민속거리와 같은것을 하나 꾸려야 하겠습니까. 평양시에는 사리원시 민속거리 같은것을 꾸려놓은것이 없습니다. 대성산과 모란봉에는 력사유적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가기때문에 민속거리 같은것을 크게 꾸려놓는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사람뿐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아가갈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민속거리를 보여줄수 있습니다. 평양시에 민속거리를 꾸리라고 하였다것을 사회과학원에 알려주어야 하겠습니까.

민족문화유산들을 잘 보존관리하고 그것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슬기롭고 강의하며 총명하기때문에 인류력사발전의 려명기부터 훌륭한 문화를 창조하여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깃들어있는 력사문화유적들을 잘 보존관리하고 그것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애국심을 키워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옹기 살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심어 주어야 합니다.

력사유적유물들을 보존관리하는데서는 원상대로 보존관리해야 하지만 민족문화유산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는데서는 력사주의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옹기 결합시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방침입니다. 특히 건축물창조에서 민족적특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미감이 나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을 민족적특성을 살리면서 현대적미감이 나게 창조하여야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에 맞고 새 세기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건축물이 될수 있습니다.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허무주의와

73) 「즐겁게 맞이한 정월대보름명절」, 『로동신문』, 2011.2.18.

복고주의를 철저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이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역사주의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옳게 결합시키고 허무주의와 복고주의를 철저히 경계하였기때문에 선조들이 이룩한 우수한 민족문화가 로동당시대에 와서 우리 인민의 참다운 문화로 개화발전할수 있었습니다.

민속전통을 잘 살려나가야 합니다. 민속전통을 옳게 살려나가는데서 역사학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학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속들을 학술적으로 고증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민속음식, 민속유희, 민속레법을 비롯하여 선조들이 창조한 우수한 민속들을 우리 대에 모조리 찾아내고 시대적기감에 맞게 발전시켜 온 사회에 민족적향취가 더욱 흘러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사리원시 민속거리에 와서 좋은것을 많이 보았는데 기분이 좋습니다....<sup>74)</sup>

2008년에 사리원시 민속거리를 돌아보며 한 연설에서 김정일은 민족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민속전통을 계승하고 현시대에 맞게 재창조하는 새로운 민족적 전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김정일 체제에서 이처럼 강조되는 민족적 전통은 새롭게 부활된 음력설의 전통 세시풍속이 북한 사회에서 널리 확산되도록 하는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음력 정월대보름의 부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사리원시의 민속거리에 이제로운 설풍경이 걸쳐져 뜻깊은 설명절을 즐겁게 보내고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 하여야 사회주의위업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참다운 혁명위업으로 빌수 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명절로 되어온 설명절을 더 잘 쇠도록 온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명절분위기를 한껏 돋구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특히 도성년동명위원회와 도농근명위원회·도녀맹위원회를 비롯한 도안의 근로단체조직 등을 발동하여 시·군별 로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과 농악무경연, 민속놀이, 민족로리증정회, 민속웃자랑무대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하여 민속 절의 특색을 살리도록 하면서 도소재지한복관에 자리잡은 민속거리의 설풍경을 이채롭게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여러가지 특색있는 경축장식들로 이채를 떠는 민속거리의 설풍경이 설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의 이목을 더욱 끌었다. 민속거리의 한복관에 들어앉은 민속놀이장에서는 농근맹조직들에서 조직한 흥겨운 농악무경연이 진행되어 사람들의 흥취를 한껏 돋구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온정속에 설명절을 뜻깊게 보내며 사리원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의 보람찬 진군길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불같은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었다.<sup>75)</sup>

사리원시의 민속거리에서 벌어지는 다채로운 음력설 관련 행사와 민속놀이들은 주

74) 김정일, 「사리원시 민속거리는 우리 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민속전통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창조물이다」, 황해북도 사리원시 민속거리를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97(2008)년 12월 11일, 《김정일선집》(증보판) 제2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523-524쪽.

75) 「민속거리의 설풍경: 사리원시에서」, 『로동신문』, 2008.2.9.

체성과 민족성을 담지한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혁명 위업의 달성이라는 북한의 국가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북한 사회에서 사리원시 민속거리라는 새로운 ‘창조물’을 통해 대중들에게 ‘민족적 전통’이라는 의미가 부여된 ‘민속’을 확대 재생산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속성을 지닌 전통의 세시풍속은 대중들에게 실천의 의무를 부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 정책과 맞물리며 대중들을 통합시키는 새로운 세시 민속명절로서 음력설과 더불어 음력 정월대보름이 새로운 전통으로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에 대한 최근의 기사들에서는 주로 정월대보름의 달맞이 문화, 세시 놀이, 세시 음식에 대해 전하고 있다. 2017년 『로동신문』 기사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작은 보름인 음력 정월 14일 점심에 국수를 먹는 풍습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고,<sup>76)</sup> 2018년에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비긴 우리의 민속명절-정월대보름」, 「아름다워라, 내 조국의 달맞이여」,<sup>77)</sup> 「밝은 달을 바라보며」,<sup>78)</sup> 「명절음식마다에 어린 마음」<sup>79)</sup> 등의 기사에서 북한 주민의 달맞이 문화, 세시 음식 문화에 대해 자세히 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가정에서 마련한 낱알들과 9가지 마른나물로 지성을 다해 오곡밥과 한가지한가지 반찬을 만들 때의 기쁨은 정말 이룰데 없다고 하는 리정옥녀성의 말에는 긍지가 한껏 어려있었다. 정월대보름날은 물론 다른 민속명절날이면 동네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맛나는 민족음식들을 차려놓고 이웃들과 나누어먹으면서 즐겁게 지낸다고, 그 과정에 이웃들사이의 정은 더 두터워진다고 하는 그의 말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오랜 민족음식인 정월대보름 명절음식에는 새해에도 풍작이 들과 복이 찾아오며 건강하여 오래 살기를 바라는 등 우리 인민의 소박한 념원과 정서가 반영되어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우리 인민이 그토록 바라고바라던 소원은 로동당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실현되게 되었다. 우리 당에서는 정월대보름명절이 민족의 우수성을 고수하고 빛내이는 뜻깊은 날들중의 하나로 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었다.<sup>80)</sup>

위의 기사에서는 정월대보름의 명절음식과 ‘민족의 우수성’, ‘로동당의 은정’과 연관 지음으로써 북한 주민에게 새롭게 부여된 전통 명절의 의미를 사회주의 국가의 전통 명절로서 통합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단 여기 모란봉에서만이 아닌 내 조국 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우리 인민의 이 행복넘친 모습은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그것은 인민이 소원하고 인민을 위한 것이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고싶으시

76) 「이채롭고 즐거운 풍속: 대동강구역종합식당 동문국수집에서」, 『로동신문』, 2017.2.11.

77)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비긴 우리의 민속명절-정월대보름」, 「아름다워라, 내 조국의 달맞이여」, 본사기자 조향선, 『로동신문』, 2018.3.2.

78) 「밝은 달을 바라보며」, 유광진, 본사기자 최충성 찍음, 『로동신문』, 2018.3.2.

79) 「명절음식마다에 어린 마음」, 본사기자 김진옥, 『로동신문』, 2018.3.2.

80) 「명절음식마다에 어린 마음」, 본사기자 김진옥, 『로동신문』, 2018.3.2.

어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앞날은 밝고 행복은 나날이 커만 갈것이라는 신심이고 확신인것이다. 하기에 정월대보름날 밝은 달을 바라보는 우리 인민 모두의 심장은 오직 당만을 굳게 믿고 끝까지 한길을 가려는 철석의 신념으로 고통치고있는것 아니라.”<sup>81)</sup>라는 기사 내용에서도 정월대보름에 깃든 북한 주민들의 기원과 염원을 사회주의 국가의 이상과 염원으로 치환시키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로동당이 펼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진군해나가는 온 나라 인민이 민속명절 정월대보름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수도 평양으로부터 조국의 최북단 온성과 분계연선도시 개성에 이르기까지 방방곡곡 그 어디나 풍만한 민족적 정서로 차넘쳤으며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어린이들의 명절맞이로 흥성이었다. 수도와 지방의 여러곳에 걸쳐진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의 민속놀이는 명절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진 공원, 유원지들에서는 우리의 장단과 흥겨운 민요에 맞추어 춤판이 벌어지고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들에서는 옷놀이, 장기 등 민속유희오락으로 웃음소리가 그칠 새 없었다. 김일성광장, 개선문광장, 평양체육관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광장들은 따사로운 해님의 축복 속에 앞날의 역군으로 믿음직하게 자라나는 금지를 안고 학생소년들이 펼친 단심줄놀이, 줄넘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연띄우기로 더욱 이채로왔다. 기쁨과 량만에 넘쳐 민속명절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각계층 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시고 열화같은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전설들을 끊임없이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감사의 정이 뜨겁게 어리여있었다. 이날 집집마다에서 가족들과 이웃들이 모여앉아 오곡밥과 9가지 마른나물을 비롯한 전통적인 민족음식을 들면서 명절을 즐기었다. 수도의 옥류관과 청류관, 사리원시 민속거리의 식당들, 함흥의 신흥관, 해주의 옥계각을 비롯한 각지의 봉사망들에서는 평양랭면, 약밥, 흑두지짐 등을 봉사하여 기쁨을 더해주었다. 즐거운 하루가 저물어 쟁반같은 보름달이 환히 떠오르자 수도의 모란봉과 대동강반, 각지의 명승지들, 당의 은정속에 멧쟁이 선경거리로 일떠선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조국의 북변천리에 솟아난 사회주의 새 거리, 새 마을 등 곳곳에서 달맞이풍경이 펼쳐졌다. 새해에 불어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던 평양가방공장, 류경김치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궁궐같은 로동자 합숙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합송생들을 비롯하여 대보름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슴가슴은 로동당세월 속에 사회주의만복을 누려가는 끝없는 기쁨으로 후더워올랐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드시어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이 땅에 만복의 열매를 주렁지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고 주체의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울 한결같은 념원이 그들모두의 마음속에 깃들었다.<sup>82)</sup>

위의 기사에서 전하는 ‘민족적 정서로 넘치는’ 정월대보름의 명절 문화는 북한의 다양한 주민들이 모여서 전통적인 민족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다양한 민속놀이를 하고

81) 「밝은 달을 바라보며」, 유광진, 본사기자 최충성 찍음, 『로동신문』, 2018.3.2.

82) 「광명한 미래를 확신하며 맞이한 정월대보름」, 『로동신문』, 2017.2.12.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달맞이를 행하는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다. 북한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어린이들, 가족들과 이웃들을 포함한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북한의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행하는 정월대보름의 명절 세시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롭게 부활·재창조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를 통합하는 전통 명절문화를 형성해가고 있다.

## V. 북한의 조선민족제일주의와 단오, 청명, 추석의 명절문화

권혁희(강원대)

### 1. 단오, 한식, 청명 중 조선 고유의 명절은 무엇인가?

북한의 명절문화에 대한 설명과 분석은 어떤 자료를 어떠한 연구관점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자료접근의 한계와 현지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 외에도 공식과 비공식적인 자료들의 무분별한 유통, 탈북자들의 구술조사에서도 일관적이지 않는 설명들은 북한 주민들의 명절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명절문화는 지역과 세대, 성별간 차이는 물론 도시와 농촌, 직장과 직업에 따른 차이는 물론 2000년대 전후 시기 시장화 현상 등 사회변화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경험되고 있어서 균질적인 문화현상으로 포착하기 쉽지 않다.

이와 같이 북한 사람들의 생활세계에서 경험되는 차원들을 정형화해서 포착하기 어려운 반면, 공식적인 문헌들을 통해 이해되는 북한 명절문화는 비교적 일관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명절문화를 통치이념과 정책의 기초를 통해 설명되거나 체제유지와 연동되는 차원과 주민들의 주기적인 생활문화 혹은 과거로부터 해왔던 전승문화로서 설명되는 측면을 구분하여 전자를 우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양자는 분리되어 있기 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혼성화된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 체제에서 요구되는 방식과 전혀 다른 생활양식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명절을 정권과 이와 연관되는 학문적 담론의 창출 그리고 이것의 사회적 실천을 자료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북한체제에서 전통 명절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실행되는 시점은 1980년대 후반이다. 그 이전에도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확산과 봉건적인 생활관습의 철폐 등 사회주의적 근대화 프로젝트에 부합되는 정책들 속에서도 민족주의에 대한 강조를 통해 조선 고유문화와 주체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은 1970년대 이후 견지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속에서 북한은 민족의 우월성을 토대로 하는 조선민족제일주의를 통해 독자적인 생존의 이념을 창출해내기 시작한다. 이른바 1986년 김정일에 의해 주창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체제 위기 속에서 전통문화 전반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민족전통을 강조하면서, 명절을 부활시키고 전통 옷과 음식, 역사적 유적의 복원을 비롯해 민족을 상위에 둔 새로운 지배담론의 강화가 전면화된다. 추석이 가장 먼저 부활되었으며, 1989년에는 음력설과 단오, 한식이 부활되어 4대 명절로 지정되기에 이른다.<sup>83)</sup>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이념으로서 그리고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대응한 체제수호와 연관되고 있음은 1989년 김정일에 의한 담화에서 선명하게 나타난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어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입니다.(중략)우리 인민이 지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입니다. 자주길로 나가는 민족의 운명은 노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개척됩니다. 위대한 수령을모셔야 민족이 나아갈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지도사상을 가지게 되고 민족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습니다. 민족의 가장 큰 행복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탓으로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민족의 자주권마저 빼앗기고 망국노의 쓰라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에만 인민대중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있으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민족으로 될 수 있습니다.<sup>84)</sup>

1989년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출현은 전통문화에 있어 전면적인 부활과 고대 유적과 사적지의 복구를 통해 북한 사회주의 역사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의미하고 있다. 전통 명절의 전면적인 복원과 조선 고유의 민속놀이와 민요, 의복과 음식의 강조 속에서 음력설에서 추석으로 이어지는 일년의 명절세시는 공식적으로 복원되어 달력에 표시되기에 이른다. 동시에 각 기관과 학교를 비롯해 공장과 농장단위의 집단에서 명절을 쇠게 됨으로써 인민들의 일상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사실상 기계적인 탑다운 방식처럼 보이나 사실 북한 주민들의 일부는 달력에 있는 명절에 상관없이 음력설이나 단오, 한식, 추석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정권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진흥, 실제 주민들의 생활문화 간에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권에 의해 야심차게 복원된 한식과 단오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조선민족 고유성을 갖지 못한 명절로 이후에는 제외되고 청명과 정월대보름으로 교체되기도 했다. 특히, 2005년에 남한에서 강릉단오제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서 중국과 기원과 원조논쟁이 있자 북한에서는 이를 중국 명절로 간주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식의 경우 중국의 춘추시대에 유래한 고사를 근거로 하며, 단오는 초나라

83)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403호, 1998.10.05. ;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379호, 1998.04.22.

84)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89년 12월 28일.

시기에 유래한 고사를 근거로 하며 중국 고유의 명절로 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명의 경우는 24절기 중 하나로 음력으로는 3월에, 양력으로는 4월 5~6일 무렵인데, 태양의 황경(黃經)이 15도에 있을 때로 한식(寒食) 하루 전날이거나 같은 날일 수 있어 뚜렷한 구분 없이 전해지고 있다.<sup>85)</sup> 북한에서 청명 역시 한식을 대체한 날로 간주되어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유명절로 창출되었으며 북한주민들에게는 한식과 거의 구분없는 날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24절기 역시 중국에서 만든 시간체계로 청명도 중국에서 연원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특정한 인물과 관련된 고사가 문헌기록으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유명절로 간주되고 있다. 이로써, 기존 4대 명절에 설, 한식, 단오, 추석 체제에서 단오와 한식이 제외되자 정월대보름과 청명이 추가된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명절문화의 고유성과 전통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인 것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탐다운 방식으로 하달되며, 여기에는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이념적 노선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위 사상감정의 발현은 제국주의에 대응한 식민지의 경험과 전쟁, 그리고 지상 유일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역사적 내러티브와 동조되어 인민의 생활 속에서 순환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단오는 정권에 의해 고유의 명절로 공식화되었다가 다시 외래문화로 주변화되었지만, 추석이 그러하듯이 조상의례와 관련된 주민의 명절쇠기 문화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령, 공장 노동자가 달력에 휴일은 아니지만 조상묘를 다녀오고자 관리자에게 이야기하고 명절을 쇠는 방식이다. 한식은 청명과 거의 겹치는 날인 만큼 공식문헌에서는 청명을 주민들은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단오의 창출과 재현 그리고 조상의례로서 청명과 추석의 의미가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위한 정책으로 어떻게 진화해 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2. 단오의 창출과 조선민족제일주의

1910년~1930년대 일제시기 신문자료를 살펴보면 평양을 비롯한 북한 지역에서 단오는 중요한 명절로 간주되었다. 특히, 평양의 단오는 도시축제의 형태를 가진 연중행사로 알려졌으며, 서울에서 평양 단오 관광단이 관광을 갈 정도로 3일간 노는 명절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해방과 6.25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적 근대화 과정 속에서 양력설의 공식화를 제외한 나머지 명절들은 점점 주변화시켜 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물

85) 『한국세시풍속사전』, “청명(淸明)”, 네이버 백과사전 참고.

론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단오, 한식, 추석 등의 명절을 전혀 쇠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에 이르는 시기 북한 일반 농민들의 생활세계는 기존 명절문화의 관습을 유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봉건적 요소로 간주되는 조상의례 역시 일정하게 유지해왔으며 1972년 남북교류 이후 조상성묘 등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계기로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이러한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관련된 명절문화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단오와 관련된 명절 풍속 소개나 혁명역사 속에서 단오의 의미 등이 부각되기도 한다. 특히,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사회적 실천으로서 명절의 창출은 혁명역사와의 동조 속에서 체제유지의 이념으로서 발현되고 있다. 다음 기사와 같이 김일성의 항일투쟁 역사적 순간에 즐겼던 단오명절 놀이에 대한 회고는 혁명적 낭만과 민족주의를 고조해주는 서사로 나타난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사의 갈피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십년이 지난 후에도 잊지 못해 하신 옥돌골 단오명절놀이 이야기도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옥돌골에서 1939년 단오날에 벌린 축구경기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중략) 단오날 유격대원들은 거기다 골문을 세워 놓고 축구경기를 하였다. 적들이 화룡일대에 쏘한 <토벌> 무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때에 그 한복판에서 여유작작하게 명절놀이를 하면서 축구경기까지 벌렸다는 소문이 퍼지면 몇 번의 전투나 몇 백마디의 연설로써도 얻을 수 없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적구에서의 축구경기는 이렇게 또하나의 독특한 정치사업이었다. 혁명군과 마을청년들사이의 축구경기가 아주 불만하였다. (중략) 그네경기와 씨름경기도 대성황이었고 군민합동오락회와 연예공연도 재창, 삼청의 련발로 예정시간을 훨씬 초과하였다. 마을사람들은 단오놀이를 조직해주신 백두산 청년장군 김일성동지께 뜨거운 감사를 표시하였고 수십명의 청년들이 참군을 탄원해나섰다. 옥돌골에서의 단오명절놀이는 이렇게 하나의 큰 전투를 승리적으로 치른거소가 맞먹는 커다란 정치적 성과를 거두었다. 옥돌골단오명절놀이는 정세가 준엄하고 어려울수록 락관에 넘쳐 량만적으로 생활하고 투쟁하는데 혁명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뜻 깊게 새겨 주었다. 우리 인민은 오늘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언제나 항일전의 그때처럼 필승의 락관에 넘쳐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기어이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완성해 갈 불 타는 신념을 가다듬으며 올해의 단오명절을 더욱 즐겁게 쇠고 있다.<sup>86)</sup>

무엇보다도, 1989년 4대 명절로 공식화된 단오의 경우는 1990년대 이후부터 신문, 방송을 통해 자주 등장하게 된다. 1994년의 경우에는, 각 명승지에서 근로자들이 널뛰기, 그네뛰기, 윷놀이, 장기 경기를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점심시간에는 썩떡과 부루쌈 등 준비해 온 옛날 음식들을 먹으며 즐겼는데 이러한 명절놀이는 김정일의 민속명절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도하고 있다.<sup>87)</sup>

86) 백룡, 「옥돌골에서의 단오명절놀이」, 『로동신문』, 2000.6.6.

87)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181호, 1994.6.13.

1996년 단오절 관련 보도에서도 단옷날을 휴식일로 정하고 ‘온 나라가 흥성거리도록 이끌어주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협동농장의 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민속놀이로 단오명절을 즐겁게 보내고 있으며 가정주부들은 썩떡, 설기떡 등 ‘여러 가지 민속 음식을 자식들에게 성의껏 해주고 우리민족의 유구한 역사 등에 대해 이야기해 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sup>88)</sup>

또한, 1998년 5월 31일 조선중앙방송의 보도에 나타난 단옷날의 풍경은 과거 1910년대~1920년대를 연상케 하는 광경이 펼쳐진다. 당시 보도에 의하면, 민속명절인 단오를 맞아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명산과 유원지, 공원을 찾아가 민속놀이와 유희오락경기 등을 즐겼다고 한다. 특히 ‘각지의 유원지 등에서 신심과 낙관에 넘쳐 근로자들·청소년 학생들이 각종 유희시설을 이용하였다’고 하면서 평양에서는 대성산 유원지·모란봉·만경대 유희장·쑥섬에서 춤과 노래, 민속놀이, 오락경기 등을 하였고 원산과 개성을 비롯한 사리원 등지에서는 정방산·송도원유원지·박연폭포에서 그네뛰기·씨름·웃놀이·봉산탈춤의 민속놀이와 체육오락 경기를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sup>89)</sup> 여기서 평양의 모란봉은 을밀대 등의 정자가 있는 곳으로 과거 단오를 즐겼던 주된 장소이기도 하다.<sup>90)</sup>

다음 노동신문의 보도에서 단오는 즐거운 명절로 묘사하고 평양의 명소에서 가족과 즐기는 내용은 마치 일제시기 3일동안 놀고먹는 명절과 같은 호황을 연상시킨다.

지난 6월 3일 저녁 모란봉구역 흥부동 16인민반의 럽순녀 동무의 가정의 창가에서는 밝은 불빛과 함께 유쾌한 <다툼소리>가 흘러나왔다. 수리날을 하루 앞둔 저녁인데 그때까지도 명절날 휴식일정을 짜지 못했던 것이다. 세대주 손봉진동무는 수리날의 가족휴식 장소로서는 대성산이 제격이라고 하고 안해는 시어머니와 함께 즐겨 찾곤 하던 모란봉이 좋다고 고집하는데 만딸 정금이는 청류벽을 감돌아 흐르는 대동강풍치를 북마할수 있는 룡라도에 할머니를 모시고 가자고 주장한다.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막내아들 철룡이도 지지않고 만경대 유희장으로 가자고 하면서 할머니에게 매여 말렸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들의 행복 넘친 <승벽내기>를 바라보는 할머니 리금순 녀성의 눈가에 기쁨이 한껏 어리었다. 민족문화가 찬란히 꽃 피는 생활속에서 끝없이 무르익는 인민의 행복이 그대로 가정의 즐거운 명절일정에도 깃들여 있는 것이 아닌가. 나라의 주인이 되지 못한 탓에 설음만이 더해 주던 지난날의 수리날을 잊을 수 없어서인가. 이 땅에 명승지는 많았어도 인민이 즐길 자리는 정녕 없어 설음에 눈물 짓던 그 세월을 다시는 되풀이할수 없기에 행복의 웃음속에서도 귀중한 이 제도, 이 생활을 끝까지 지켜갈 맹세를 말없이 다지는 한 가정의 저녁이었다. 민속명절도 인민의 명절로, 명승지도 인민의 명승지로 된 이 당에서는 산도 강도 바다도 기쁨도 가득 안고 어서 오라 인민들을 부르고 있으니 밤 늦도록 명절놀이

88)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285호, 1996.6.20.

89)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385호, 1998.5.30.

90) 1990년대 단오 관련 북한 방송의 보도 내용은 권혁희, “20세기 북한지역 단오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 민속학』62, 2015, 167-168쪽 참고해서 재수정.

장소를 고르는것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91)

단오의 대표적인 세시풍속인 씨름 역시 전국적인 규모로 부활되어 경기를 치르고 황소를 수상하는 전통의 재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명절이 인민들의 정서생활과 민속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 지도자의 은덕임을 상기시킨다. 여기서 단오 때 시행되었던 ‘대항소상’ 전국근로자 씨름대회는 단오가 중국 명절로 규정되어 공식적인 고유명절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자 추적으로 옮기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민속이 이데올로기적 필요에 따라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 기사에서 보여지는 사회주의에서 민속발전의 개념은 사회에 유용한 정치적 동력으로서 민속이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수도 평양에서는 수리날을 맞으며 제2차 <대항소상> 전국근로자들의 텔레비죤민족씨름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화정서생활은 오직 광범한 인민대중이 주인이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활짝 꽃피날 수 있으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높아집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전국도처에서 모여온 씨름애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차 ‘대항소상’ 전국근로자들의 텔레비죤민족씨름경기 예선경기단계가 진행되었다. 비교씨름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이번 경기에는 이미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평안북도의 리정철선수를 비롯한 씨름명수들과 함께 경기참가를 희망하는 전국의 수많은 씨름애호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그런 것으로 이번 경기는 시종일관 관중들속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결승경기가 진행되는 수리날에는 1등한 최우수선수에게 송암명기소목장의 대항소와 함께 금소방울이 시상되게 된다. (중략) 언제나 우리 인민들의 정서생활과 민속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번에도 또다시 수리날을 맞으며 진행되게 될 텔레비죤민족씨름경기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핌과 크나큰 은정 속에 대성황을 이루고 있는 제2차 ‘대항소상’ 전국근로자들의 텔레비죤민족씨름경기! 이 경기의 최우수선수, 금소방울의 ‘주인’은 과연 누가 될것인가. 온 나라 인민이 지켜본다. 날로 꽃피는 우리의 정서생활과 아름다운 문화를 한껏 자랑하며 평양의 하늘가에 가득 울려퍼질 금소방울소리는 얼마나 흥취날 것인가.92)

로동신문기사 뿐만 고유문화로서 단오를 묘사하는 문헌에서는 전통문화가 현대 사회에서도 전승되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의 단오의 새로운 모습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난다. 단옷날에 협동농장을 단위로 과거에 먹었던 전통음식을 즐기는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자료는 2006년 남한과 공동으로 간행된 북한의 『조선향토대백과』에도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93) 여기서 단오에

91) 「즐거운 명절계획」, 『로동신문』, 2003.6.4.

92) 박옥경,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대항소상’ 민족씨름경기」, 『로동신문』, 2004.6.22.

93) 북한은 일찍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민속을 집대성하려 노력해 사회과학원 산하에 민속학연구소를 설

대한 기술을 살펴보면, 단옷날 협동농장들에서는 마을 또는 농장 단위로 그넛줄을 메고 씨름판도 마련했다고 한다. 또한, 도시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공원이나 유원지에 놀이터를 잡아 그네와 씨름을 하고 과거 정초에만 놀던 널뛰기, 줄다리기, 윷놀이도 하면서 즐겁게 보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협동농장과 공장,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농장원들, 가족들이 한곳에 모인 가운데 그네, 씨름에 훌륭한 솜씨를 보인 사람들에게 적당한 시상을 하며, 민족경기뿐 가정들에서 음식도 차려놓고 푸짐하게 먹고 마시며 하루를 즐기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94)</sup>

다음 기사와 같이 다양한 절기음식을 즐기고 나누는 명절로서의 면모와 당국의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열린 민족음식료리경연 대회를 통해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사회적 실천의 면모를 보여준다.

우리 나라와 중국, 일본 등지서 즐기는 여름철 민속명절. 우리 나라에서는 단오를 수리날이라고도 하였다. 수리날이라고 한 것은 수리가 달구지 즉 수레를 의미하는것이고 이날 새로 돌아난 썩과 수리취를 뜯어다 만든 썩떡과 수리취떡을 수레바퀴모양으로 둥글게 빚어서 먹었기 때문이다. 음력 5월의 첫 5일에 해당하는 단오는 옛날사람들이 흙수의 달과 날이 같은 수로 겹치는 것을 중요시한데서 명절로 정해진 것이다. 옛기록에 의하면...(중략) 평양 지방에서는 썩떡과 함께 설기떡, 상화떡, 송기떡 등 여러 가지 떡을 특색있게 만들어먹었다. 또한 이날 여러 가지 즐거운 민속놀이들도 진행되었다. 그가운데서 씨름과 그네뛰기는 빼놓을수 없을 정도로 중요시되었고 어디서나 다 진행되었다...(중략)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민속명절을 즐겁게 지낼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단오가 시대적 요구에 맞게 민속명절로 계승발전되고 있으며 이날에 여러 가지 즐거운 민속놀이들도 진행되고 있다.<sup>95)</sup>

수리날을 앞두고 성간군 안의 녀성들의 민족음식료리경연이 열렸다. 예로부터 내려 오는 수리날음식들이 경연탁을 가득 채웠다. 제손으로 가꾼 낱알로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온 70고령의 박현선할머니며 맛도 모양도 기막힌 여러 가지 썩떡을 만들어 경연에 내놓은 김순녀동무, 감칠맛 있는 갖가지 산나물김치를 만들어 온 서금순 동무 등 누구라 할것없이 경연참가자 모두가 기쁨과 자랑에 휩싸여 있었다. 민족음식으로 우리 생활을 더욱 아름답고 풍만하게 꾸려 나갈줄 아는 자강땅주부들의 알뜰한 음식솜씨, 뜨거운 민족애, 고상한 민족적정서에 심사원들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자강땅만 아닌 이 땅 곳곳의 모든 가정들에서 내나라, 내 민족의 고유한 향기가 날로 더욱 한껏 풍기고 있다. 자기의것을 제일 사랑하는 우리 인민에 의하여 내 나라 민족문화의 화원은 길이 만발할 것이다.<sup>96)</sup>

---

치하고 1949년부터 1968년까지 민속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선향토대백과’는 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여기에는 세시풍속이 여러 장에 걸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사실, 이 자료들은 1966년 착수되어 1996년 완간된 자료로 알려져 있는데 전통명절에 대한 기술은 4대 명절이 지정된 이후인 1990년대에 기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http://www.cybernk.net>, 2015.8.3.).

94)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향토대백과』 18, 평화문제연구소, 2006, 544쪽.

95) 『조선향토대백과사전』 제6권, 1998년, 39쪽, ‘단오’ 중.

96) 허윤미, 「우리의 것이 제일로 좋아」, 『로동신문』, 2003.6.4.

한편, 단오가 공식적인 명절로서 사라지는 2005년 경이지만, 북한이 밝힌 단오폐지의 사유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2005년은 남한이 강릉단오제를 두고 중국과 대립하던 시기였던 점을 상기하면 고유문화로서의 단오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지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인 규모의 경연대회와 선전활동을 갑자기 중단하고 대체 명절 선정하기 위해 점차 중국명절을 상기시키는 작업이 진행되며 2010년 전후 무렵에는 단오 명절을 지내지 말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오 명절을 지내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17년 양강일보사의 보도에 의하면 단오를 우리 민속명절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김형직군 라죽협동농장의 한 농장원이 단옷날에 조상묘에 제사를 지낸 후 술을 마시고 출근까지 하지 않았다”는 사례와 단옷날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과 친척, 형제들이 모여 들놀이를 하는 현상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단오를 쇠는 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고 미쳐 날뛰는 적들을 도와주는 이적행위”라고까지 표현했다. 또한 미신행위와 관련하여 ‘갑산군 오일군에 사는 한 농장원과 어느 기업소의 노동자가 “단옷날에 피칠을 하고 집수리를 하면 집안일이 잘 된다”고 하면서 집에서 기르던 닭을 잡아먹거나 닭의 피를 목재 부위에 바르고 집수리’를 한 사례를 소개했다.<sup>97)</sup>

이러한 자료는 단오가 공식적인 명절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의 생활 특히, 조상의례와 관련되거나 민간신앙의 차원에서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단오의 조상의례는 청명과 추석으로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3. 청명과 추석을 통해 본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진화

단오가 놀이와 휴식, 절기 음식으로 표상되는 명절이라면 한식(청명)과 추석은 조상의례가 주가 되는 명절이다. 물론 추석 역시 조상의례를 하고 술과 음식을 친척끼리 나눠먹으로 즐기기도 하지만, 조상의례의 의무감과 비중이 비교적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시하다시피, 한식과 청명은 둘 다 양력 4월 5일~6일에 들어 해에 따라 같은 날이거나 하루 차이밖에 나지 않는 명절들이다. 이날의 활동은 주로 조상의례와 관련되어 있다. 한식에는 산소에 성묘를 가고, 청명에는 ‘손이 없다’하여 이장(移葬)이나 묘자리 수리 등의 활동을 한다. 그러나 공식문헌에서 한식이나 청명에 관한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서 한식이 중국의 명절로 치부되어 전혀

97) 양강일보사, “우리의 민속명절이 아닌 단오를 쇠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자”, 『양강일보사』, 정치사업자료, 2017. 7월(『데일리NK』, “中서 유래된 단오 민속명절 아냐…철저히 쇠지 말아야”, 2017.10.25.일자 기사 참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탈북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청명을 한식과 구분하기 보다는 한식이 청명이거나 같은 날로 설명하기도 한다. 공식문헌에서 한식이 단오와 함께 사라지면서 청명이 가끔 언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에게는 조상의례와 연관된 명절로서 수용되고 있다. 북한의 문헌에서도 이런 점이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청명은 ‘하늘이 점차 맑아지고 맑은 날씨가 시작되는 때’라는 뜻으로 해마다 양력 4월 4~5일경에 든다. 청명은 오랜시기 천문기상학에서 이룩한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지구가 태양주위를 도는 자기길을 따라 중심각이 15도 되게 나눈 24개의 점에 각각 밤과 낮의 길이, 4계절의 시작, 추위와 더위의 정도, 눈비내리는 시기, 생물의 소생, 농사철 등에 따라 하늘의 맑은 정도를 나타낸 절기이다...(중략) 특히 우리 조상들은 청명날이 오면 조상의 무덤을 돌보거나 묘를 옮기는 일을 하였다. 이날 사람들은 산에 올라 겨울난 조상의 무덤에 잔디도 입히고 겨우내 낮아진 봉분에 흙을 얹어주면서 정성껏 손질하고 조상에 대한 조의를 표시하였다. 또한 이대에 묘를 다른 곳으로 옮겨쓰기도 하였는데 이것을 ‘천묘’ 또는 ‘이장’, ‘개장’이라고 하였다.<sup>98)</sup>

정월명절이 지난 평양에서는 조상들의 무덤을 찾아보는 청명날을 절기명절로 맞이하였다. (중략) 년중 날씨가 따뜻하고 맑은 봄철의 절기인 청명은 사람들의 생활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민속명절의 하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청명을 명절로 맞이한 것은 매우 오래전부터이다. 발해사람 왕정균이 타향에서 청명을 맞으니 고향생각이 간절하다고 읊은 시는 발해에서 이미 청명을 명절로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청명날의 명절풍습에서 중요한 것은 조상의 무덤을 찾아 성묘하거나 묘를 옮기는 것이었다. 우리 인민들이 청명날에 겨우내 얼었다가 녹은 무덤을 손질하거나 묘를 다른 곳으로 옮겨쓰는 풍습을 오래동안 지켜온 것은 선조들을 잊지 않는 도덕의리심과 함께 집안의 안녕과 한해농사의 풍작을 바라는 의식이 적지 않게 작용한것과 관련되어있다. (중략) 청명날의 명절풍습에서 중요한 것이 조상의 무덤을 찾아 성묘를 하는 것이었으나 농촌에서는 이날이 새해 농사일을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였다. (중략) 이처럼 청명은 가을에 접어들면서 한해농사의 결속을 앞두고 햇곡식으로 음식을 지어 조상들에게 지성을 표시한 추석(한가위)과 함께 조상의 묘를 찾아 손질하는 우리 인민의 미풍양속이 깃들어있는 날이었다.<sup>99)</sup>

옛날에는 청명을 계기로 불씨를 나누어주는 풍습도 있었는데 이것을 사화풍습(불씨를 나누어주는 풍습) 또는 송화풍습(불을 칭송하는 풍습)이라고도 하였다. (중략) 우리 나라에서 청명날의 사화풍습과 관련한 기록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력사책에 처음 보이지만 그 연원은 매우 오랜 것으로 볼수 있다. 봉건사회에서 이러한 사화는 관청이나 봉건통치배들에게 한한것이였고 일반가정에서는 불을 죽이지 않기 위하여 밥을 지은 다음 아궁의 불씨를 모아 더운재로 눌러 덮어 보관하거나 화로에 불을 담아 보관하기도 하였다.<sup>100)</sup>

98) 「청명과 민속」, 『천리마』, 2009년 4호, 104-105쪽.

99) 조광, 『평양의 민속』, 외국문출판사, 2016, 121-123쪽.

100) 계승무, 『24절기와 조선의 민속』, 외국문출판사, 2016년, 33쪽.

위와 같이, 청명은 조상묘를 돌보는 명절로서 그리고 농사를 시작하는 절기로서 묘사된다. 여기서 한식을 대체한 청명에 대한 묘사는 중국 고사의 인물이 아닌 발해사람이 지은 시에서 실증자료를 인용함으로써 조선 고유의 명절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청명의 불씨 나누기 풍습을 두고 봉건통치배들에 한한 것으로 규정하고 일반가정의 풍습과 비교함으로써 ‘계급적 입장’에 근거한 민속의 활용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외 청명은 추석과의 비교를 통해 조상의례를 위한 명절로서의 의미를 드러낸다. 추석이 추수한 곡식으로 조상의례를 하는 명절이라면 청명은 한해 농사의 풍작을 바라는 조상의례를 하는 날로서 비교함으로써 두 명절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문헌에서 청명은 조상의례의 풍속과 농사를 시작하는 절기로서의 의미에 한정되어 서술되고 있으며, 추출되는 문헌의 양도 적은 편이다.

따라서, 청명은 단오와 한식이 고유명절로서 명문을 잃고 그 대체로 나타나 24절기 중 하나이자 4대 명절 중 하나로 자리잡기 시작한다. 매장문화가 일반화된 북한에서 조상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일은 추석이 명절로서 복권되는 1986년 이전에도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봉건적 유습으로 제한되어 비사회주의적 생활양식으로 규정되었지만 1970년대 이미 비공식적으로 허용될 정도로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허례허식으로 음식을 낭비하는 제사상 차리기를 제한하고 꽃을 헌화하고 절 대신 묵념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공식적인 방송과 신문 보도에서 재현되는 방식이지 실제 인민의 방식과는 맞지 않다. 곧 사회주의 생활양식으로 표명되는 근대적 계몽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문화로서 조상의례 관습을 북한 정권 내내 막지 못했음은 여러 설명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추석이 공식명절로 휴일화된 이후 분명한 변화는 조상묘를 찾는 것을 권장하는 수준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추석에 대한 역사적 연원과 의미, 먹는 음식에 대한 소개 등을 비롯해 조상의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계승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아래 신문보도와 같이 당의 후원과 지도 속에 노동자들도 조상묘를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사례를 통해 명절문화의 창출 과정에 노동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에 쇠는 민속명절로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가을철의 큰 명절이다. 추석이란 가을저녁이라는 뜻이며 오곡백과 무르익는 좋은 계절인 가을철의 달밝은 8월보름을 명절로 즐긴데서 생긴 이름이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우리 선조들은 삼국시기에 이미... (중략) 추석날에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 벌초도 하고 제사를 지낸것은 후손들이 자기의 조상을 못잊어하는 인연관계 의한 의례적인 것이였다...(중략) 이처럼 지난날의 추석명절은 근로인민들이 자기 조상무덤을 돌아보며 한해농사에서 이룩한 로력의 열매를 기쁨으로 즐기는 명절이였다. 추석을 명절로 쇠는 풍습은 오늘도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승되고있다.<sup>101)</sup>

지난 추석날 이른아침이었다. 순천구두공장 공무직장 노동자 양동무의 합숙호실문을 열고 초급당비서 신정숙동무가 웃으며 들어섰다. 의아한 눈길로 초급당비서를 맞이한 그에게 신정숙동무는 들고온 꾸레미를 넘겨주며 말했다. ‘오늘은 추석인데 부모님들의 묘소를 찾아가보세요.’ 순간 양동무는 뜨거운 것이 목에 딱 차올랐다. 그는 몇해 전에 부모를 잃고 합숙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자기에게 친어머니의 사랑을 기울여 늘 보살펴주는 초급당비서의 진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그였다...(중략) 부모의 묘앞에서 양동무는 어머니를 불렀다. 하지만 그것은 돌아간 부모에 대한 그리움에서만 오는 부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나 다름없는 인정깊고 다심한 한 당일군의 모습에서 느낀 어머니 우리 당의 은혜로움에 대한 감사의 정에 넘친 외침이었다.<sup>102)</sup>

이 외에도 민족의 대명절로서 추석의 의미는 1990년대 이후 정착되어 문헌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신문을 비롯해, 천리마와 조선녀성과 민족문화유산과 같은 잡지를 통해 추석의 정치, 문화적 의미화가 재생산되고 있다. 가령, 추석이 조상의례를 위한 명절인 것에 착안해 집단적으로 혁명열사능을 참배하는 문화를 창출해내기도 했다. 추석에 조상 묘소를 찾듯 혁명열사능 방문을 독려하여 혁명역사의 전사들을 기념하는 국가적인 기념일로서 추석의 의미를 동조시키고 있다. 나아가 혁명역사와 동조되는 추석의 에피소드는 일제 시대를 민족적 억압의 시대로 재현하며 항일무장 투쟁의 역사를 혼입시킴으로써 총대로 결사옹위하는 체제수호의 담론으로 환류시키고 있다.

년년이 찾아 오는 추석명절이건만 올해의 추석을 맞은 우리 인민의 마음은 다르다. 민족사에 특기할 올해의 사변들을 되새겨 보며, 오늘을 위해 당과 수령께 충성을 다한 혁명선열들과 선배들, 먼저 간 이들을 추억하며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우리 인민이다...(중략) 꽃송이를 안고 대성산혁명렬사릉으로, 애국렬사릉으로 향하는 사람들, 조상들과 동지들의 묘소를 찾는 사람들, 민족전통을 장려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 온 우리 당의 은정속에 추석을 맞은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생겨 난 많은 특별로선들로 뺨스들이 경쾌하게 달리고 특색 있는 명절단장을 한 봉사매대들도 문을 열었다. 추석명절날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이 함께 간 곳은 대성산혁명렬사릉이다...(중략) 혁명선배들과 조상들의 묘소를 찾은 각지 근로자들은 먼저 간 이들의 삶을 뜨겁게 추억하였으며 그들처럼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 갈 마음을 가다듬었다.<sup>103)</sup>

명절을 앞둔 저녁은 언제나 즐거운 것이지만 한가위 전야밤에 느끼는 감정은 다른가 싶다. 우리가 통일거리에 사는 김일성경기장 노동자 지광빈동무의 가정을 찾았을 때였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는 지광빈동무의 아버지 지동준로인과 어머니 정귀중녀성의 밝은 모습도 좋았지만 명절맞이 준비로 흥겨운 집안풍경은 우리를 절로 흐뭇하게 하여 주었다. (중략) 알고보니 지광빈동무의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는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무쟁에 참가

101) 「추석」, 『천리마』, 1995년 9호, 111쪽.

102) 「추석날에 있는 일」, 『노동신문』, 1998.11.6.

103) 「유구한 민족전통이 활짝 꽃 피난다」, 『노동신문』, 2002.9.22.

한 우리 혁명의 1세, 항일의 로투사들이었다. 그날의 세대가 물려준 혁명의 총대를 아들이 역세계 틀어잡고 전화의 불비속을 헤쳤고 온르은 자식들과 손자들이 그 총대정신을 곳곳이 이어가고 있었다. 해마다 한가위명절을 맞을 때면 자식들에게 이 사진첩을 펼쳐보이며 그날의 할아버지들처럼 총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충신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곤 한다는 지동준로인이었다. 이날도 로인의 이야기는 절절히 울렸고 아버지의 말을 새기는 지광빈동무와 그의 안해 김송미 동무의 얼굴에는 뜨거운 결의가 어려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했다. 해마다 레사로이 맞고 보내는 명절이라면 우리의 마음 이처럼 설레이고 즐거울 수 있으리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한생을 빛내인 전 세대들에 대한 추억으로 뜨겁고 그들의 넋을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갈 심장의 맹세로 가슴 불태우는 명절이어서 우리의 한가위명절은 더욱 뜻깊고 즐거운 것이리라.<sup>104)</sup>

한편, 추석은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기는 명절로서 창출되는데 기존 단오에 했던던 씨름대회를 추석에 옮겨 개최하고 있으며, 널뛰기와 그네뛰기 경기까지 개최하고 있다. 윷놀이를 비롯해 농악공연과 추석에 먹는 다양한 음식을 포괄하는 민족성의 총화를 담은 명절로서 추석은 국가적인 명절로 정착되기에 이른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온정속에 민속명절인 추석을 맞으며 진행되는 온 전국적인 민족씨름경기가 올해에도 룡라도의 민족씨름경기장에서 12번째의 년륜을 새기며 성황리에 펼쳐져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중략) 지난해에 진행된 제10차 전국농업근로자민족체육경기대회 널뛰기경기와 그네뛰기경기에서 1등을 한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의 얼굴에도, 얼마전 은률군에서 진행된 농업근로자들의 농업무도회장에서 열두발 상모를 흥취나게 돌렸던 출연자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났다...(중략) 올해의 광범한 대중의 적극적인 열의속에 그네뛰기, 윷놀이, 활쏘기를 비롯한 민속놀이와 민속무용 “봉산탈춤, 돈돌라리, 민요 도라지, 룡강기나리, 신고산타령, 윷칠공예, 초물공예, 조선불고기공법, 상차림법 등 수십개의 대상을 국가비물질문화유산 혹은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심의평가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책임부원 한영일동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전국가지의 근로자들속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재부에 대한 긍지와 사랑이 더욱 강렬해지고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고 있음을 가슴뿌듯이 느낄 수 있다.<sup>105)</sup>

한편, 이러한 추석의 부활과 정착은 북한의 문화정책과 법적인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 곧 비물질문화유산 제도의 창안이다. 남한의 무형문화재 제도와 같은 것으로 2012년에 제정하여 매년 다양한 아이템들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있다. 1989년 전통명절의 부활과 1990년대 조상의례의 허용 이후 민속놀이, 전통음식의 진흥 등으로 연결되는 전통의 창출은 2010년대 3대 정권에 이르러 비물질문화유산제도로 이어지

104) 「즐거운 명절맞이」, 『로동신문』, 2003.9.11.

105) 「추석날과 더불어 꽃피는 우리의 민속전통」, 『로동신문』, 2015.9.27.

게 된다. 이는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창안되어 30년 한 세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진화를 의미한다. 사회주의가 몰락하는 시기에 창안되어 고난의 행군과 선군시대의 불안한 위기를 거치면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인민의 생활과 연동되는 정책적 진화를 거듭해갔다.

#### 4.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정책화로서 비물질문화유산 제도

북한에서 문화유산 보호는 정권이 수립된 직후이지만 이것이 법적제도로 만들어진 것은 1994년이다. 이 역시 역사적 유적과 유물과 같은 물질문화분야부터 시작해서 민속놀이, 민요를 포괄하는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진화되어 현재 사회 전분야에서 민족성의 열망은 역동적으로 창출되기에 이른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1989년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주창과 함께 시작된 민족적 요소들의 발굴과 이러한 아이템들을 진흥과 보호, 문화유산 지정이 단계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방향은 1990년대 중반 김일성 사망 이후 혹독한 사회 변화, 즉 고난의 행군 시기에 들어 더욱 더 강화된 논조와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제시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 사회를 단속하고 민족적 일체성을 자각시키는데, 비물질적 요소 혹은 문화적 관습과 고유 전승문화에 대한 진흥정책이 보다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비물질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조상전래의 풍속과 레의도덕’ 그리고 ‘민족옷을 입는 것도 장려’하고 ‘민속명절과 민속놀이를 적극 장려’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동시에 “우리식의 음력설을 크게 쇠고 정월대보름, 수리날과 한가위도 뜻 깊게 맞이하도록 하고, 씨름 율놀이, 그네뛰기 연뛰우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다채롭게 즐기도록”하는 등의 일련의 정책들이 지역과 직장 단위 전반에 일어났다.<sup>106)</sup> 일 년 내내 세시풍속에 맞는 민속놀이와 조선 고유의 옷차림과 민족요리 등을 복원시키는 전면적인 민속의 창출이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나타나기에 이른다. 이를 통해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온 사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우는데도 좋다’<sup>107)</sup>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의복과 음식에서도 조상전래의 방식을 개발하여 보급시키는 전통의 활용과 일상생활에의 적용이 전면화 되기에 이른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200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개성을 등재하는 것에 탄력을 받으면서 2008년에는 유네스코가 채택한 ‘인류무형문화유산협약’에도 가입해 비물질문화유산의

106) 김광진, 「백두산 3대장군과 민족문화유산」, 『민족문화유산』2003년 2호, 2003, 10쪽.

107) 김정일, 위의 책, pp. 220~222.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연관된 정책이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게 된다.

마침내 2012년에는 문화유산보호법<sup>108)</sup>을 제정하여 비물질문화유산 제도를 정립시켜 국가등록 제도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동시에 대외적인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사업과 동시에 진행시킴으로써 북한의 전통문화 정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후 2014년 아리랑, 2015년에는 김치만들기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이어서 2018년에는 씨름을 남북이 공동으로 등재시키게 된다. 대내적으로는 국가등록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2015년에는 기존의 '문화유산보호법'을 폐기하고 '민족유산보호법'으로 개칭했으며, 2019년에도 수정보충 법안을 만들 정도로 무형문화유산 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sup>109)</sup>

이와 같이,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제도는 북한의 명절관련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명절문화에 속하는 민속놀이, 음식과 조상의례 관습 등을 포괄하는 세시풍속이 비물질문화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앞서 단오나 추석 때 했던 씨름과 절기마다 해먹는 떡과 음식들이 점차 비물질문화유산화되어 가고 있다. 음식문화는 물론, 치마저고리차림 풍습과 같은 복식, 연백농악무나 소년농악무와 같은 민속놀이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지정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의 전통명절의 부활은 조선민족제일주의로 시작되어 다양한 정책적 진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조선 고유명절의 정립을 위한 논란을 거치며 단오와 한식이 제외되는 한편, 청명이 새롭게 중요한 명절로 공식화되고 있으며 설과 추석은 민족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명절로 정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이데올로기적 주장에서 정책적 정교화로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일 것이다. 현재 1대에서 2대와 3대에 걸친 정권의 변화는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시켜나갔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표적으로 1대에서 이룩된 문화유산제도는 3대에 이르러 비물질문화유산제도화를 성립시켰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와 연동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향후 후속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정교화와 세분화를 통해 전개되는 북한의 전통문화 정책과 실제 주민들에 의해 실천되는 생활문화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이를 위해, 공식문헌에서 파악되는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어떻게 명절문화를 향유하고 있는지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생활문화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08)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여기에는 구전전통과 표현, 전통예술을 비롯해 사회적 관습과 레식, 명절행사를 비롯해 자연과 우주에 관련된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예 등 매우 광범위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http://www.unilaw.go.kr>).

109) 비물질문화유산 제도관련 내용은 남영호 외, 『남북한 세시풍속, 일생의례 비교를 통한 남북사회통합방안연구』, 신한대산학협력단, 2019 참고. 내용 중 필자가 서술한 86-88쪽을 수정 보완함.

## VI. 북한의 국가명절에 드러난 정치권력과 집단기억

권혜윤(서울대)

### 1. 북한의 주요 국가명절

북한은 주요한 기념일들을 명절이라 부른다. 북한 명절을 크게 민속명절과 국가명절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명절은 기념일과 국경일을 포함한 것으로 사회주의명절이라고도 불린다. 특히 김일성(태양절), 김정일 생일(광명성절)은 주요한 명절로 각각 4월 15일, 2월 16일이다. 이 밖에도 조선인민군 창건일(2월 8일), 광복절(8월 15일), 정권수립일(9월 9일), 조선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북한헌법제정일(12월 27일)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국제적 기념일인 국제근로자절(5월 1일), 국제아동절(6월 1일), 국제부녀절(3월 8일) 등이 있다.<sup>110)</sup> 북한에서는 국가명절과 같은 국가적, 정치적 명절에는 노동을 쉬면서 다양한 문화생활과 체육경기, 무도회 등을 진행한다.

국가 명절과 같은 국가기념일은 집합적인 기억, 역사의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하는가의 국가적 이념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인공품인 달력에 새겨진 기념일들은 과거에 대한 집합적인 시야를 형성한다.<sup>111)</sup> 체루바벨은 국가기념일은 의례와 달력이라는 하위 형식을 통해 구성된다고 봤는데, 의례를 통해 심리적 통합을 유도하며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효과를 더욱 극대화한다고 그는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기념일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이념을 지속적으로 떠올리도록 만든다.<sup>112)</sup> 그러므로 국가가 어떤 특정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축하하는 문제는 역사의 특정 사건들을 국민들의 집단적인 기억 속에 새겨두기 위함이기도 하며, 이는 국가가 내세우는 국가이념, 국가 정체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러므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기념일이 새롭게 지정되거나 아니면 변경되거나 하는 사건들은 유의미하게 볼 만한 지점들이다. 이 집단기억이라는 개념은 뒤르켐의 집합 표상 개념에 영향을 받은 알브바슈의 《기억의 사회적 구성틀(1925)》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알브바슈는 기억을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

110)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SO320> (2021. 01. 07 접속)

111) Zerubavel, Eviatar, "Calendars and History: A Comparative Study of the Social Organization of National Memory," in Jeffrey K. Olick (ed.) *States of Memory: Continuities, Conflicts, and Transformations in National Retrospection*, Duke University Press, 2003.

112) 체루바벨, 에비아타, 「달력과 역사: 국가 기억의 사회적 조직화에 관한 비교연구」, 제프리 올릭 편, 『국가와 기억: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본 집단기억의 연속·갈등·변화』,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365쪽; 하상복, 「이명박 정부와 815 기념일의 해석」, 『현대정치연구』 5(2),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113쪽에서 재인용.

하기보다는 사회적인 것으로 이해했는데, 소속집단은 기억의 자료를 개인들에게 제공하고 특정 사건을 기억하고, 망각하도록 만든다. 개인이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사건도 기억하도록 만든다.<sup>113)</sup>

가령, 조은희는 국가기념일이 정치 권력 정당성을 강화하고 ‘혁명전통’에 대한 복원과 재창조에 기여했음을 밝혔는데, 특히 태양절이나 광명성절과 같은 기념일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상징적인 권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다.<sup>114)</sup> 기념일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 인물에 대한 관념, 이미지는 일정 부분 재구성되는 측면이 있으며 사실 여부를 떠나 반복적으로 기념되며 국민들에게 사실인 것처럼 수용되는 측면도 있다<sup>115)</sup>. 그러므로 국가기념일을 살필 때에 국가기념일이 지정된 정권이나 시기, 만일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이유와 시기를 함께 고려함이 적절하다. 가령, 미신과 봉건적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음력 설이 폐지되었던 사건이나 인민군 창건일이 1977년까지 1948년 2월 8일로 유지되다가, 1978년에 1936년 4월 25일로 변경한 뒤,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2018년에 다시금 2월 8일로 변경되었던 사건이 그러하다.<sup>116)</sup> 위의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기념일의 지정, 폐지 및 변경은 정치적 권력의 정당화 및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유념하며 북한의 국가명절을 살펴본다면, 북한의 정치적 흐름과 국가 명절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명절은 정치 권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동시에 일반 국민들이 노동을 쉬고 즐길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공식적으로 국가 명절이 지정되고 변경되는 과정 외에도 민속적 차원에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 명절을 기념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로동신문』을 조사하게 되었다. 물론 『로동신문』에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기념일을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동시에 신문 자체가 담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가 신문을 받아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므로, 국가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국가 명절을 수용하도록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었던 국가기념일이 어떻게 국민의 집단적인 기억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념을 공고히 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연결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가 명절 중 태양절, 광명성절,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각 명절의 지정, 변화, 당시 정치 권력과의 관계, 그리고 『로동신문』에 해당 명절과 명절 풍경이 어떤 방식으로 기술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113) 올릭, 제프리 K., 『기억의 지도』, 옥당, 2011, 41~42쪽.

114) 조은희, 「북한의 국가기념일을 통한 정권의 정당성 강화: 혁명전통 기념일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1(2), 북한연구학회, 2007, 227~253쪽.

115) 위의 글, 249.

116) 김종원, 「북한의 기념일 지정과 변화의 정치적 통제: 권력정당성, 개인우상화, 민족전통」, 『북한연구학회보』 23(2), 북한연구학회, 2019, 323~353쪽.

## 2. 태양절과 광명성절

### 1) 『로동신문』에 드러난 영웅화, 신화화

김일성 생일은 1962년 4월 15일 이래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이후 1968년 정식 명절 공휴일로, 1972년 환갑을 맞이하며 민족 최대 명절이 되었다.<sup>117)</sup> 이 날에는 각종 전시회 및 문화 행사들을 주최하며, 그 외에도 김일성 관련 연구모임 등이 진행된다. 『로동신문』에는 김일성이 살아있을 적의 업적, 어록 등에 관한 회고적인 기사 혹은 태양절을 맞아 개최된 여러 축전, 연구회, 야회, 공연 등에 관한 기사가 게시되었다. 태양절을 맞이하는 기사들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가령, 2019년 4월 5일자 『로동신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인민들에게 한알의 닭알이라도 더 먹이시기 위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 나라의 크고작은 도시와 마을들, 산간벽지를 찾으시여 친어버이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신 일은 그 얼마이며 그처럼 바쁘신 나날에도 몸소 닭 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더 많은 닭알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울이신 로고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만사람이 가슴에 소중한 새겨져 있는가.

눈부신 비약의 일로를 걸어온 가금업의 급속한 발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인민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인민들을 더 잘 먹이시려고 그처럼 깊이 심려하신 사연들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되새기게 된다.<sup>118)</sup>

태양절을 맞이하여 김일성의 정치적 권력과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는 기사 어조는 김정은 정권 이전에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1972년 4월 16일 기사<sup>119)</sup>를 보면 생전 김일성의 정치 권력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는 조은희에 따르면 ‘혁명전통’ 즉 김일성 정치 권력의 정통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sup>120)</sup>. 그러므로 비록 김일성 사후, 김정은 정권에서 이루어진 언론의 보도라 하더라도 그 정통성이 내려온다는 점을 유념했을 때, 언론에서 김일성 업적과 기념일을 성대히 치르는 것을 보도하는 것에 유의미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의 역사적 사건들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다는 것은 의미가 비어있던 시간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가기념일은 민족국가의 정체성 형성에

117)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9&koreanChrctr=&dicaryId=81> (2021. 1. 7. 접속)

118)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은덕 만대에 길이 빛나리」, 『로동신문』, 2019. 4. 5 (2면)

119) 「평양시내 청소년학생들의 충성의 노래모임이 있었다」, 『로동신문』, 1972. 4. 16 (3면)

120) 조은희, 앞의 글, 246쪽.

큰 영향을 미치며, 김민환<sup>121)</sup>은 이를 ‘열광의 순간’으로 표현하고 이를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이라고 칭한다. 나아가 김민환은 뒤르켐(Durkheim)<sup>122)</sup>을 인용하며 “모인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집합이 느끼는 힘이 나오며 사회를 신성화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김일성과 그 일가에 대한 언론의 신화적인 구성은 그들에 대한 신성한 집합기억을 형성하게 만들며, 국가 그리고 그 국가와 거의 일치되는 인물인 김일성을 위대하게 거듭 만들며 국가 이념을 공고히 한다. 특히 김일성의 과거 업적을 언급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국가 건설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거듭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로동신문』과 같은 언론의 스토리텔링은 역사적 사실관계를 단순히 기술하기보다는 한 인물의 위대함을 부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령 다음과 같은 기사가 그러하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령도하시여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였으며 해방후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지난날 현대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신데 대하여, 수령님의 높은 덕성에 대하여, 수령님의 주위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하여 (...) <sup>123)</sup>

우리모두를 어서 오라 반겨맞으시며 한품에 안아주시는 듯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아버지 수령님.

해마다 맞이하는 태양절이건만 이해의 명절은 사람들의 가슴을 류다른 추억과 경모의 정으로 끝없이 설레이게 한다<sup>124)</sup>.

인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마른날, 굶은날도 가림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시며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 진정 그이의 한평생은 인민을 위한 열렬한 사랑으로 수놓아진 애국헌신의 한평생이다.<sup>125)</sup>

가령, 위의 내용에서처럼 “혁명의 길”에 나서서,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고, “모든 부문에 빛나게 구현”, “수령님의 높은 덕성”, “해빛같이 환한 미소”,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 등의 표현들은 한 인물의 위대함에 초점에 맞추고 있는 표현들이다.

이는 태양절뿐만 아니라 광명성절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광명성절은 김정일의 생일 1942년 2월 16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김일성은 사실상 사망(1994년)의 기사만

121) 김민환, 「한국의 국가기념일 성립에 관한 연구」, 2000,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22) Durkheim, Emile,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New York: The Free Press, 1965, pp. 250; 위의 글 17~18쪽에서 재인용.  
 123) 「평양시내 청소년학생들의 충성의 노래모임이 있었다」, 『로동신문』, 1972. 4. 16 (3면)  
 124) 「다함없는 경모의 정 넘치는 주체의 최고성지」, 『로동신문』, 2018. 4. 15 (3면)  
 125) 「친아버지의 다심한 은정」, 『로동신문』, 2018. 4. 15 (3면)

본다 하더라도 정치적 신격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김정일의 생일은 1976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1982년부터 공식 공휴일이 되었으며, 1986년부터는 태양절과 마찬가지로 이틀을 쉬게 되었다. 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치적 권력이 기념일이라는 상징을 통해 대등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었다<sup>126)</sup>.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은 온나라 도처에서는 펄펄 날려서 당기를 배경으로 《백두산에 김일성대장 계승인 탄생》의 구호나무글발을 아로새긴 경축판이며 백두산 밀영고향집을 소중히 품에 안고 거연히 솟은 정일봉의 해돋이를 배경으로 그린 대형그림들이 나붙고 《경축 2. 16》이라고 쓴 축등들이 걸렸다.<sup>127)</sup>

용변출연자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식의 독창적인 선군정치 방식을 확립하시고 선군혁명기의 기치밑에 가장 준엄하고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로 이끄시었으며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활짝 열어 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불멸할 혁명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sup>128)</sup>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실천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만민의 열화같은 흠모와 매혹, 신뢰심이 낳은 위인칭송의 꽃인 김정일화는 년대와 세기를 이어 누리를 붉게 물들이며 끝없이 만발하고 있다.<sup>129)</sup>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으로는 탁월한 군건설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주체형의 혁명적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고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대하가 끝없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조선인민군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천출위인들의 불멸의 건군업적을 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sup>130)</sup>

광명성절을 맞아 대형그림, 축등, 경축판, 김정일화 등을 마련하며,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에 인사를 드리는 등의 행사 또한 벌였다. 광명성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정일에 대한 찬사와 그의 업적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기사의 대부분이다. 태양절이나 광명성절과 같은 지난 지도자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명절의 분위기를 『로동신문』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기념행사, 축하 공연, 전시 외 북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구체적인 축하 의례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다음 부분에서 태양절과 광명성절 관련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26) 조은희, 위의 글, 247쪽.

127) 「환희와 열정에 넘친 수도의 거리」, 『로동신문』, 1991. 2. 16 (4면)

128) 「《2월의 명절에 드리는 선군시대의 송가》 진행」, 『로동신문』, 2002. 2. 12 (4면)

129) 「태양의 꽃 영원토록 만발하리」, 『로동신문』, 2019. 2. 13 (1면)

13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로동신문』, 2018. 2. 9 (11면)

## 2) 『로동신문』에 나타난 태양절, 광명성절의 기념행사들 분석

북한에서도 국가 명절은 일상적인 노동을 일시적으로 쉬고 그날을 다 함께 기억하기 위해 휴무일로 지정되는데, 이때 기념일에 행해지는 다양한 행사들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집합적 ‘열광의 순간’을 더 강화해준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명절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공연, 축전, 야회, 운동 경기, 연구회와 토론회 모임 등이 성대하게 치러진다. 이와 관련한 기사들도 태양절과 광명성절 즈음하여 무수히 많이 실리는데, 가령 다음과 같다.

합창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혼성중창 《축원》, 녀성 4중창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혼성중창 《장군님 모신 자랑 노래 부르자》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sup>131)</sup>

광장에 《태양절을 노래하세》 선율이 울려 퍼지자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시작되었다. 야회 참가자들은 노래 《만경대 찾아 가네》, 《만경대의 노래》, 《수령님 높이 모신 내 조국 노래하네》 등의 노래선률에 맞추어 아름다운 춤물동을 이어나갔다. (...) 야회참가자들은 노래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선군의 길을 따라 행복이 오네》, 《우리 장군님 높이 모시리》 등의 선율에 맞추어 춤바다를 펼치며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이 땅위에 기어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움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 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sup>132)</sup>

출연자들은 또한 혼성2중창과 합창 《수령님과 장군님은 한분이시네》, 설화와 합창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을 비롯한 곡목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패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앞당겨 건설할 한마음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량강도와 함경남도, 개성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시낭송 및 노래와 이야기모임, 덕성이 이야기모임, 웅변모임을 가지었다.

이야기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업적이 위대하여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태양일화 《코고무신과 꼭지술가락》, 웅변 《영원한 인류의 태양절》 등에서 출연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 없는 헌신성과 숭고한 인간애, 열렬한 동지애로 위대한 한생을 빛내여 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태양의 력사, 인간사랑의 력사에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한편 각도, 시, 군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학교들에서는 태양절기념 예술공연과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 야회들이 진행되었다.<sup>133)</sup>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해외 동포들을 위하여 마련하여 주신 연회가 15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있었다.

131)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부르는 다함 없는 칭송의 노래》 진행」, 『로동신문』, 2002. 2. 12 (4면)

132)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야회」, 『로동신문』, 2003. 4. 16 (4면)

133) 「태양절기념행사: 각지에서 진행」, 『로동신문』, 2003. 4. 16 (4면)

연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과 해외동포영접국 김유호국장 등 관계 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sup>134)</sup>

태양절을 맞은 수도의 근로자들을 위한 급양봉사망들의 명절봉사가 진행되고 있다. (...) 옥류관, 청류관, 오리고기전문식당, 평천각, 선교각, 창광종합식당, 청춘관, 경흥관, 련못관, 창광봉사관리국산하 식당들을 비롯한 여러 식당들에서 시안의 근로자들은 사랑의 양불고기와 고기쟁반국수, 짜장면, 떡, 메기탕, 닭고기온반, 소내포국밥 (...) 각종 민족요리들과 특색 있는 음식물들을 봉사 받고 있다.<sup>135)</sup>

축전에는 김일성화를 키우고 있는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단위들과 개별적인 근로자들, 해외동포들, 세계 여러 나라의 화초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이 참가하게 된다.

(...) 절세의 위인의 존함을 모신 불멸의 꽃을 피워 가는 남 다른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한 관리공들은 한평생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김일성화를 활짝 피우기 위하여 있는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고 있다. 이들은 온실에서 낮과 밤을 이어 가며 불리한 날시조건에서도 김일성화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피우기 위하여 온도, 빛, 습도를 책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sup>136)</sup>

또한 체육부문들에서는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가 체육인들과 체육애호가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개막되어 만사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거리와 마을, 일터들이 환하게 꾸려 지고 명절일색으로 단장되어 가고 있다. 인민봉사총국과 시안의 사회급양망들에서는 명절기간 수도 시민들을 한껏 기쁘게 해줄수 있도록 명절봉사준비가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 있다.<sup>137)</sup>

이 외에도 여러 축하 행사들이 태양절을 맞이하여 북한 각 지역에서 열린다. 기념일에 벌어지는 각종 행사는 태양절을 특정 방식으로 기억하기 위한 목적을 수행한다. 이 기억이란 것은 개인이 유기체적으로 꼭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종류의 기억이다. 알브바슈(Halbwach)에 따르면 국가는 “기억의 자료”를 제공하고 개인은 특정 사건을 기억하고, 어떤 사건은 망각하며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건을 기억하게 만든다.<sup>138)</sup>

동시에 정치 의례에서 중요한 것은 ‘과시(display)’인데 가령 지나치게 높은 생산성에 대한 과시, 부의 과시는 특정 정치적 권력의 정당성을 보여준다. 벨이 드는 예시에는 구 소련의 군사적 힘을 과시하는 붉은 광장의 퍼레이드나 정치 권력자들에게 환호하는 군중의 규모 따위이다<sup>139)</sup>. 북한의 경우에는 특별한 날, 본고에서 살피는 국가

134) 「해외동포들을 위한 연회가 있었다」, 『로동신문』, 2003. 4. 16 (4면)

135) 「은정 넘치는 명절봉사: 각지 사회급양봉사망들에서」, 『로동신문』, 2003. 4. 16 (4면)

136) 「온 나라에 활짝 피여 나는 태양의 꽃 김일성화」, 『로동신문』, 2003. 4. 7 (1면)

137) 「태양절을 앞둔 혁명의 수도 평양」, 『로동신문』, 2003. 4. 7 (1면)

138) 올릭, 제프리 K., 앞의 책, 43쪽.

139) 벨, 캐서린, 『의례의 이해』, 한신대학교출판부, 2007, 258쪽.

명절에서 실천되는 화려한 행진이나 대규모 집단 공연이나 체조 같은 것도 이러한 과시의 표현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 잘 드러난다.

(...)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현대화, 정보화를 실천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더욱 힘있게 전개되고 있다. (...)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계기로 (...)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모범 기술혁신단위칭호를 쟁취한 단위수는 680여개로 장성하였다. (...) 온 나라에 거세차게 타오르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 중시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로 되며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약자가 되고 과학기술을 틀어쥐면 강자가 된다는 진리를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sup>140)</sup>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자주시대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께 세계 169개 나라의 당 및 국가지도자들과 정계, 사회계, 실업계 인사들, 해외동포들과 남조선 인민들이 올린 선물은 무려 16만 5,920여점에 달한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균 한해에 2,910여점, 매달 243점, 매일 8점의 선물을 받으신 것으로 된다. (...) 이 선물들은 위대한 사상리론과 현명한 령도, 숭고한 덕망으로 조선혁명과 인류의 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가장 탁월한 수령이시며 로련한 정치원로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세계진보적인류가 얼마나 끝없이 흠모하며 높이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위인칭송의 결정체이다.<sup>141)</sup>

청년동맹일군들, 전국각지의 근로청년들과 학생청소년들 4,000여명이 이날 답사행군에 참가하였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에 발걸음을 멈추며 씩씩하게 행군해 나가는 청소년 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백두산 천출명장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부강조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씩씩하게 자라나는 새 세대 청년전위의 전투적기백과 열정이 한껏 어리어 있었다.

답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받드는 길에서 청춘을 빛내이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라고 쓴 프랑카드들과 자별구호들을 들고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는 구호들을 연방 웨치면서 만수대거리, 봉화거리, 광복거리 등 수도의 거리들을 누벼 나갔다.<sup>142)</sup>

원산시 개선광장에서는 강원도의 4만 1,000여명의 군중이 출연하는 대합창과 무용 《태양절에 드리는 강원땅의 노래》가 진행되었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태양절을 노래하세》, 《수령님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

140) 「자력갱생대진군을 추동하는 대중적혁신의 불길」, 『로동신문』, 2019. 2. 13 (1면)

141)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 만대에 길이 빛내이자, 인류역사에 길이 빛날 만민의 뜨거운 지성: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계 169개 나라에서 받으신 선물 16만 5,920여점」, 『로동신문』, 2003. 4. 7 (1면)

142)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만경대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 진행」, 『로동신문』, 2003. 4. 7 (1면)

》,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선군의 길을 따라 행복이 오네》, 《강성부흥아리랑》 등의 합창곡목들이 독창, 중창, 기타 병창, 무용과 배합되어 올랐다.<sup>143)</sup>

이처럼 태양절과 광명성절에서는 다양한 ‘과시’,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과 그 정통성을 과시의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첫 번째에서처럼 얼마만큼의 단위수를 쟁취했는지에 대한 서술로 “온 나라에 거세차게 타오르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 중시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로 되며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약자가 되고 과학기술을 틀어쥐면 강자가 된다는 진리를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가 있다. 이 외에도 위에서 예시로 든 자료들은 대규모의 선물과 균중을 자세하게 적고 있다.

기어츠는 정치적 의례들은 단순히 권력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의례가 실제로 권력을 창출한다고 봤는데, 다시 말해 의례는 권력을 “실체화하고 유력하게 하는 권력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한 정교한 논증”이라고 보았다<sup>144)</sup>. 그리고 그러한 의례에서 정치 권력을 규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위에서 언급했었던 “과시”의 방법이다. 이 “과시”의 방법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수사하는 기사의 수식어와 과장된 표현에도 드러나며, 물질적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에서도 표현되지만, 그 인물 자체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기 위한 예술공연들에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는 말 그대로 신격화였으며, 신성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들은 북한 인민들에게 그의 존재를 끊임없이 각인시키며 여러 화려한 공연, 음악 등의 예술 활동을 통해 북한 인민들이 그의 존재를 다시금 구체화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로동신문』에 드러난 무수히 많은 예술공연 자료들을 단순히 북한 인민들이 즐기는 여가 생활이나 국가에 의해 조직된 피상적인 공연으로만 볼 수 없다. 위의 기사에 나온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같은 음악은 1946년에 창작된 노래이며, 위에서 다루었던 김일성화(花)는 1964년 인도네시아의 한 식물학자가 육종한 란초과의 한 종류이며,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에 선물을 바치는 것이 묘사된 기사에서 보다시피 김일성의 동상은 전국적으로 60여 개이며 흉상만 3만여 개라고 한다<sup>145)</sup>. 특정 정치 권력을 우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그와 관련된 국가기념일 기사에 잘 드러나고 있다.

143) 「태양절을 맞으며: 각지에서 대합창공연 진행」, 『로동신문』, 2002. 4. 16 (4면)

144) 벨, 위의 책, 257쪽.

145) 강성운·기광서·정규섭·고유환·배성동·김동규·강신창·최완규, 『북한 정치의 이해』, 을유문화사, 2001, 172~173쪽.

### 3) 조선인민군 창건일의 변화

조선인민군 창건일은 변경을 겪었는데, 1977년까지 1948년 2월 8일로 유지되다가, 1978년에 1936년 4월 25일로 변경되고,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2018년에 다시금 2월 8일로 변경되었다. 실제 창건일은 2월 8일이지만,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확립 이후 4월 25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조선인민군의 기원을 항일무장투쟁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김일성의 업적을 신격화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을 과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1948년 2월 8일로 다시금 변경되었다.<sup>146)</sup> 이러한 변화를 시기별로 기사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인민의 진정한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돛을 기념하는 《일당백상》 체육경기대회가 1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열렸다.<sup>147)</sup> (1974. 2. 3)

필승불패의 혁명무력,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65년을 돌이켜보며 회세의 위대한 명장들의 군건설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여 최후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라는 신심을 더욱 굳게 하여준 청년학생들의 야회는 일심단결된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힘있게 보여주었다.<sup>148)</sup> (1997. 4. 26)

조선인민군창건 70돛 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8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 참가자들은 주체적인 군건설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혁명적 정규무력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시키고 영웅적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 경축의 춤바다를 펼치었다. 《유격대행진곡》, 《근위부대자랑가》, 《선군승리 열두달》 등의 노래선률에 맞추어 춤물동을 이어가는 그들의 얼굴 마다에는 회세의 천출명장들의 손길아래 자라나 백승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가는 최정예혁명강군을 가지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sup>149)</sup> (2018. 2. 9)

나아가 김정일 정권에는 김일성 일가 전체와 관련된 우상숭배 기념일이 증가했으며, 김정일 본인과 관련된 기념일 역시 여럿 추가하게 되었다<sup>150)</sup>. 김정은 정권에서도

146) 김종원, 앞의 글, 343쪽.

147) 「조선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돛기념 《일당백상》 체육경기대회가 열렸다」, 『로동신문』, 1974. 2. 3 (6면)

148)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65돛 경축」, 『로동신문』, 1997. 4. 26 (6면)

149) 「조선인민군창건 70돛 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진행」, 『로동신문』, 2018. 2. 9 (11면)

150) 김종원, 위의 글, 345~346쪽. 김일성 정권 당시에는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이 주요한 김일성 일가에 관한 기념일이었던다면, 김정일 정권 후반부에는 김일성 전체 일가 기념일이 추가되었다. 또, 김정일 정권에 들어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 칭호 수여일이 추가됐으며, 김일성 부모의

역시 마찬가지로 김정일 사망일, 사망 후 공화국 대원수 칭호 수여일이 추가되었으며, 김정은 본인과 관련해서는 칭호 수여 변화를 달력에 표기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대가정을 이루는 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함에서 비롯된 기념일 수정이라고 볼 수 있다.<sup>151)</sup>

그렇다면 왜 이러한 기념일, 북한에서는 국가 명절이라 불리는 기념일들을 특정 정권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인가? 이는 막스 베버의 권력의 정당성의 세 가지 요소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전통을 복원하거나 재창조하는 것인데, 역사와 전통은 특히 ‘연속성’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좋은 특성을 갖추고 있다.<sup>152)</sup> 조은희가 인용한 베버의 권력의 세 요소 중 조선인민군 창건일의 변경 목적은 특히 권위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의 최초 항일무장부대라고 선전되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조직된 날인 1932년 4월 25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바꾼 것<sup>153)</sup>은 김일성의 업적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베버가 소위 말하는 유명한 카리스마적 권위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는 특정 정치적 인물의 신성함 등의 특성을 통해 권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베버의 카리스마적 권력은 북한의 정치권력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개념인데, 그는 카리스마적 권력이 다른 두 전통적, 합리적 권력과는 더 역동적인 형태로 보았다.<sup>154)</sup>

기념일이 국가가 국민, 인민이 기억하길 원하는 집합기억과 관련이 있다면,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이후 김일성에 대한 집단기억을 “관리”<sup>155)</sup>하는 차원에서 기념일이 수정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 제루바벨(Zerubabel)은 위에서 이미 달력에 새겨지는 기념일은 과거에 대한 집합적인 시야를 확정한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나아가 달력은 사회의 기본적인 시간적 구조를 지도화하며, 사람들이 다른 과거들을 기억하는 능력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제한한다.<sup>156)</sup> 따라서 달력에 새로운 기념일을 만들고 또 인민군 창건일과 같은 기념일의 날짜를 옮기며 과거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은 집단기억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구조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생일과 사망일, 김정숙의 생일과 사망일 역시 기념일에 추가되었다. 김정일은 그뿐만 아니라 조선로동당 사업을 시작한 날, 국방위원회 국방위원장에 추대된 날, 조선로동당 총비서 추대일까지 달력에 추가적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151) 김종원, 위의 글, 347쪽.

152) 조은희, 앞의 글, 230쪽. 세 가지 요소에는 합리적 근거, 전통적 근거, 권위적 근거가 있다.

153) 김종원, 위의 글, 343쪽.

154)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창비, 2013, 62~98쪽. 개인적 카리스마 권력이 세습적 카리스마로 넘어가는 과정은 특히 까다로운데, 왜냐하면 카리스마적 권력 자체가 개인의 신성한 권력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권력을 재생산할 대체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는 김정일의 “승계예술”과 김정일 시대의 충성과 효성의 원칙이다. 이 효성의 원칙은 사실상 흡스봄이 말한 발명된 전통으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 연속성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55) 김종원, 위의 글, 350쪽.

156) Zerubabel, Eviatar, *Hidden Rhythms: Schedules and Calendars in Social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이에 대하여 김종원은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다시금 2월 8일로 인민군 창건일을 변경한 것에 대해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가장 그럴듯한 추측은 조선인민혁명군과의 과한 연결을 끊어내고 실제 조선인민군과의 연결을 회복해서 현재 북한의 정규군의 정통성을 되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다.<sup>157)</sup> 김일성이 당시 2월 8일을 조선인민혁명군과의 연결을 위해 날짜를 변경했던 목적과는 다른, 본인의 정치 권력의 정당화를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인민군 창건일에도 태양절, 광명성절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행사와 의례가 행해진다. 체류바벨이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국가기념일(명절)은 의례와 달력이라는 하위 형식으로 구성되며, 의례를 통해 집단 내 통합을 도모하고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효과를 부각시킨다. 그러므로 신문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특정 기념일의 의례 및 행사들이 대대적으로 또 성대하게 보도되는 것은 기념일이 전제하고 있는 정치적 이념, 그리고 의례가 가지고 있는 통합의 목적을 더욱 공고히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수집된 기사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8절 기념 조국통일집단달리기경기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평양사범대학, 평양의학대학 등 시내 각 대학의 수많은 학생 1만 2천여명이 참가하였다.  
(...) 2. 8절 기념 조국통일집단달리기경기는 이날 수도의 거리에 어둠이 깃들 때까지 계속 벌어졌다.<sup>158)</sup>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은 인민군대의 정치군사력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여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을 련전련승으로 이끄시였으며 주체조선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주신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섰다.<sup>159)</sup>

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맞으며 각지에 있는 련사들의 동상과 련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련사묘들에 8일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화환진정들에는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렬사들의 동상과 련사릉, 인민군 련사추모탑, 련사묘들에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공장, 기업소, 농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들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반제반미 대결전과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혁명전사의 가장 값높은 삶을 빛내인 련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

157) 김종원, 위의 글, 344쪽.

158) 「2. 8절 기념 조국통일달리기」, 『로동신문』, 1967. 2. 9 (3면)

159)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 표시」, 『로동신문』, 2018. 2. 9 (11면)

다.<sup>160)</sup>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예술인들은 주체의 기치 높이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며 수령의 위업,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운명, 사회주의와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여온 우리 혁명무력의 자랑스러운 70년 역사를 감명깊은 예술적화폭에 담아 환희로운 공연무대를 펼치였다.

출연자들은 주체형의 혁명적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고 무적필승의 혁명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사회주의조선의 강성변영을 위한 확고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여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건군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sup>161)</sup>

---

160) 「각지에 있는 련사들의 동상과 련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련사모들에 화환 진정」, 『로동신문』, 2018. 2. 9 (11면)

161) 「조선인민군창건 70돐 경축: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진행」, 『로동신문』, 2018. 2. 9 (11면)

## Ⅶ. 결론

지금까지 북한의 세시풍속 관련 문헌자료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20세기 후반 북한의 국가정책의 변화, 민속명절 및 국가명절의 변천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에서 명절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날을 설정하여 경축하는 기념일인 ‘사회주의 명절(국가명절)’과 음력으로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며 민속적으로 즐기는 날인 ‘민속명절’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명절 중 김일성, 김정일 생일은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겨지며, 이를 중심으로 하여 각종 국가명절을 내세웠던 반면, 음력설을 쇠는 풍습을 ‘봉건잔재’로 규정하고 1953년부터 음력설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민속명절 관련 정책은 1970-1980년대에 크게 변화되었다. 북한에서는 1972년에 추석 성묘를 허용하기 시작하였고, 1988년부터 추석을, 1989년부터 음력설, 단오, 한식을, 2003년부터 정월대보름을 휴무일로 지정하였고, 이로써 북한에서 음력의 민속명절은 부활되었다. 또한 1991년에 한식이, 2005년에 단오가 공식적인 휴일에서 제외된 반면, 2012년부터 4월 4일을 청명으로 지정하여 새로운 공휴일이 지정되는 변화가 있었다.

해방후 북한의 민속명절은 설(양력설, 음력설), 정월대보름, 청명, 추석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과 변용을 거쳐왔다. 설, 한식, 단오, 추석의 4대 명절 중 단오는 2005년 이후 제외된 반면, 한식은 청명으로 대체되었으며, 양력설과 음력설을 포함한 설명절과 추석명절은 북한의 가장 주요한 2대 명절로서 지속·전승되어 왔다. 또한 21세기에 들어 음력의 정월대보름까지 민속명절의 휴무일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에서 음력 정월 세시의 위상과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오가 놀이와 휴식, 절기 음식으로 표상되는 명절이라면 한식(청명)과 추석은 조상 의례가 주가 되는 명절이다. 북한에서 청명은 단오와 한식이 고유명절로서 명문을 잃고 그 대체로 나타나 24절기 중 하나이자 4대 명절 중 하나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매장문화가 일반화된 북한에서 조상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일은 추석이 명절로서 복권되는 1986년 이전에도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석이 공식명절로 휴일화된 이후 북한에서는 조상묘를 찾는 것을 권장하는 수준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북한의 국가 명절 중 태양절, 광명성절, 인민군 창건일에 대한 『로동신문』 기사에서는 북한의 정치 권력과 북한 명절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신문이라는 매체에 태양절과 광명성절과 같은 국가지도자의 생일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고, 해당 명절에 진행되는 각종 의례 및 행사를 보도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북한의 문헌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분류, 내용 분석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 민속명절에 대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북한 민속세계와 북한 민속명절 문화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북한의 세시풍속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북한의 세시풍속에 대한 탈북민 구술조사 등이 병행된다면 북한의 국가명절과 민속명절, 북한의 명절 문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부록>

[문헌자료 목록]

1. 김일성전집

연 번	제목	날짜	출처	출판사
1.1	신년을 맞이하면서 전국 인민에게 고향	1946년 1월 1일	《김일성전집》 제3권	조선로동당출 판사, 1992.
1.2	1950년을 맞이하여 공화국 전체 인민들 에게 보낸 신년사	1950년 1월 1일	《김일성전집》 제11권	조선로동당출 판사, 1995.
1.3	1951년을 맞이하면서 전국 인민들에게 보내는 신년사	1951년 1월 1일	《김일성전집》 제13권	조선로동당출 판사, 1995.
1.4	군인들속에서 공산주의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각 급 군사학교 교원대회에서 한 연설	1958년 10월 30 일	《김일성전집》 제22권	조선로동당출 판사, 1998.
1.5	조선인민의 민족적 명절 8·15해방 15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전집》 제25권	조선로동당출 판사, 1999.
1.6	화학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비 날론공장준공을 경축하면서 5월의 명절을 기념하는 함흥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61년 5월 7일	《김일성전집》 제27권	조선로동당출 판사, 1999.
1.7	신년사	1990년 1월 1일	《김일성전집》 제89권	조선로동당출 판사, 2010.

## 2. 김정일전집, 김정일선집

연번	제목	날짜	출처	출판사
2.1	4·15명절을 뜻깊게 맞이할데 대하여	평양제1중학교 민청초급일군 회의에서 한 연설 1957년 3월 28일	《김정일전집》 제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2.2	설맞이모임준비를 잘하여야 한다	평양제1중학교 민청초급일군 및 소년단열성자협의회에서 한 연설 1957년 12월 25일	《김정일전집》 제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2.3	씨름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민족경기의 하나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학부장 및 학생과 한 담화 1961년 8월 29일	《김정일전집》 제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2.4	민속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1963년 7월 5일	《김정일전집》 제6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2.5	4월의 명절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쇠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1968년 4월 15일	《김정일전집》 제10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2.6	민족문화유산을 옳은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바로 평가 처리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0년 3월 4일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010
2.7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맞이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0월 29일	《김정일선집》 제2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2.8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 전통을 적극 살려나갈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 91(2002)년 9월 8일, 주체 92(2003)년 1월 2일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2.9	사리원시 민속거리의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우수한 민속전통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훌륭한 창조물이다	황해북도 사리원시 민속거리를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97(2008)년 12월 11일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 3. 김정은 문헌집 및 단행본

연번	제목	날짜	출처	출판사
3.1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100(2011)년 12월 31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문헌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3.2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다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 주체101(2012)년 4월 20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문헌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3.3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창립 60돐을 맞는 사회과학원 과학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101(2012)년 12월 1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문헌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3.4	신년사	주체102(2013)년 1월 1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문헌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3.5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103(2014)년 10월 24일	단행본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3.6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어나가자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104(2015)년 3월 25일	단행본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3.7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주체104(2015)년 10월 4일	단행본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3.8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한 연설 주체104(2015)년 10월 10일	단행본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 4. 『천리마』의 세시풍속, 민속놀이, 국가정책 관련 자료

연번	제목	날짜	발행호수	잡지
4.1	0.1초문제	1967년 1월	100호	천리마
4.2	1프로만 절약한다면	1969년 1월	121호	천리마
4.3	모든 것을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1969년 2월	122호	천리마
4.4	스케트타기에서의 요령	1969년 11월	130호	천리마
4.5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학습은 우리 당 혁명전 통교양에서 기본	1970년 2월	133호	천리마
4.6	집단을 사랑하도록	1970년 3월	134호	천리마
4.7	널뛰기	1978년 11월	234호	천리마
4.8	김치이름 스무가지	1978년 12월	235호	천리마
4.9	위대한 수령님 우러러 부르는 새해의 노래	1979년 1월	236호	천리마
4.10	강강수월래	1979년 3월	238호	천리마
4.11	그네뛰기	1979년 4월	239호	천리마
4.12	씨름	1979년 8월	245호	천리마
4.13	연놀이	1979년 12월	247호	천리마
4.14	새년대의 첫해 첫아침에 (시) (리일복)	1980년 1월	248호	천리마
4.15	김일성 신년사	1980년 2월	249호	천리마
4.16	축원 속에 밝은 설날 아침	1980년 3월	250호	천리마
4.17	5.1절의 유래	1980년 5월	252호	천리마
4.18	10월!	1980년 10월	257호	천리마
4.19	민속놀이: 윷놀이	1980년 10월	257호	천리마
4.20	설명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1980년 12월	259호	천리마
4.21	민속놀이: 해불싸움	1980년 12월	259호	천리마
4.22	불굴의 의지로 이겨낸 고난의 행군	1989년 2월	357호	천리마
4.23	탄생일을 맞으실 때마다	1989년 2월	357호	천리마
4.24	예로부터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인민의 미풍 량속	1989년 7월	362호	천리마
4.25	(민속) 8월 추석	1989년 9월	364호	천리마
4.26	윷놀이	1990년 2월	369호	천리마
4.27	사람들의 생활과 력서(1)	2000년 6월	493호	천리마
4.28	새해인사례절	2012년 1월	632호	천리마

## 5. 『로동신문』의 민속명절 자료

연번	제목	날짜	면	신문
5.1	새해를 맞는 모범로동자 려호필동무의 단란한 가정	1950년 1월 2일	3면	로동신문
5.2	즐거운 설날	1956년 1월 1일	3면	로동신문
5.3	어린이들의 명절놀이	1959년 1월 2일	5면	로동신문
5.4	다채로운 설맞이	1961년 1월 1일	8면	로동신문
5.5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붉은 기계공들의 단란한 설맞이: 천리마 락원 기계 공장 지구에서	1966년 1월 2일	3면	로동신문
5.6	새로운 결의를 안고 설명절을 맞는 혁명의 수도 평양시근로자들	1973년 1월 1일	4면	로동신문
5.7	새해의 력서들과 축하장, 기념엽서들	1995년 12월 31일	4면	로동신문
5.8	설맞이경사로 온 나라가 흥성인다	2000년 1월 1일	5면	로동신문
5.9	고유한 민족풍습을 살려나가자 - 올해의 음력설은 2월 5일	2000년 2월 2일	4면	로동신문
5.10	이채로운 거리의 장식물들: 평양시에서	2000년 2월 3일	4면	로동신문
5.11	세 번에 걸치는 세기를 맞은 장수자의 기쁨: 중구역 동안동에 사는 태금이 할머니의 가정에서	2001년 1월 2일	5면	로동신문
5.12	유구한 민속명절 음력설	2003년 1월 19일	4면	로동신문
5.13	량만에 넘친 명절	2003년 2월 2일	4면	로동신문
5.14	정월대보름명절을 맞이한 인민의 기쁨	2003년 2월 16일	5면	로동신문
5.15	우리 민족의 설명절풍습	2003년 12월 28일	4면	로동신문
5.16	성황리에 진행된 윗놀이 경기	2004년 1월 22일	4면	로동신문
5.17	이채로운 민속놀이	2004년 2월 5일	4면	로동신문
5.18	전국학생소년들의 민속놀이경기 진행	2006년 1월 30일	4면	로동신문
5.19	민속거리의 설풍경: 사리원시에서	2008년 2월 9일	4면	로동신문
5.20	즐겁게 맞이한 정월대보름명절	2011년 2월 18일	4면	로동신문
5.21	세배의 기쁨	2015년 2월 19일	5면	로동신문
5.22	며느리의 음식솜씨	2015년 2월 19일	5면	로동신문
5.23	이채롭고 즐거운 풍속: 대동강구역종합식당 동문국수집에서	2017년 2월 11일	5면	로동신문
5.24	광명한 미래를 확신하며 맞이한 정월대보름	2017년 2월 12일	5면	로동신문
5.25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가 비끼는 우리의 민속명절-정월대보름	2018년 3월 2일	5면	로동신문
5.26	아름다워라, 내 조국의 달맞이여	2018년 3월 2일	5면	로동신문
5.27	밝은 달을 바라보며	2018년 3월 2일	5면	로동신문
5.28	명절음식마다에 어린 마음	2018년 3월 2일	5면	로동신문

## 6. 『로동신문』의 국가명절(사회주의명절) 자료

연번	제목	날짜	면	신문
6.1	2. 8절 기념 조국통일달리기	1967년 2월 9일	3면	로동신문
6.2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로동과 조국보위에 믿음직하게 준비된 당의 혁명전사가 되자	1969년 4월 15일	6면	로동신문
6.3	평양 시내 청소년학생들의 충성의 노래모임이 있었다	1972년 4월 16일	3면	로동신문
6.4	조선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돛기념 《일당백상》 체육경기대회가 열렸다	1974년 2월 3일	6면	로동신문
6.5	환희와 열정에 넘친 수도의 거리	1991년 2월 16일	4면	로동신문
6.6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65돛 경축	1997년 4월 26일	6면	로동신문
6.7	《2월의 명절에 드리는 선군시대의 송가》 진행	2002년 2월 12일	4면	로동신문
6.8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부르는 다함 없는 칭송의 노래》 진행	2002년 2월 12일	4면	로동신문
6.9	태양절을 맞으며: 각지에서 대합창공연 진행	2002년 4월 16일	4면	로동신문
6.10	태양절을 앞둔 혁명의 수도 평양	2003년 4월 7일	1면	로동신문
6.11	온 나라에 활짝 피어 나는 태양의 꽃 김일성화	2003년 4월 7일	1면	로동신문
6.12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 만대에 길이 빛내이자, 인류역사에 길이 빛날 만민의 뜨거운 지성: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계 169개 나라에서 받으신 선물 16만 5,920여점	2003년 4월 7일	1면	로동신문
6.13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만경대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 진행	2003년 4월 7일	1면	로동신문
6.14	태양절기념행사: 각지에서 진행	2003년 4월 16일	4면	로동신문
6.15	해외동포들을 위한 연회가 있었다	2003년 4월 16일	4면	로동신문
6.16	은정 넘치는 명절봉사: 각지 사회급양봉사망들에서	2003년 4월 16일	4면	로동신문
6.1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2018년 2월 9일	11면	로동신문
6.18	조선인민군창건 70돛 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진행	2018년 2월 9일	11면	로동신문
6.19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2018년 2월 9일	11면	로동신문
6.20	각지에 있는 련사들의 동상과 련사릉, 인민군 련사추모탑, 련사묘들에 화환 진정	2018년 2월 9일	11면	로동신문
6.21	조선인민군 창건 70돛 경축: 공훈국가합창단,	2018년 2월 9일	11면	로동신문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진행			
6.22	다함없는 경모의 정 넘치는 주체의 최고성지	2018년 4월 16일	3면	로동신문
6.23	친어버이의 다심한 은정	2018년 4월 15일	3면	로동신문
6.24	태양의 꽃 영원토록 만발하리	2019년 2월 13일	1면	로동신문
6.25	자력갱생대진군을 추동하는 대중적혁신의 불 길	2019년 2월 13일	1면	로동신문
6.26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 만대에 길이 빛 나리	2019년 4월 5일	2면	로동신문

## <참고문헌>

### 1. 자료

『김일성전집』  
『김정은 문헌집』  
『김정일선집』  
『김정일전집』  
『로동신문』  
『매일경제』  
『민족문화유산』  
『양강일보』  
『연합뉴스』  
『조선신보』  
『조선향토대백과사전』  
『주간북한동향』  
『천리마』  
『통일신문』

### 2. 저서 및 논문

강성운·기광서·정규섭·고유환·배성동·김동규·강신창·최완규, 『북한 정치의 이해』, 을유문화사, 2001.

강정원, 「일제강점기 단오의 변화: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7, 한국민속학회, 2008.

강정원, 「마을공동체 세시의 쇠퇴: 서울 인근의 한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2(2), 한국문화인류학회, 2009.

강정원(편), 『북한의 민속』, 민속원, 2020.

계승무, 『24절기와 조선의 민속』, 외국문출판사, 2016.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편, 『조선의 민속전통: 민속놀이와 명절 (하)』, 조선의 민속전통 편찬위원회, 대산출판사, 2000.

권헌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창비, 2013.

- 권혁희, 「20세기 북한지역 단오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고찰: 식민지 시기 단오의 양상과 6.25 이후 사회주의적 변용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62, 한국민속학회, 2015.
- 김민환, 「한국의 국가기념일 성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응길, 「북한의 관혼상제와 세시풍속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
- 김정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제103(2014)년 10월 24일, 단행본,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 김정일, 『민족문화유산과 민족적 전통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 김종원, 「북한의 기념일 지정과 변화의 정치적 통제: 권력정당성, 개인우상화, 민족전통」, 『북한연구학회보』 23(2), 북한연구학회, 2019, 323~353쪽.
-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 남영호 외, 『남북한 세시풍속, 일생의례 비교를 통한 남북사회통합방안연구』, 신한대 산학협력단, 2019.
- 벨, 캐서린, 『의례의 이해』, 한신대학교출판부, 2007.
- 안주영, 「20세기 역법의 변화와 전통세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엄영찬, 「18-19세기 우리나라의 민간 명절행사」, 『고고민속론문집』, 1973년 5집.
- 올릭, 제프리 K., 『기억의 지도』, 옥당, 2011.
- 이두현·장주근·이광규, 『한국민속학개설』, 일조각, 2004.
- 이지순, 「기념일의 경험과 문학적 표상」, 『아시아문화연구』, 47,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8, 225~266쪽.
- 인권한, 『한국민속학사』, 열화당, 1997, 268-273쪽.
- 정승모, 『한국의 농업세시』, 일조각, 2012.
- 조광, 『평양의 민속』, 외국문출판사, 2016.
- 조선의 민속전통 편찬위원회 편, 『조선의 민속전통』 5,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향토대백과』 18, 평화문제연구소, 2006.
- 조은희, 「북한의 국가기념일을 통한 정권의 정당성 강화: 혁명전통 기념일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1(2), 북한연구학회, 2007, 227~253쪽.
- 주강현, 『북한민속학사』, 이론과실천, 1991.
- 주강현, 「北韓 名節風習의 變遷」, 『한국민속학』 3권 3호, 1994.
- 주강현,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민속원, 1999.

- 체롭바벨, 에비아타, 「달력과 역사: 국가 기억의 사회적 조직화에 관한 비교연구」, 제프리 올릭 편, 『국가와 기억: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본 집단기억의 연속·갈등·변화』,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2013.
- 하상복, 「이명박 정부와 815 기념일의 해석」, 『현대정치연구』 5(2),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109~132쪽에서 재인용.
- 홍석모 저, 정승모 역, 『동국세시기』, 풀빛, 2009
- 홍석모 저, 이석호 역, 『동국세시기(외)』, 을유문화사, 1969.
- Durkheim, Emile,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New York: The Free Press, 1965.
- Zerubavel, Eviatar, *Hidden Rhythms: Schedules and Calendars in Social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 , “Calendars and History: A Comparative Study of the Social Organization of National Memory,” in Jeffrey K. Olick (ed.) *States of Memory: Continuities, Conflicts, and Transformations in National Retrospection*, Duke University Press, 2003.
- 조선총독부, 『朝鮮の 年中行事』, 1931.
- 柳田國男·關敬吾, 『일본민속학입문』, 명저출판, 1998.
- 福田アジオ·宮田登, 『일본민속학새론』, 길천홍문관, 2005.

### 3. 인터넷 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7448&cid=42140&categoryId=42140>  
 「북한의 공휴일제도」,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사전연구소.  
 (검색일: 2020.11.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8930&cid=43667&categoryId=43667>  
 「태양절」,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검색일: 2020.12.16)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29461&memberNo=39094895&vType=VERTICAL>  
 송홍근 기자, 「달력이 北서 새해 최고 선물로 꼽히는 이유」, 시리즈-연박싱평양, 『신동아』,  
 2020.1.21. (검색일: 2020.11.5.)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9&koreanChrctr=&dicaryId=81> (검색일: 2021. 1. 7.)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SO320> (검색일: 2021. 01. 07)